글열음

제 24회 글열음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 례

1. 들어가기

- 박슬기선생님 격려사
- 학생회장의 말
- 부학생회장의 말

2. 만나보기

- 공모전 출품작 시 부문
- 공모전 출품작 소설 부문
- 공모전 출품작 비평 부문
- 공모전 출품작 시나리오 부문

3. 나가기

- 편집부장, 동아리 인사말

여는 말

올해도 예년처럼 캠퍼스에 깊은 가을이 찾아들었습니다. 나무들은 올해의 마지막 잎을 떨구고, 쌓인 낙엽들이 내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날들. 24번째의『글열음』역시 우리가 지나온 두 번의 계절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열음』은 문학을 사랑하는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창작에 힘썼던 결과물을 모아놓았습니다. 바심은 시를 쓰고, 소설창작반은 소설을 쓰고, 시놉시스는 비평문을 썼습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 동아리들이 매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만들어 낸 어떤 치열한 활동의 열매들입니다. 이번『글열음』에는 8회째 맞는 문예창작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품도 함께 실었습니다. 새로 공모된 시나리오들은 우리가 순문학을 넘어서서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힘들여 글을 쓰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고독하고 쓸쓸한 마음이 글을 쓰게 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는 또한 글을 통해 내 마음을 보여주고 타인의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봄의 변덕스러운 날씨만큼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따갑게 더웠던 여름만큼 견디기 힘든 마음들이, 그리고 막 시원해진 가을의 공기처럼 후련해진 마음들이, 이 글들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글을 읽으며 성숙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면, 이 책을 다시 열어 지나온 계절의 향기를 그리고 지나온 2017년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쁜 마음으로 되돌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국어국문학과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박슬기

학생회장의 말

국어국문학과 20121119
박정현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28대 학생회장 박정현입니다. 공모전의 출품작들을 보는 것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을 글로 써 내려가는 학우들을 보며 제가 처음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하고 싶은 것이 뭐가 그리 많았는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수많은 저만의 문학을 끄적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러한 취미가 어느 순간 과거의 잔유물이 되었을 때 '다시 써보자!'하고 글을 써봤지만, 글은 점점 더 알 수 없이 해괴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겪었기에 지금 이 문집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작품에 깃든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집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펼쳐져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문집을 집필할 시기가 다가온 것을 점차 추워지는 날과 졸업이며 취업이며 점점 더 바빠지는 동기들을 보며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것들 중 부족한 점을 지우다 보니 그 찌꺼기가 너무 거대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자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이 끝날 때가 되자 가벼워지기는커녕 솜에 물 붓듯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것이 선생님들과 많은 학우들이 절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문학부라는 제도가 들어선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묻습니다. 인문학부는 뭐냐.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많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적어지는 소속감, 행정상 미흡한 점 등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배우는 것은 '인문학(人文學)'입니다. 제도에 대한 순응, 절망을 따지기 이전에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본인이 배우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믿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배우는 것이 모든 학문의 기초, 중심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을 배우는 모든 학우가 이처럼 말할 수 있기를 빌고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앞으로 올 2018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학생회장의 말

국어국문학과 20131114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제 28대 국어국문학과 부학회장 박상우입니다. 2017학년도 1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2학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올해는 아주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스무살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인문학부 신입생들과 함께한 O·T를 시작으로 문학탐방, 문학 공모전, 그리고 학술제로 오기까지, 올해는 소중한 추억과 인연이 쌓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국문인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며 앞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글열음』엔 또 다른 국문인들의 한 해가 담겨있습니다. 그들의 2017년을 평가하기보단 같이 그 온도를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문집이 나오기까지 고생해주신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편집부장, 학생회장, 그리고 소중한 작품들을 선뜻 내어주신 국문인들에게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이 문집이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의 관심으로 이어져, 문예창작동아리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 부문 -

30일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발버둥치기 바빴던 수많은 시간들이
억울한 일임을 알았다

그제서야
오늘이 돼서야
너의 날들만큼 나의 날들을
연민할 줄 아는 나를 본다

스스로 놓아버린
그네들이 이내 놓쳐버린 것들을
주워 담아야 했던
나의 찬란한 시절들은

저 쓰레기통에
쳐 박혀 썩어질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되겠지

가여워하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의지는 내 것인 적이 없었기에
목줄을 쥔 개는 갈 길을 잃고
오늘도 거리를 헤맨다

하릴없이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할
두렵기 그지없을 시간들이
비로소 귀해진 것은

이제야말로
오늘이 돼서야.
오롯한 내 삶이 되어서

꿈꾸는 새벽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새벽부터 당신을 게워낸다
거칠어진 숨소리가 면죄부나 된다는 듯이
오늘도 나의 자리는
구역질나는 화장실

몇 날을 고민해서 찾은 죄명은
그저 살아 있기만 한 것
구린내 나는 인생을 끝내 버리지 못한 것
그것보다
감히 당신의 생을 가여워한 것

당신은
어떤 누구의 생의 의지를
얼마나 많이 집어 삼켰는가
그런 당신의 혈이 내게도 묻어나
아직 뜨거우니

냄새나는 스스로의 생을
화장하지 않는 나를
조의를 표하지 않는 나를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지

그럼에도 멈출 생각이 없는
나의 뻔뻔한 맥박은
부질없이 활기차다

나에게 전하는 비보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나의 시계는
그대가 부재하기 시작한
그 날에
멈춰버렸소

닿지 못하는 건 같은데
오늘 밤은 왜 더 서러운 것인지
알 길이 없고

잡고 있다고 여긴 적 없는데
놓쳐 버린 기분은 무엇인지

당신의 발자국을
킁킁대며 좇던 어린 날의 나는
다시 익숙한 향을 찾고 있소

처음부터
버려졌던 것은 나의 손길뿐이었고
누구에게도
버려진 적이 없는 그대는
무엇이 그리 서러운 것인지

원치 않게 놓쳐버린
의지가 가여운 것이라면
부디 나의 의지를 가져가오

본래 그대의 것이었던 것처럼
내어줄 준비가 되었으니
언제나 나의 의지는
당신에게 달렸던 것을

나는 새삼 억울할 것도 없소

21

국어국문학과 20161019
김지영

이젠 친근한 얼굴들
익숙한 강의실
여전히 어려운 수업
비슷한 학식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적응을 한 건지
권태로워진 건지

모든지 잘 해내겠다던
자두는 어디로 간 걸까

내색

국어국문학과 20161117
변진희

한 시의 나는 봉선화
세 시의 나는 세룰리안 블루
네 시의 나는 무언가 뒤바뀐 신호등

다섯 시의 나는 조금 더 차가운 다홍색
일곱 시의 나는 심해의 다이버
열 시의 나는 자줏빛 문

단단해진 샘을 긷자
완연히 보라가 감돌았다

푸념이 걸음걸음 지나갔기에
후회와 희망이 뒤섞였기에

비로소 보라인듯한,
보란듯한 내가 되었다

밤에 열린 문

국어국문학과 20161117
변진희

비가 쏟아진다

장대가 쓸고 간 자리에
생겨난 마음의 들은
이따금씩 풀이 죽었다

달이 피어나고서야
트이는 고뇌의 숨

얼마 쯤 지났을까
그 빛에 습기 어린
문이 열렸다

숨을 크게 내쉬어주면
더욱 선명해질까

또렷이 걸린 달무지개가
나에게 닿았을 때

비가 그쳤다

정리벽

국어국문학과 20161117
변진희

나는 항상 걱정을 정리한다
타오르는 고민을 위해 앓아줄 이가 없어
뭉치고 뭉쳐 티끌 없는 희극을 만들었다

물에 젖은 휴지마냥
쭈글대는 웃음만 차곡차곡

더이상 축축함을 쌓을 여유도 없건만
나는 파열을 잊은지 오래라
내색하지 않았다
내색하지 못한다

흩뿌리던 가랑비에 나는 젖어버렸다

파랑으로 식어가는 것을 모르고
헤실거리기만 한 것이다

부정들을 부정하며
생겨난 우울하고 나른한 긍정이
언제 막을 내릴까 두렵다

그리고 두렵다
이 두려움도 젖어들어갈까봐

동태 눈깔

인문학부 20171070
이예림

심해 속에서 형형하게 빛을 비추는 눈동자인 줄로 알았다
고고하게 저 멀리의 파랑을 응시하는 눈빛인 줄 알았더랬다

그
건
봄이 먼 탓이다 믿었다
사실
헤엄을 칠수록.

오늘은 마음에 없는 말을 쉽게 하였다

저 잿빛 유리판 너머 꽝꽝 얼어붙은
실핏줄이 터져 누렇게 된 흰자는
뉘 집 냉동고의 동태눈이냐
도태의 바다에서 허적이며
초점을 영영 잃은
그 비릿한 눈깔은

그런 밤이다

인문학부 20171070
이예림

처연함의 끝을 봤다고 자부했던 지난 새벽아
나라도 이렇게 말을 걸어주니
얼마나 좋니

자고 일어나면
연기처럼 잊혀 질 거란
안일한 생각 마라

추위에 몸서리칠 때 그들이 뭐라더냐!
마음이 미어진다 말하려 입을 열 때
그들이 뭐라더냐…

동해 바닷물로 화장지를 굳히고
바람이 불러도 돌아보지 말고
혼자서
오롯이

곁에서 두드려줄 대장장이가 없어
나를 사랑해줄 이는 있을 리 없다며
스스로 내려치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햇빛

인문학부 20171070
이예림

한 줄기로는 넓은 이 마음 채워지지 못해
나 그대 향해 타들어가도 좋으리
바람에게 귀띔할게
눈이 시리게 하얀 곳으로 보내달라고
바다에 파도가 하얗게 밀리듯이
어쩔 수 없는 척
둥
실
떠올라
눈부심에 몇 줄기나 흘리면서
닿기도 전에 녹아버려
나 그대 향해 타들어가도 좋으리

겨울을 나는 법

인문학부 20171109
허도연

입김마저 어는 겨울
정원 귀퉁이에 사는
고슴도치 여섯 마리

한 쌍은 가까이
다른 한 쌍은 멀리
마지막 한 쌍은 적당히
의지하는 그들

피와 얼음이 난무한
이 겨울에서
너희는 무사히 날 수 있을까

추위만큼 날선 가시덩어리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게 너희는
잔혹한 겨울을 거치고
더 강한 고슴도치가 될 수 있을까

가로수

국어국문학과 20141138
한가희

숨이 멎어 가는 걸 느낀다.
요동치는 새벽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두가 잠들고
움직이지 않는 한 순간

그 작은 파편에서만이
나는 숨 쉴 수 있어
잠들지 못하는 새벽

목이 조여 오는 걸 느낀다.
요동치는 몸의
수많은 떨림과는 다르게

23,
23줄의 나이테

그 작은 넓이 속에
검은 낙인이 있어
품에 안고
발버둥 치는 매일 밤

스테인드글라스

국어국문학과 20141138
한가희

색색의 투명한 꽃병
아끼는 그것을 마음 깊이
고이 두었다

바라만 봐도 좋던.
어떤 이는 그것을 치고 지나갔다

깨진 조각 사이로 번지는 물
화가 나 따져 물으니

내가 깨뜨린 게 아니야
저게 견디지 못한 거지.

유리를 줍는 손에서 피가 흘렀다

난 그 파편을 주워 담아
눈에 넣었다

눈동자에 박힌
조각난 감정
여덟 개의 파편

그래, 네가 깨뜨린 게 아니야
내가 견디지 못한 거지.

아,
스테인드글라스

그 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햄스터

국어국문학과 20141138
한가희

작은 너는
해바라기씨 밖에 모르는
먹보

오늘도
두 볼 뚱뚱하게
도시락을 싸고
비좁은 상자 속을 탐험하지

몸집만큼이나
작은 너의 생에
찬란한 빛은 언제일까

손 안에 올라오는
너를 보며

해바라기만큼이나
커다란 나는
무력함을 느낀다

거울을 보고

인문학부 20171109
허도연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 위해
헌 곳을 갈아엎는다

책장 사이사이
공책 사이사이
8년간의 흔적을 찾아 떠나면서

한없이 어리고 어렸던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벽을 부수기 위해
호미라도 들었던 고사리손
별을 뛰어넘을 기세로
움츠렸던 몸뚱아리

이제는 작별을 고하고
그만 가보려 한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너를,
아니
나를 만나러

꽃씨

국어국문학과 20141135
정예찬

무화과 나무의 속꽃보다
더 활발한 아이들
흐드러지게 핀 봄 이었다

꽃씨는 콧잔등에 앉아
눈물샘까지 뿌리를 내렸다
서글퍼지는 날이 되어버린다

민들레 밭을 지나갔는지도 몰라
5월에 누이가 말했다

비가 내린다
그들은 저들을 밟아
그 속에 싹을 개운다
내게도 뿌리가 조금 자란다

정결에 대하여

-사거리-

국어국문학과 20141135
정예찬

밟던 눈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이얀 십자가가 누여있다
신고 있는 신발이 더러웠는가
생각을 스쳐하며 걸음을 옮겼다

난 그 분의 다리부터 왼쪽 팔로 향하며
못을 박았다
꽤나 긴 시간이었다

다 지나고 신을 보았지만
처음을 보지 못하였기에
정결한 줄 알고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이 길 위로 사람들이
발자욱을 덮어줄 것을 안다.
난 이내 마음이 가벼워져
그의 머리를 지난다

가지 말라는
귀엣말이 들리는 듯하다

요양원

국어국문학과 20141135
정예찬

11월 24일
이제 나를 찾아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마른 뼉다귀에 재미가 식었기 때문일 터였다.

공허함
주차장에 차를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한다
식판에 나오는 검은 밥을 삼켰다

오늘 밤 맡은 실내의 안개
지나간 이들이 나를 돌아본다 외면한다
갈그치는 밖의 소음
소방차 경찰차

미련의 몸부림
땅(地)은 그런 오만과 나태를 꾸짖어
허리를 부쉈다

나를 데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신음하지 못했다
곧 해야 할 때가 다가옴을 느꼈다

꿈꾸는 단칸방

국어국문학과 20121114
김화영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어둔 낮 끝머리
들어올 이 없던 단칸방

바깥에는
비릿한 꽃비가 내린다
말하지 못한 유언이 매캐히 어리고

전등에 스러져 갈 날벌레
도로서 비명에 떠나간 고양이
할 일을 잊은 일기장
미끄러진 흑연 한 줌

차디찬 내 곁에 와
모두 같이 잠들자

이별

국어국문학과 20121114
김화영

낙엽이 움트는 나무 아래서
여자는 귀를 잘근 씹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늘에 스며들다 지면에 퉁겨나간
어린 울새를 보며
안도감에 입을 살며시 손목에 맞춘다.
이윽고 저물어가는 자정에 파묻혀
서린 어둠을 서둘러 입에 담아
내보내는 것이다.

그런 마음

국어국문학과 20161033
류정은

몸집이 작아
생명 또한 가벼운 줄 알았지

책임은
가벼운 숨결에도
쉽게 떠올라버리고

질식한 채 부유하다가
콧잔등을 간질이다가

눈물에 익사하여
눈곱으로 떠오른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너는 너무 무겁고
나는 너무 약하다

나도 바람 꽃

국어국문학과 20161019
김지영

첫사랑처럼 나에게 찾아와
설렘을 안겨주고
스쳐간다

점점 너를
느끼기에는
짧아진 것 같은 시간

항상 소나기가 지나간 것처럼
너의 발걸음은 아쉽기만 하다

그래도 다시 너를 만나
왠지 나도 싱그러움을
내뿜는 기분

나도 바람 꽃

눈을 감으면

국어국문학과 20161033
류정은

눈을 감아야만 들리는 소리
눈을 뜨면 흩어져버려

함께 있으면 죽어 있던 것들이
혼자가 되면 되살아난다

풀벌레는 꽃을 부르려
노래하고
물결은 별을 부르려
춤춘다

오로지 나를 위한
나에게 화답하는 소리

아, 그래
머리칼 흩날리는 소리가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너에겐 노랫소리였구나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길 옆에 세워둔 자전거만 시간이 멈췄다

버스 안에서

국어국문학과 20161080
이혜진

투명한 유리 속
물방울은 여행을 한다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하늘, 건물, 사람, 모래…
그 모든 것을
조그마한 몸에 담아낸다

물방울은 단 한 번도
투명했던 적이 없다

언제나 모든 것을 담고
흘려보낼 뿐이다
단지 조금 오래 담는지
순간을 담는지의 차이일 뿐

물방울이 점점 더 작아져
공기 중을 여행할 때엔
마침내
세상을 영원히 담아낸다

보호소

국어국문학과 20161033
류정은

사랑을 잃어버린 짐승들은
아주 작은 철창에 갇혔고
나는 침자국 가득한 그릇에 마른 사료와 수돗물을 부었다

그들은 고통을 씹고 미련으로 목을 축였다
이따금 침을 질질 흘리고 기침하며
“나 여직 살아있소”하고 말했다
그것은 투명한 피였다

어린 것들은 버려진 것도 모르고
낯선 이의 손바닥에 얼굴을 비볐다
앞발을 쭉 펴고 허공을 저으며
인간의 손길을 갈구했다

조금 자란 것들은 털을 곤두세워
위협 속에 불안을 감추거나
벽에 몸을 부딪혀도 아랑곳 않고
제자리를 돌며 몸을 흔들었다
온 힘을 다해 젊음과 열정을 불태웠다

늙은 것들은 마지막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데 집중한 나머지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말을 잃었다

차라리
길 위의 삶이 나았을까
한쪽뿐인 눈으로나마 오롯이 세상을 담고
모자란 다리엔 세월을 의족으로 붙인 채 나아가는
길 위의 삶이
더 좋았을까 덜 나빴을까

잊혀진 영혼은
문 밖 병든 개를 위한
흐느낌과 걱정 어린 한숨을 훔쳐다가 또
또 하루를 산다

생전 처음 듣는 말

인문학부 20171093
정예빈

지하철에서 출구를 물으러
지하철 안
작은 옷가게에 들렀다

김밥을 우겨넣은 주인 할아버지
간단히 출구를 물을 면 되는데
말이 더듬거리며 쪼그라들어갔다

뭐어? 뭐라고?
내가 한 말을 못 알아 들으셨는지
자꾸 반문하신다

아아, 거기? 저어쪽 끝쪽에 가면 돼
옆에서 들으셨던 할머니가
답답했는지 오른쪽 끝 출구를 가리키고

급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뛰어가자
남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쟤, 외국인이야?

숨바꼭질

국어국문학과 20161080
이혜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널 찾아 헤매였지

너는 어떤 얼굴을 담고 있을까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는
미지의 것이겠지

쿵쿵 뛰는 심장만
귓가에 맴돌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검은 커튼에 숨어있던 얼굴은
나와 마주하겠지

쿵쿵 뛰는 심장까지
귓가에 맴돌고

보푸라기

인문학부 20171076
이지수

가장 좋아하는 옷 하나
가장 오래된 옷 하나
옷장 안 어둠 속에 있던 옷 하나
의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물들여진
보푸라기

생채기 나듯이
조금씩 조금씩
나의 마음처럼
물들여진 보푸라기

저 깊숙이 감춘 나의 마음처럼
다시 고이 접어
보푸라기를
옷장 속 맨 끝에 감춰본다

새벽까지

인문학부 20171076
이지수

꿈이려니
꿈이겠거니

새벽이 되어도
잠들지 못함도

모든 것은
지나가려니

좀처럼 기세를 펴지 못하는
겨울바람만이 술렁이고 있다

너나 나나
나나 너나

한스러움은
안타까움은

꿈이려니
꿈이겠거니.

일부

인문학부 20171076
이지수

열어놓았다가
닫아보았다가

그대여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한 줌 떼어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대가 떼어가셨습니까

허합니다.
공허합니다.
비어있습니다.

내가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로서 온전히 서있으면 합니다.
나는 왜 휘둘리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도 물어뜯기어
너절너절한 헝겊처럼 구차합니까.
빈자리를 더듬는 것이 아픕니다.

이 너절한 자락의 끝을 더듬거리는
그런 날들의 끝이 오기를 빌고 있습니다.

가림색

인문학부 20171109
허도연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총천연색의 가림색이 있어야 한다

난처할 때는 담담한 색
슬플 때는 무덤덤한 색
화날 때는 평온한 색
속상할 때는 차분한 색
짜증날 때는 즐거운 색
불안할 때는 기쁜 색
불행할 때는 웃는 색

오직 긍정적이고 모나지 않은 색만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도 파랑

국어국문학과 20151124
이윤지

푸른 그림자
가라앉은 바탕에
그어버린 선 위로는
새파란 물감이 흘러넘치는

오늘은 364일째의 파랑

이불 속도
햇빛 아래도
시퍼렇게 식어있는

오늘은

364일째의 파랑?

달력의 띄엄띄엄 푸른 동그라미는
흐려지다 하루, 또 이틀
비워진 칸들 사이
새하얀 어둠

몇 번째 파랑인지 모를 날과 날 사이
푸른 새벽과 남빛 저녁을 오가며
끔뻑이는 눈꺼풀

채워지길 체념한 빈 캔버스 사이
그어질까 두려운 짙푸른 물감이
손바닥에 식도에 혈관에 심장에
흐르며 쌓이는

파랑과 파랑 사이
언젠가 전해질까 끼워둔 전언

파랑이 당신을 풍부하게 한다면
차라리 납작하기를

파블로프의 이별

국어국문학과 20151124
이윤지

종소리에도 고이는 눈물과
한 조각 기억에도 부푸는 허기

텅 빈 뱃속을
채우려 잘라낸
케이크 조각

크림에 뒤섞인 목소리
시럽에 녹은 낮은 웃음에

들큰해진 목구멍이
뻑뻑하도록
차오르는 울음

입 안 가득하던 단 맛도
흐려져 날아간 허공에는

잡히지 않을 종소리

한 사람 분의 세계

국어국문학과 20151124
이윤지

너에게 선물받은 자그마한 물고기
수면에 일었던 작은 물결

눈을 감았다 뜨면

고래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어
거대한 지느러미로
부서지는 빛들 사이로

고요하도록 힘찬 비행
그에 솟구치는 새하얀 물거품

세차게 일어난 물결에 잡아먹혀
시리게 하얀 하늘에 빠져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드넓은 세계

물방울 방울들이 자잘한 눈 앞에는
선명하게 빛나는 고래가 묻고 있어

내가 더 거대해질 내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 소설 부문 -

720d, 머리카락, 구지 함벨라

국어국문학과 20111112
김주성

1장. 고래 친구 이야기

고래 친구는 가끔 우리 집에 찾아오곤 했다. 그는 굉장히 술을 잘 마셨다.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고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그가 고래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에게는 거대한 자동차가 있었다. 조그만 원룸들이 다닥이 붙어 있는 이런 동네에는 특히 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동차가 말이다. 검은색에 양 옆으로는 지느러미 같은 것이 붙어 있는 차였다. 차의 소리는 바다 깊은 곳에서 우는 고래의 그것을 연상시켰다. 물론 그런 소리 따위 들어본 적 있을 리 없지만.

그는 여러모로 좋은 친구였다. 게다가 내가 남자에 마음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다가 잠에 들었다. 그는 대체로 술을 많이 사왔다. 양주나,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것들로 뭐든 말이다. 잔뜩 취해서 잠에 들 수 있을 만큼 사왔다. 쓰레기통 옆에는 각종 병과 캔이 *언덕처럼* 쌓여있었다.

그는 이 시간을 고민 상담 시간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이다. 사업가다운 생각이었다. 그는 돈에 관련하여 능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돈은 돈을 낳는 연쇄효과를 불러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말 따위 실상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잔뜩 취해서 이 원룸을 사겠으니 관리를 부탁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는 '정말 그가 돈이란 것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보구나.'하고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기로 이 건물은 건물주의 노후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당장에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이 6평짜리 방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가 내게 주로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그리고는 내게 메신저의 대화나, 메일이나, 메시지 따위를 보여주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다. 대부분은 그저 아무런 감정 없는 비즈니스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가끔 어미를 이상하게 사용하거나, 비꼬는 듯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가 텍스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었다. 그에게 나는 일종의 논술 선생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내가 선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관철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런 나의 점을 그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에게 나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그것은 정의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절친한 친구라 말하긴 어색한 사이었고, 친하지 않다고 하기엔 친한 사이었다. 그 시절에 나에게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던 예전 같지 않던 시기였다. 그저 몇몇의 사람들과 가끔 술잔이나 섞으면 그게 다였다. 살다보면 사람마다 이런 시기가 있게 마련이라고 나는 고래 친구에게 말하곤 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고래 친구도 내게는 일종의 상담가기도 했다. 우리는 상담가면서 상담가인 그런 사이였던 것이다.

아침이면 고래 친구는 나보다 일찍 일어나 왁스를 발라 머리를 넘기고 밖으로 나갔다 왔다. 그리고 델몬트 주스나 사과 주스 따위를 사와 전날 술을 마시던 잔에 나눠 마시고 인사하고 떠났다. 한 달에 한 번쯤이었을까. 그에게나 나에게나 적절한 유예기간이었으리라.

2장. 사각사각

고슴도치는 나와 너무나도 다른 친구였다. 그-녀가 맞는 표현이지만 고슴도치에게는 '그'가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나처럼 친구들과 단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럴 친구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래 친구와는 대학 동기사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안면이 있었지만 고슴도치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간 영화관에 나뿐이었던 날이었다. 심야영화였고, 마지막 영화였다. 영화를 예매할 때만 해도 나밖에는 영화관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혼자 영화를 볼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제일 커다란 팝콘을 들고 들어와서는 영화관 정 중앙 나의 옆자리에 앉아서 사각사각 팝콘을 먹었다.

그는 나는 신경쓰지 않을 채 그냥 내 옆에 앉아 앞으로 약간 목을 빼고 영화를 보며 사각사각 팝콘을 먹었다. 내가 보기에 그의 이런 행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긴 머리는 묶고 반대쪽으로 넘긴 상태였다. 뺨에는 홍조인지 화장인지가 빨갛게 달아있었다. 겨울이기 때문에 홍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 영화는 결국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 안절부절 하기 바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고 울고, 웃었다. 나와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자 엔딩크레디트 따위 관심도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관 공용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내일 오후 세 시에 재개봉하는 영화를 볼거야. 두세 번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그가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가는 곳은 언제나 조용했고, 누구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없는 듯 했다. 그리고 만나도 딱히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나도 그냥 생각을 시간에 맡겼다. 싸구려 커피를 비싸게 파는 그런 커피전문점이 한가한 시간에 들어가 앉아서 커피를 후후 불고 나오곤 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서점에 가서 앉아 있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의 뒤를 착실히 따르고, 다음에 어디서 만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었다.

내가 그를 고슴도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슴도치와 닮았기 때문이다. 고슴도치는 추운 날이면 서로 머리만 맞대고 동그랗게 모여 있다고 한다. 더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고슴도치와 같이 나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다. 나도 모르는 나의 가시를 그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동족'이라 그냥 알게 되는 것일까.

상관없었다. 그가 가는 곳은 늘 조용했으니까, 그런 시간대를 그는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와 타는 272번 버스는 언제나 조용했다. 내가 타는 272버스는 언제나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좋았다.

조용히 가시를 세우고 머리를 모으는 고슴도치, 나는 그를 만날 때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3. 노인네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했다. 핸

드드립인지 뭔지를 하는 카페였는데, 핸드드립을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500W'이라고 적힌 거대한 문구를 보고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네는 달랐다. 내가 노인네라고 부르려고 노인네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 노인 스스로 자신을 노인네라고 불렀다. 노인네가 커피 맛을 알아버려서,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야…하는 식으로 말이다.

카페 사장도 나름대로 난처한 면이 있는 듯 했다. 원두는 kg단위로 주문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쯤 오는 노인을 위해 모든 종류의 원두를 다 구비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두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은 한 달쯤이라고 했다. 더 쓸 수 있지만 그러면 노인이 바로 알아버려서 안 된다고 했다. 노인네가 단골이 되어서 생긴 일이었다.

나로서는 좋은 일이었다. 커피 마시는 것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주면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게 있어 노인네는 하루에 무료 커피를 두 잔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나도 핸드드립이라는 것을 배워서 노인에게 커피를 내려 주곤 했다. 하지만 사장이 가게에 없고 내가 혼자 있는 경우라면 나는 노인에게 직접 커피를 내리면 어떻겠냐고 권했다. 적은 양의 원두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커피를 내리기란 노인에게 처음인 일이었을 것이다. 노인은 내가 카페 사장에게 배운 '봉긋하게 커피 내리기'를 알려주자 내 봉분보다 훨씬 큰 봉분을 만들어냈다. 단순 애정만으로 이렇게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차이가 나는 *봉분을*.

사장은 매 번 다른 종류의 원두를 구했다. 매 달 각각 다른 종류의 원두를 네 종류정도 구매했다. 그러면 샘플 원두가 왔는데, 사장은 이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 나는 이 원두를 갈아서 노인에게 주었다. 주 5일 카페에 출근해서 두 잔씩 커피를 마시는 내게 원두란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50그람쯤 되는 그 커피를 노인은 마치 늦둥이를 새로 받은 것처럼 받치고 조심스레 집으로 가져갔다.

아마 어딘가에서 싼 드리퍼와 필터를 구해 조금씩 내려 마시리라는 상상을 나 혼자 해 보았다. 호소구치 주전자도 없고, 서버도 없는 그런 커피 말이다. 그 커피는 무슨 맛이었을까. 나는 그 커피를 마셔보고 싶었다. 노인네가 내린 커피는 내가 내린 커피보다 훨씬 맛있었으니까, 주전자로 커피를 내려도 분명 괜찮은 맛이 났으리라.

노인이 온 후로 가끔 드립 커피를 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저 동네 싸구려 커피 자판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팔다니 하는 식의 눈빛을 보내왔다. 원래라면 오래된 핸드드립 커피를 사장만 아는 일정 비율로 섞어 싸구려 커피로 만들어 팔았지만, 그제서는 원두가 남지 않게 되자 섞지 않아도 되었다. 사장 말대로라면 난생 '처음 일어난 선순환'이었다.

그쯤 해서 손님이 많이 오자 미안했는지 사장이 오백 원인지 시급이 올려줬다. 세 시간 일하면 싸구려 커피 한 잔이 그냥 생긴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노인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자, 노인네는 너한텐 특별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괜찮아, 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속으로 당신이 더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속을 들여다 본 것처럼 허허 웃었다.

처음 카페를 다니는 동안에는 노인네나, 고슴도치, 고래에 대한 생각을 주로 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는 원두로 연습 겸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문을 닦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고, 바닥을 닦았다. 컵도 헝겊으로 닦았다. 그러면서 노인네는 언제쯤 올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워낙 바빠져서 무슨 생각이라는 것을 할 시간이 없었다. 출근해서 미친 듯

이 핸드드립을 내리다 보면 하루가 끝나있었다. 사장은 직접 출근하는 시간을 늘렸고, 핸드드립 드리퍼와 서버를 더 샀다. 한 번에 세 잔의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유롭고 할 일 없는 가게에서 일하던 한량이 갑자기 바리스타나 된 기분이었다. 사장에게 그만 두겠다고 여러 번 말해보았지만 안된다고 한 달만 더 하자는 얘기를 계속 했다. 시급은 천 원이 더 올랐지만 딱히 원한 바는 아니었다.

평일 쉬는 날이면 고래는 우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다. 내가 커피를 내린다고 하니 꼭 오겠다고 했지만 아마 오지 않으리란 것을 나는 알았다. 고슴도치는 가끔 지나가다가 카페 문 앞에 서서 나를 흘긋 보고 지나갔다. 내가 뛰쳐나가면, '내일' 오후 세 시 이런 식의 제안 비슷한 것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다. 그는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없게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마음에 드는 시간에 우리는 만나기 어려웠다. 그런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부모는 가끔 전화로 내가 뭘 하는지 물어봤는데, 일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은 아니었고 나도 그저 그랬기 때문에 좋아하게 내버려 두었다.

정말 바쁜 날에 노인네가 카페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손님이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다. 나도, 사장도 정신이 없어 계산하기 전까지 노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냥 커피, 그게 빨리 되는 거 아닌가. 그는 말했다. 천오백 원, 한 시간의 여유분만큼의 커피. 사장이 있었지만 새로 들어온 에티오피아 원두를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내렸다. 뜨거운 커피에 홀더를 끼우고 노인에게 주려니 바로 주문이 있었다. 사장은 빨리빨리 일을 해내는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핸드드립에만 계속 매달려 있었다. 주문을 받고, 에스프레소를 내리려 하다가 보니 노인네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나가고 있었다. 달려 나갔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마 이렇게 바쁘지 않을거에요. 별다른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뭐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손을 휘적휘적 저었다. 들어가라고. 그러다가 문득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군고구마였다. 아마도 옆 동네 아파트 앞에서 팔고 있는 것이겠지. 나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가게로 들어갔다.

4. 고슴도치

고슴도치와 오랜만에 만나서 그를 따라다녔다. 고요한 세상이었다.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와 함께 영원히 이렇게 걷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나 따위 관심도 없다는 듯이 걸었다. 도로와 도로 사이 잔디밭을 따라 걸었다. 아마도 수도 관련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인 듯했다.

그가 작은 건물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물었다. 담배? 담배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새빨간 불길이 꽁지 끝에서 일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빨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얕은 기침을 끊임없이 했다. 무슨 병에 걸린게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다.

담배는 입에 물고만 있는 채로 그는 낙엽을 모았다. 낙엽을 긁어모은 *조그만 묘지*에 그는 담배로 불을 붙였다. 플라타너스 낙엽들이 무언가를 꼭 움켜쥐듯 손을 오므리며 타들어갔다. 그는 가만히 그 불길을 바라보았다. 나는 전과 같이 그를 보고, 불길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슴도치 주위는 조용했다. 그것이 나는 좋았다.

그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하고는 사라져갔다. 그래 너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아마 그게 맞는 거야. 나도 집으로 향했고, 집에는 노란 고구마가 이제는 차가운 채로 놓여 있었다. 커피의 봉분이 떠올랐다. 노인의 듬성한 흰 머리도 떠올랐다. 흰 머리와 고슴도치가 불을 피운 플

라타너스가 겹쳐서 보였다. 요즘 힘드니까, 하고 골아 떨어졌다. 이제는 맥주도 필요 없었다.

5장. 고래

고래의 차는 더 큰 고래로 바뀌었다. 밍크고래가 범고래가 된 그런 차이와도 같았다. 그르릉거리는 소리도 이제는 표효에 가까운 굵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도수가 높은 술들을 가져왔다. 나는 별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찔끔찔끔 스트레이트를 반잔씩 나눠 마셨다. 그는 스트레이트로 다섯 잔을 연거푸 마셨다. 그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에서 맴돌고 있었다. 예전에 했던 고민을 다시 하고 있었다. 진전을 원하는 것이리라. 나는 거부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혼자 잠에 들었다. 잠에서 문득 깨었을 때 멀리서 범고래 소리가 들려왔다. 계산은 확실한 그이니까, 괜찮겠지.

잠에서 깬 나는 남은 술을 혼자 들이켰다.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게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뭔가 달라져 있었다. 백조이면서 동시에 다 죽어가던(물론 비유적으로) 나였는데,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무엇일까. 이상한 일이었다.

6장. 강아지가 되는 기분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냥 형제 말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가 있었으면 말이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혹시 이 길이 아닌 것만 같으면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형제 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형제를 계속해서 나는 원해왔다. 하지만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삼류 연애나 하다가 끝나버렸을 뿐이었다.

누구도 나의 형제가 될 수는 없었다. 형제라는 것은 아마도 진짜 핏줄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내게는 상관없었지만 어쨌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었다.

개천을 따라 걸었다. 개천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았다. 누군가에게 나도 저런 강아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나는 강아지가 되고 싶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강아지 같은 성격이 되지도 못하고, 강아지를 받아줄 성격도 되지 못하였으며, 주인에게 보살핌 받을 성격도 되지 못했다. 만약 강아지라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강아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혹시 모른다는 집념으로 나는 계속해서 주인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그런 것 따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이제는 명백해져버려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7장. 범고래

고래 친구에게서 선물이 온 것은 내가 주인을 찾아 헤매는 일을 그만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그가 직접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르렁거리는 고래의 울림이 내게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고래 친구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분명 다시 잠들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복되면서 꼬리가 없는 그 이야기를 말이다.

그러나 한동안 고래 친구는 나의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그로인해 다소의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전에 사온 술도 다 마시지 않았음을 알아버리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마도 오히려 나의 마음이 돌

아서 버린 것을 알아챈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는 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고 집 문을 열었다. 바깥쪽의 문고리에는 무언가가 짤랑거렸고 그것은 고래의 자동차 열쇠였다. 거기에는 작은 편지도 함께 있었다. 나는 고래가 오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한 채 편지는 뜯지 않고 잠에 들었다. 아주 따듯한 밤이었다.

다음 날 편지를 뜯어보니 거기에는 이 차는 내게 주고 싶다는 고래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보험 따위는 전부 완료 되어 있어, 하는 식의 편지였다. 그의 사무적인 장점이 드러나 있는 편지였다. 너는 그냥 이 차를 타기만 하면 돼. 나는 실제로 바로 그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분명 부담스러운 선물이었고 거절해야만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타 보고 싶었다. 아마 고래도 어딘가에서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고래의 내부는 널찍했고 궁륭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이었다. 동굴은 입구가 작지만 내부는 더욱 거대하다, 그런 느낌이었다.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빠져나오느라 애를 쓰긴 했지만 나는 제대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나는 은행나무가 펼쳐져 있다는 유명한 도로로 향했다. 은행나무 발굽보다 플라타너스 손바닥이 더 많이 나부끼는 것처럼 보였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지는 나뭇잎보다 바닥에서 날리는 나뭇잎이 많기도 했다.

차를 세우고, 작은 편의점에 앉아 싸구려 원두커피를 마셨다.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동차야.* 그 차를 바라보며 나는 절실하게 느꼈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동굴이고, 고래이고, 자동차이고, 친구라는 것을.

6평짜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문제가 있었다. 고래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나는 설마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으로 들지 않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가 깨달았다.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말이다.

외각 도로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 그대로 시내 도로까지 꽤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올 수 밖에 없었다. 고슴도치가 어디선가 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시내에 들어와서도 차라고는 반대쪽 차선에 밖에 없었다. 나는 하염없이 빨라지는 차를 몰다가 말고 안전띠를 잡아당겨 끼웠다. 죽고 싶지 않다.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혼자 죽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던 고래는 급커브를 하는 도중 뒤집어졌고, 다행히 궁륭 같은 뼈대는 나를 살게 해 주었다. 바퀴는 뒤집어진 후에도 한동안 돌았다. 기억을 다시 되찾았을 때는 흰 옷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 깁스를 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다음날 낮이었다. 범고래가 지나가면서 흩날리던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나뭇잎이 타들어가며 쪼그라드는 모습이 떠올랐다.

8장. 사각사각, 노란 고구마, 포도주병

나는 지금껏 한동안 내 삶을 차지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남긴 것이나, 혹은 내가 강제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나는 왜 해야만 했을까. 내가 이 시기동안 만난 이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고슴도치, 고래, 노인네 모두.

나는 나름대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그들과 연결된 상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들과의 유대감을 느꼈지만 그들은 나와의 유대감을 찾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반대일까.

나는 또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며, 노인네를 만나며, 고래를 만나면서도 가끔씩 어떤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들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것은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나로서는 그런 일을 겪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았을 테지만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죽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아닐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온 것은 고슴도치였다. 그는 내게 머리카락을 보내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뉴스에는 그의 이야기가 도배되었다. '여대생 A씨는 왜 죽어야만 했나'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이다. 그는 스스로의 방과 스스로와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 세상에 남은 것이라고는 내게 보내온 머리카락뿐이었다.

나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받아 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머리카락을 보내왔을까. 고슴도치의 가시를 나는 한동안 보고 있었다. 머리를 맞대고 있던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인 것일까. 머리를 맞대고 추위를 견디는 고슴도치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개천에 가서 던졌다. 태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랐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잠들고 싶었다. 조명등만 켜고 잠들기 위해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책상 위를 보니 고구마가 놓여 있었다. 노란 고구마, 나는 고구마를 좋아하지 않는다. 노인네가 준 고구마는 책상 위에서 아직도 노랗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고구마를 들고 나가 다시 개천에 던졌다. 그리고 들어와 잠이 들었다.

나는 어쩌면 이미 노란 고구마를 보며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날은 카페에 출근하는 날이었고, 출근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보니 편지가 내 앞으로 와 있었다. 자신의 장례식이 있으니 참가해 달라는 노인네의 편지였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 두 명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까. 어쩌면 나도 곧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어지러운 생각들이 머리를 휘감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한 시간에 싸구려 커피 한 잔이 더 생기는 시급들을 남겨두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장도 이해해주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에 참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힘든 일이었다. 양복을 입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하기도 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그곳에 찾아가 누구냐는 물음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러면서 육개장이나 밥도 먹어야했다. 맛없는 그 육개장을 말이다.

그래도 가야겠지, 양복은 없으니 검은 옷을 입고 가야겠지.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에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육개장도 없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없었다. 양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도 없었다. 편의점이었고 노인네의 이름을 대자 작은 박스를 줄 뿐이었다.

그 안에는 200g정도의 원두가 들어있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많은 곳에서 마셔본 원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커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마셔본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대체로 커피 이름이나 맛 따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을 하지 못했다.

9장.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계속 카페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카페는 나름대로 잘 되는 분위기였고 2호점의 일종의 매니저 같은 것을 맡게 되어 이제는 시급이 아닌 월급을 받게 되었다. 돈이라고는 백만 원 후반을 받는 것이 다였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내 가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카페 사장은 월급만 주는 것은 아니고 수익의 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익의 반이 기본 월급을 넘기면 그 이후로는 추가급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일종의 고래식 사업 방식인가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고래라면 내게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래는 마지막으로 내게 소식을 알려온 그 시절의 나의 친구였다. 그는 고래를 타고 나의 집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다. 새벽이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왔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문 앞에는 역시 소리도 없이 누군가 놓고 간 술병이 잔뜩 쌓여 있었다. 내가 맛있다고 지나가듯 말한 와인들이었다. 아마 꽤 비싼 와인이었으리라.

내가 그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 기간에 만났던 이 중에서 그가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것 뿐 아니라 그의 회사가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그는 어딘가 차가운 바다에 투신했고, 시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왜 나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 모두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나는 확신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그들과는 다름을 느꼈고, 그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비슷한 면이라고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고구마와 머리카락과 고래와 궁륭 같은 범고래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형제를 만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고 가끔 생각하곤 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두 사라져버려서 내가 당신들을 여기에 남겨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받은 것들 중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범고래는 박살이 났고 고슴도치의 가시와 고구마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으며 커피 원두는 카페에서 싸구려 커피에 섞어서 팔아버렸다. 술은 원룸 건물 앞에 그대로 놓자 누군가 가져갔다. 그들과 함께 했던 나만 여기 남아 있는 것이다.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면 나는 침대에 누워 책상을 바라본다. 곧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별을 만나다.

국어국문학과 20161016
김원목

J와 헤어졌다.
결국 J는 떠났다.
카페에서는 여전히 좋아하는 가수 D의 노래가 나왔다. 카페 창문에 매달린 빗방울들이 애처롭게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였다가 떨어지면서 둘로, 셋으로 합쳐졌다. 카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감시간을 알렸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를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잰걸음으로 곁을 스쳐지나갔다. 길 건너 보이는 불 켜진 도서관이 화려했다. 우린 왜 헤어져야 했을까.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 하필이면 그 순간에 너무나 슬펐다. 비 오는 거리 한 가운데서 나는 미아처럼 펑펑 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말 길 잃은 사람처럼 비를 맞으며 허둥대고 있었다. 우산을 사야 한다는 생각도, 비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지나는 사람들이 흘긋흘긋 쳐다보았다. 동물원 속의 여우나 펭귄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나를 신경 쓰며 지나갔다.
걸음을 옮겼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단지 J와 헤어졌을 뿐인데. 세상이 멸망이라도 한 것 같았다. 차라리 멸망하는 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몰랐다. 신발 속으로 빗물이 들이찼다. 천 재질의 신발이 흠뻑 젖었다. 짠 빗물이 얼굴 가득히 흘러내렸다.

J를 만나기로 한 그날, 하필이면 그 순간에 신발 끈이 풀렸고, 가방이 쏟아졌다. 또 하필이면 비가 내렸고, 내겐 우산이 없었다. 신발 끈을 억지로 묶고 바닥에 쏟아진 책이며 필통 등을 주어 담았다. 전쟁 상황처럼 하늘이 번쩍번쩍했고 천둥이 와라락 부르짖었다.
약속시간까지는 20여 분이 남았다. P카페에 들어갔다. J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놓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눈에 띄는 곳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카페 안 스피커로 노래가 나왔다. 좋아하는 가수 D의 노래였다. 커피를 입에 머금었다가 조금씩 삼켜보았다. 차가운 맛과 약간 쓴맛이 겹쳐 목구멍으로 흘러내려갔다. 여전히 J는 오지 않았고, 약속시간은 이제 10분 남았다.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곧 관두었다. J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쭙잖은 행동으로 내가 그를 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카페 문이 열리고 드디어 J가 들어섰다. 분명 사흘 전에는 머리가 까맣지 않았는데, 염색을 한 모양이었다. 길이도 더 짧아진 듯싶었다. 카페 밖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았다. 연신 천둥번개가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다. 어깨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던 J가 날 발견하고 자리로 왔다.
그는 음료를 시키지 않았다. 곧바로 의자에 앉고서는 나를 마주보았다. 웃음기가 없는 표정이었다. J가 어떤 말을 할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10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차라리 신발 끈이 양쪽 다 풀렸으면, 가방이 아주 제대로 쏟아졌으면.
천둥이 또 한 번 큰 비명을 질렀다. 어깨가 깜짝 놀랐다. J는 무덤덤했다.

"이미 예상하고 나왔겠지만…"
J는 말을 꺼내다가 입을 다물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있는 그의 버릇이었다.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컵이 답답한 침묵이 더운 듯 삐질, 삐질 땀을 흘렸다. 컵의 땀을 닦아주기라도 하듯 내 손과 시선은 아래로 떨어졌다. 솔직히 J가 할 말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
시간을 부정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아마 한 달 쯤 뒤로 돌린다면 오늘 J에게서 그만하자는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한 달은 짧으니 삼 개월 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안될까?"
"충분히 생각해봤다고 생각해. 나는."
"구질구질한 거 아는데 그래도…"
J가 어금니를 무는 걸 봤다. 그는 잔인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방어할 수 없었다.
"이러면 너만 더 비참해지는 거 알잖아."
"나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단 말이야."
애써 입술을 깨물며 넘어오는 울음을 참았다. 여기서 눈물은 비참의 끝이기 때문이었다.
"그만하자고!"
결국 J는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몰렸다가 분산되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가 식었다.
"이제 연락하지 마. 정말, 그만하자. 윤아."
정말 비참하게도 J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서, J와 서로 좋아했던 모습들이 중첩되었다. 왜 우린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일까.
J는 의자를 뺐다. 그리고 일어나려 했다. 목소리보다 손이 먼저 J의 팔을 잡았다. 아니,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꺼져.”

J가 말을 꺼내기 전으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갔다. 10분 전으로, 아니 1시간 전으로, 하루 전으로, 그에게 연락이 오기 일주일 전으로. 그보다 오랜 한 달 전으로.
요즘 J가 이상해졌다. 말수가 적어졌다.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바보 같은 웃음도 지어보이지 않았다. 멍한 표정으로 혹은 입을 꾹 다문 냉랭함으로 핸드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 그가 무서웠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무것도.”
어떤 질문을 해도 J의 대답은 간결하다 못해 무성의했다. 어쩌면 거기서부터 직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단지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일 뿐.
“토요일에 바빠?”
“아마?”
“약속 있어?”
“조모임.”
“요즘 바쁘네. 힘들겠다.”
“딱히.”

카페에서도,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갈 때도, 심야영화를 예약했어도 J는 흥미가 없어 보였다. '해야 하는'일을 하는 것처럼 지겨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상대방의 마음이 떠나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우리의 만남에 더 이상 설렘은 없었다. 어쩌면 당위성만 존재할 뿐이었다.

아직 가을이 오기 전 여름의 끝에 J와 파주에 갔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 있는 임진각은 눈부셨다. 바람에 춤을 추는 바람개비도, 초록의 잔디들도 더할 나위 없이 여름을 즐기고 있었다. J와 함께였기에 기분이 들떴더랬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여기서 사진찍자!"

"찍어줄게. 거기 서 있어봐."

"나 삼각대도 갖고 왔어! 그걸로 찍으면 돼."

"알았어."

애써 내 옆으로 와 서는 J의 표정은 어두웠다. 사진 속 그는 웃음기가 없었다. 마치 어렸을 때 싫어하는 여자애 옆에 서 있던 꼬마처럼. J는 그때부터 아니 그보다 오래 전부터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에는 분명 헤어지자고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화를 내고 말았다. 그건 끝을 향해 가는 이 만남이 두려워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러나 J를 향해 소리친 그 말들이 우주를 떠돌다 내게 다시 돌아오고야 말았다.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마음에 안 들게 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자."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잖아! 저번에 카페에서도, 이번에도 왜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져? 오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자 한 거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 순간에 내뱉은 J의 한숨을 단순히 넘기지 못했다. 정말 습관적으로 나왔던 한숨뿐이었는데.

"한숨은 왜 쉬어?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억지로 온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려던 J가 어금니를 물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날 J와의 여행은 끝났다. 우린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하루 더 빨리 임진각에서 돌아와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린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무거워 결국 울음을 쏟고 말았다. 그러나 J는 위로해주지 않았다. 어깨를 토닥여주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없이 가을이 왔다. 추석연휴가 시작되었다. 연휴의 어느 날 잠에서 깬 나는 새벽에 온 J의 메시지를 읽었다.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해.]

더 오랜 시간 전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P카페로 오기 세 달 전으로. 딱 그만큼만.

"윤아!"

강의실로 이동하는 복도에 J가 서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하윤, 그렇게 좋아?"

"응! 너희 먼저 가."

친구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J에게 갔다. J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쌍꺼풀이 짙은 눈으로 날 정면으로 바라보며 바보같이 함박웃음을 짓는 그 표정을. 사랑스러웠다.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졌다. 심장이 아찔하게 쿵쾅대고 있었다. J 앞에 섰다.
"왔어? 오늘 예쁘네!"
J의 큰 손이 머리에 닿았다. 기분 좋은 헝클어뜨림이 이어졌다. 놀이공원의 바이킹을 탈 때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아, 헝클어뜨리지 마."
"점심은 먹었어?"
"먹었지!"
J는 또 바보 같은 웃음을 흘렸다.
"어? 가자. 늦겠다."
강의실 앞까지 날 데려다 준 J는 다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갔다. 머리카락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수업시간 내내 J의 여운이 머물러 있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희미해진지 오래였다. J의 얼굴이 세상에 가득했다. 칠판에도, 교재에도, 심지어 창가 너머 보이는 구름에도 그의 웃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는 새 웃음이 흘러나온 모양이었다.
"거기 학생! 집중해요!"
"네? 아, 죄송합니다!"
허둥지둥 J의 얼굴을 지워보았다. 나는 수업에 집중하는 척, 또다시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J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이름마저 달콤한 기운이 서려있는 듯했다.
[W공원 갈래??]
J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다.
[응! 어디야?]
[너 뒤ㅋㅋ]
W공원에는 완연한 봄이 와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진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확히 말하면 연인들이. J가 손을 잡았다. 우린 찬란한 벚꽃 아래를 걸었다. 세상에는 행복한 일들이 많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J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내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은은한 노을빛과 하늘거리는 바람과 간간히 떨어지는 벚꽃 잎. J와 마주잡은 손. 따뜻한 느낌 혹은 기분 좋은 설렘. 향긋한 봄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것이 꿈이라면 나는 영원히 깨지 않고 싶었다.
"윤아, 널 만난 게 꿈만 같아. 진짜 좋다!"
J가 넓은 어깨로 날 감싸 안았다. 두근거리는 심장 때문에 숨이 막혀왔다.

J와의 첫 만남을 생각했다.
우린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분명 맞은편에 선 사람이 J임을 알고 있었다. J는 지난 학기에 같은 교양을 들은 사람이었다. 같은 과는 아니었다. 심지어 같은 동아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을 들었다는 공통점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길을 걷거나, 학교에서 우린 자주 마주쳤고 눈짓으로만 인사를 할 뿐이었다.
드디어 신호가 바뀌었다. 차들이 멈추었고, J와 동시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바람도 햇살도 주위의 모든 공기도 멈춰버린 것 같았다. 밀폐된 세상 속에서 J와 눈이 마주쳤다. 인사를 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안녕하세요."

밀폐되었던 공기가 동시에 숨을 내쉬며 내게 밀려들어왔다. J가 먼저 인사했다.
"어? 안녕하세요!"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빗줄기는 이제 가늘어졌다. 차들이 바삐 미끄러져 지나갔다. 사람들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상가의 빛들이 허공에 흩어졌다. 싸늘해져가는 공기를 느꼈다.
J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 혼자 서 있었다. 그날의 따뜻한 햇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슬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아마 울음도 나오지 않을 거였다. J가 떠났다는 허망함이나 공허함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리가 아팠다. 으레 지나치게 많은 울음을 울고 나면 겪는 그런 현상이었다. J에 대한 분노 혹은 나에 대한 자책도 들지 않았다.
문득 어느 외국 소설가의 말이 떠올랐다. '비록 내 사랑에 희생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을 뿐'이라는. 분명 J로 인해 나는 행복했다. 사랑의 결말이 무조건 해피엔딩일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J는 무수한 슬픔으로서 내 인생의 한 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우산 쓰세요.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다. 빗방울이 맺힌 투명색 우산이 보였다. 그 뒤로 한 사람이 보였다. J처럼 키가 큰 사람이었다.

스님과 고양이

인문학부 20171008
김민식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다. 하늘과 땅의 구분은 사라지고 땅에는 새하얀 구름이 떠다닌다. 하늘에서는 눈이 올라가고, 땅에서는 눈이 떨어진다. 하늘에 살던 생물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자그마한 햇빛이 비칠 때까지 작은 몸을 웅크린다. 하루가 멀다하고 푸르름을 뽐내던 소나무마저도 이때만큼은 눈 장식을 하고 주변의 풍경에 동화된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소복히 쌓인 눈들은 세상을 뒤집는다.

하늘에 고양이가 보인다. 갈색과 흰 색의 줄무늬에 뾰족한 귀를 가진 고양이가, 새하얀 털이 달린 꼬리가 보인다. 작은 숨을 몰아쉬는 고양이의 숨소리가 들리고 뒤집혀졌던 세상이 눈보라를 휘몰아치며 되돌아온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세상을 끝낼 듯, 온기를 빼앗아가는 눈이 내린다. 낮과 밤의 구분은 사라지고 하늘에 있던 생물들은 온기를 찾아 도망간다. 땅에 있던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땅을 파고 굴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견딘다. 푸르르던 나무들은 흰 색 이외에는 보이지 않고, 구름 속에 갇혀 있던 태양빛이 하얀 색이 되어버린 세상을 간간히 비출 뿐이다.

쓰윽. 쓰윽. 나무가 얼어버린 땅과 인사하며 수북히 덮인 눈을 치워내는 소리가 난다. 나무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겨울이 오지 않은 듯, 갈색의 땅이 흰 색의 세상과 대비를 이룬다.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는 그 곳은 온 세상과 동떨어진 동화 속 작은 세상과 같았다.

작은 세상에서 한 사람이 걸어나온다. 그의 머리는 세상을 비출 듯 반질하였으며 그의 옷은 땅의 색과도 닮고 하얀 눈의 색과도 비슷한 진한 회색이었다. 그의 등에는 갈색의 망태기가 들려 있었으며 손으로는 새까만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인사를 끝낸 뒤 눈덮인 산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한 발 나서기가 무섭게, 세찬 눈보라는 그를 작은 세상에서 영원히 떼어놓으려는 듯 강하게 그를 눈 속으로 이끈다.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남자는 끄떡도 하지 않은 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자신의 길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

얼마나 걸었을까. 남자는 차가워진 손으로 망태기에서 호미를 꺼내 눈을 헤치고 숨어있는 나물들을 찾아 캐기 시작한다. 퍽. 퍽. 이미 얼어버린 땅은 쉽게 나물들을 내주려 하지 않지만, 남자가 호미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땅과 나물이 한 웅큼씩 파여져 나온다.

온통 하얀 세상에, 회색의 이물질. 그 이물질은 마치 흰색의 세상에 반항하듯이, 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갈색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망태기가 반쯤 차고, 남자의 손발은 얼어붙었다. 눈보라는 낯선 사내의 출입을 허용치 않았고, 그는 하얀 산의 일부가 되어 갔다.

사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산을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디선가 연약하면서도 가여운 마치 곡소리와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내가 주위를 둘러보자, 얕은 눈구덩이 속 갈색의 가죽만 내놓고 있는, 곧 얼어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다.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고양이의 몸. 남자는 그것을 아직 따듯한 품 안에 집어넣고 주변의 동굴로 들어갔다. 어째서 이런 곳에 고양이가 있는 것일까. 그런 것조차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겨울산의 추위는 두 생명의 온기를 빠르게 식혀 갔고, 눈보라는 동굴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까웠는지 매서운 소리를 내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남자가 염주를 들고 말했다. 빙하처럼 얼어붙은 바닥에 앉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고양이와 체온을 나누는 것과 떨리는 두 손을 비벼 조금이라도 따듯함을 얻는 것. 그뿐이었다.

영원과도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동굴 앞에 엄청난 기세로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띄엄띄엄 내리는 눈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

고양이가 녹아내린 몸을 뒤척이며 다시 한번 울었을 때, 세상을 뒤덮던 눈은 그치고 태양은 구름을 제치고 나와 다시 세상을 녹이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산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마술처럼 태양은 산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소나무는 곁잠을 끝내고 다시 초록색의 잎을 뽐낸다. 눈꽃이 사라져버린 나무들은 잠시 아쉬운 듯 바닥을 보지만, 형형색색의 바스락 소리를 내는 나뭇잎들이 그들을 반겨 준다. 땅속의 생물들은 아직 깨지 않았지만 꿈틀거리며 긴 잠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

남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엉덩이를 털고 햇살이 비추는 동굴 밖으로 나선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햇빛을 받으며 튀어오른다. 세상을 뒤엎었던 눈들은 눈이 내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다. 그늘 아래 아직 도망가지 못한 눈들만이 그들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마저도 햇빛이 고개를 돌리자 사라져 갔다.

남자가 다시 작은 세상으로 되돌아왔다. 눈 내리던 때의 작은 세상. 그것은 남자가 눈덮인 땅을 호미로 캐낸 것과 같이, 특별한 흔적이었다. 눈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변하자 작은 세상은 동화 속 요정 세계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흔한, 작은 하나의 절이 되었다.

"돌아오셨습니까, 스님."

남자가 인사를 받으며 절 안으로 들어오자, 남자는 스님이 되었다. 회색의 승복과 검은색의 염주는 한 눈에 보더라도 남자가 스님임을 알도록 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린 절 안에서 스님은 고양이를 꺼냈다.

고양이의 발은 차가웠다. 햇빛이 비추는 산 속에서, 온돌을 데우는 절 안에서, 따듯한 스님의 품 안에서도, 오직 고양이의 발만이 아직 차가웠다.

스님은 고양이의 두 발을 맞잡았다. 눈덮인 산의 냉기가 손으로 흘러들어간다. 하지만 냉기는 이내 스님의 온돌만큼이나 따듯한 온기에 사그라든다.

온 몸이 따듯해져 일어난 고양이는 스님을 몇 번 쳐다본 후 다시 산을 오른다.

스님은 고양이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슬쩍 웃는다.

무제

인문학부 20171116
홍찬영

한겨울 찬바람이 유난히 차갑다. 외투를 아무리 둘러 싸매도 조금씩 벌어져 있는 틈사이로 들어오는 악질의 바람들만이 미워질뿐이다. 내 뺨을 계속 때리는 것이 예전에 여자한테 거하게 차여진 기억처럼 느껴진다. 왠지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애가 있을까봐 사람들과 조금 엇박자로 걸어가던 걸음걸이를 똑같이 맞춘다. 약간의 안도감과 동시에 걸어가야 하는 방향의 횡단보도가 방금 빨간불로 바뀌어 허무감까지 느껴졌다. 겨울 바람과 맞서며 잠시 위를 쳐다보자 빌딩에 수도 없이 놓여진 불빛들이 눈에 들어온다. 서울의 야경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불빛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생각나 불쌍한 느낌이 들었다.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지만 취업에 대한 걱정보다 야근으로 고생하는 회사원들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일자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철없는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버스정류장을 향해 걸어가지만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난 소개팅으로 인해 허전한 느낌이 든다. 대충 같이 밥 먹고 헤어지기로 했었지만 진짜 밥만 먹고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후식도 못 먹고 헤어지니 입만 텁텁해져 평소 자주 가는 스타벅스로 가서 커피나 마시기로 했다.

한참을 걸어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가게가 눈에 띄었다. 높게 솟아있는 빌딩들 사이에서 이렇게 간판도 없는 낡아 빠진 건물이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외관은 손상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듯 보이지만 나무가 매끈하지도 않고 깊이 파여져 있는 곳에는 썩은 듯 색이 이상했다. 유리벽으로 되어있어 안을 살펴보려 하지만 전혀 닦지 않은 듯 먼지와 진흙투성이로 되어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 내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앞을 보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스타벅스로 갈 수 있었다. 건물도 훨씬 크고 바닥과 창문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내가 눈여겨보는 여자 알바생이 있다. 다시 그 가게를 쳐다보자 어째서인지 문이 열려져 있다. 분명 방금 전에는 닫혀져 있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안은 불을 안 킨 듯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박쥐들이 더 기생하기 좋은 분위기였지만 어떤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향수같이 어떠한 향기에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온몸을 자극하자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서 떠나갈 생각조차 들지 못했다. 그러자 정신마저 없어지고 본능적으로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가버렸다.

바닥에서 들려오는 약간의 삐걱소리와 함께 몸이 다 들어오자 끼잉하며 저절로 닫히는 문소리가 들리자 이제 본능 대신 이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속에서 빨리 나가야 함을 느꼈지만 갑자기 어둠이 사라지고 뭔가 눈에 살짝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 밖에서는 어떠한 빛도 보지 못했지만 천장에 달려있는 은은한 분위기의 불빛이 온 사방을 밝혀주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부는 마치 서부 중세 시대의 술집같았다. 동그란 테이블과 의자의 세팅도 그렇고 카운터를 중심으로 일자로 나있는 또 다른 테이블과 술집에서 흔히 보던 주황색의 전등은 카페가 아니라 호프집같았다. 그러나 분명 몇몇 자리에서 커피잔을 들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다.

“어서오세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일자로 되어있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들린다. 그곳에는 머리카락이 얼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사람이 컵을 닦고 있었다.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라는 것과 키가 매우 크다는 것 뿐이었다.

“계속 거기에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앉아 주문을 하실건가요.” 마치 뭔가에 압도당한 듯 나가려던 마음을 져버리고 그 남자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도 없어 어떤 것을 시켜야 할지 난감하던 찰나에 갑자기 그 남자가 내 앞에 커피를 갖다 놓았다. 내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만이 증폭되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자 그 남자가 말을 꺼냈다.

“그 커피에 아무짓도 안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손님.” 말투가 약간 나를 비웃는 모양이었다. 실제로 입가에도 약간의 미소가 번진 것 같자 약간 자존심이 상해 커피를 한 입 마셨다. 원두의 쌉쌀함이 내 혀와 코를 자극하자 갑자기 오래전 나를 차던 그 여자가 마구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때의 배신감, 그때의 아픔, 그때의 슬픔... 여러가지가 생각나며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가게를 때려 부수고 싶기까지 했다.

“...굉장히 맛있네요.” 어떻게든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 그 남자한테 아무 말이나 건네보자 갑자기 고개를 들며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손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군요. 혹시 오래전에 여자한테 차인 기억이라도 있나요? 분노는 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참으셔야 합니다. 가게가 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조금 말 좀 해주시겠습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감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이 일을 많이 겪어본 것처럼 보여졌다.

“몇년전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진짜 저의 친동생같았죠. 진짜 그때는 서로 애정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들이 썸탄다고 약간 밀어주는 모습도 보였었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뒷모습을 보고 놀래켜줄 생각으로 뒤에서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었죠.” 말을 시작하자 약간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 같았다.

“통화중이었나봐요. 약간 거친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 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짜중나는 친구 욕인가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저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저를 지금까지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있던 겁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여자고 나발이고 바로 개 핸드폰을 채가서 꺼벼렸쬬. 그리곤... 서로 싸웠습니다. 그것도 되게 오래. 누가 지나가든 말든 말다툼을 했고 결국 개가 저를 한대 치는 것으로 끝나버렸죠. 그렇게 저의 썸도 끝나버리고 이후로 저는 여자는 잊어버리고 살았죠.” 속이 후련해졌다. 계속 올라오던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 평온함이 남아있었다. 중간 중간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 남자가 커피를 새로 리필해 주기까지 했다.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군요. 굉장해요. 지금까지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한테 고백했지만 그대로 끝내버리는 착한 이별 이야기가 많았는데 손님은 되게 다르시군요. 왠지 입이 근질 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 남자는 계속 닦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이내 원두를 갈기 시작했고 나는 뭔가에 홀린 듯 결국 승낙을 해버렸다. 왼쪽 머리카락을 약간 뒤로 넘기는데 얼굴에 주름이 매우 많았다. 아무리 늙더라도 사람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나 할 정도였다.

“우선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매우 오래전으로 되돌아가야합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에 있던 시절이겠군요.”

그때 저는 10살정도였습니다. 키와 몸집이 또래에 비해 작았지만 매우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반의 왠만한 남자애들과 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체육시간에 오래달리기를 하던 날 저 혼자 똑같은 스피드로 오래달리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저는 아버지한테서 들은 말을 매일 깊이 새겨 들며 다녔습니다. ‘사내는 절대 기집애 같이 놀면 안돼.’ 이 말은

그때 당시 저희 집 교훈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소꿉놀이나 인형을 같고 노는 것이 아니라 축구같이 무조건 남자 아이같은 이미지가 강한 놀이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자애들과 노는 남자애들은 고추가 없다고 놀리고 절대 그 애들과 놀지 않았죠. 그때 당시 저는 그 학교의 짱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와 친한 애들은 왠만하면 여자애들과 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남자 애들하고만 놀면서 자연스레 여자애들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13살이 되면서 중학교를 골라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애들하고 같이 남중에 들어가자고 말을 했죠. 하지만 슬슬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남자들과 지내는 인생이 싫던 몇몇은 공학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과 합의했죠. 그렇게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않던 남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빠의 말씀처럼 계속 남자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결국 남자의 본능을 어찌하진 못했네요. 서서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의 다짐도 서서히 무뎌진거죠. 멜로 영화를 볼때, 처음 야동을 알게 됐을 때, 처음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여자의 향기를 맡았을 때 등등 정말 남자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러가지 느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고 저는 희망하는 학교에 남녀공학이라면 무조건 상위권에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의 넘치는 에너지를 피씨방이나 담배 같은 것들로 해소해서 공부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에도 저는 남녀공학은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꼴통 남고로 진학하게 되었죠.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노력도 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한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고 스타일도 조금씩 바꿔보는 등 몇가지 노력도 해봤지만 먼가 여자 앞에 서면 약간의 거부반응이 올라오는지 어버버하는 경향이 생겨 결국 12년 학교 생활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 왠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 흔하다는 인연도 없는 건지 억울했거든요. 이미 제 친구들은 할거 다 해보고 지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라 커플들이었던 것이죠. 저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후회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혐오감은 계속 저를 옭아매어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달빛이 제 방으로 빛추더군요. 저희집 구조상 달빛은 제 방으로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약간 놀라서 그 빛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소유할 수만 있었으면 저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물건을 가지게 된 셈일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듯 어렸을 때 사람들한테 많이 듣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알려져 있는 혜성이 생각났습니다.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달빛을 향해 성급히 저의 소원을 빌었죠. 바로 제 주변의 커플들을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커플이 됐으니 죽어야 한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말했던 것을 소원으로 빌어버린 것이죠. 말을 끝내자 갑자기 그 달빛은 사라지고 방금과 같은 고요함이 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후회해야 할 아니,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야기를 해준다고 막 말을 내뱉기는 하는데 온통 여혐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말만 주절주절 내뱉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여자와 잘 어울리지 못한 것을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한대 피우기 시작했다. 한번 내뱉은 한숨에서 나오는 수많은 담배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도대체 무슨 종류인지 흡연자인 내가 맡아도 약간의 기침이 나올 정도였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담배 한개비를 건네며 한대 피라는

제스쳐를 취했다. 한사코 거부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 그가 건내는 라이터대신 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러나 그가 내뿜는 연기를 덮기에는 한없이 모자라 바로 내 담배를 옆에 있는 재떨이에 털어버렸다.

“정말 재밌죠? 무슨 어린애가 그 정도로 남자다움만을 취급했고 무슨 SF영화 같이 달빛이 나오는지, 훗.” 그러곤 담배를 쥐고 있는 손 반대쪽 손에 커피가 가득 들어있는 쟁반을 받치더니 이내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건네주기 시작했다. 도도하게 걸어가는 폼이 무슨 모델처럼 보였다. 잠시 후 커피가 가득했던 쟁반에 빈잔이 채워져 돌아오고 그것들을 싱크대에 집어넣었다. 다시 나한테 돌아오더니 계속 피고 있는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대놓고 내뿜기 시작했다.

“아,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죠. 어디부터였죠? 아 맞다. 제가 어렸을 때 빌었던 그 소원까지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자 가장 불행했던 순간으로 말이죠.” 침을 조금 삼키며 이야기를 듣다 마시지 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약간 식었다.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름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론 하는 행동은 양아치스러웠지만 그 중에서도 공부를 나름 하는 양아치였죠. 그래서 제 대다수의 친구들이 지방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들어갈 때 저는 그래도 서울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들어갔죠. 집안에서는 풍악이라도 울리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한테서 공부하는 시간을 버틸 수 있던 이유가 대학에 들어가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같이 다니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례를 봤었죠. 분명 남자들한테는 재밌는데 여자들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저도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처음 대학에서 마음껏 활보할 때 몇몇 선배들이 저한테 과팅을 해 준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또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했고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한테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조별과제를 하다가 만난 여자애였죠. 물론 그때도 저는 남자조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저의 말을 여자조원들은 가만히 듣는 모양새가 나왔지만 그 애는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정했던 모든 컨셉이나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것들등을 말이죠. 처음에 저는 우물쭈물했지만 이내 그 여자애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컨셉도 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쓰고 하다 문득 제가 이 애와 같이 있으면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순간 그 애하고 말이 트인 것이죠. 어느순간 자연스럽게 서로 알게 되어 서로 밥도 먹고 장난도 치다보니 어느 순간 우리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제 이상형이라고 하기에는 눈도 작았고 키도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유일했던 여자사람 친구가 생긴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자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유독 이 아이와 같이 있으면 그런것이 덜해지고 말도 좀 나오더군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마음에 들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불알친구 중 한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란 저는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갔고 장례식장에는 친구의 영정사진과 바닥에서 우는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그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비도 심하게 내리고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사람의 죽

음에 대해 실감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의 3일장을 다 치뤄주고 슬픔을 잊기 위해 한번 거하게 술을 마셔봤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이 그 여자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그 친구의 어깨에 기대 집으로 향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럴때마다 저는 먼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애한테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났던가, 생각보다 강하게 느껴지던 몸이 이렇게 연약했었나 하는 생각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것이죠.

어느새 다 피었는지 재떨이에는 내가 피운것 외의 또 다른 담배재가 놓여져 있었다. 담배연기때문인지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그렇게 어두워 보이던 내부도 어느새 불빛을 키웠는지 약간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음, 시간이 꽤 지났군요. 보통 지금쯤이면 커피는 새로 안 드리는데 손님은 먼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어느새 두 번째 잔의 커피가 비워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놓여진 또 다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보통 같으면 이 정도로 많은 커피를 마셔본 적도 없어서 그런지 약간 몸에 힘도 풀린 듯 고개를 똑바로 드는 것도 힘겨워졌다. 그러나 몸의 힘과 비례해서 약간의 희열이 느껴지자 그 남자한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피우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여서 내 손에 끼워졌다. 한번에 담배를 다 빨아들이자 마치 마약이라도 한 사람처럼 어느새 입은 웃고 있고 온통 행복한 환상만이 생각났다.
“이제 기분이 풀어지시나요?” 그저 헤헤거리는 웃음으로 응수 하자 어느새 그 남자는 반대쪽 머리카락도 살짝 넘겼다. 눈코입을 제외하면 온통 주름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남자는 나와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군요. 저의 기억을 모두 손님한테 갖다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그 친구를 잃은 슬픔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도화선을 붙인 것은 바로 그 여자애였죠. 어느새 제가 그 애한테 가지고 있던 것은 우정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유일하게 신경 써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술도 줄이고 다시 예전처럼 운동도 하고 학교생활도 성실히 하게 됐을 때 저는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항상 상상으로만 시뮬레이션을 하던 것도 수백 번이 넘었고 같이 있을 때 하기로 다짐했던 것도 많았지만 막상 마주 보면 용기가 안 났죠. 그러다 서서히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실종되거나 죽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무슨 역병이라도 퍼졌는지 차례대로 죽거나 하더군요. 그 친구를 잃은 슬픔이 겨우 가시니 이제 다른 슬픔이 밀려오고 계속 그런 상황이 오니 어느새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들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전화도 걸고 그 지인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죠. 하지만 제가 알아낸 점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피해망상증이라도 걸렸는지 하루 종일 집안에만 쳐박혀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여자애도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죠. 그러다 저는 무심코 무슨 소원이라도 빌었나 하던 찰나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달빛에게 내뱉었던 그 소원을 말이죠. 순간 저는 이들의 연인 관계에 대해 조사를 했고 결국 연인이 된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얼어붙어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 달빛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혜성처럼 제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분명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이 정도로 큰 재앙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그 여자애가 생각나 핸드폰을 들어 카톡을 보내려고 했죠.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여자애 핸드폰 프사에 어떤 남자와 단둘이 사이좋게 얼굴을 맞대고 찍혀져 있는 사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급하게 그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었고 다급하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밀어붙였는지 당황한 소리의 맞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막 조사를 시작했을 때쯤에 사귀었을 겁니다. 순간 저는 다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그 여자애가 있다는 곳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저한테 그런건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저 빨리 그 죽음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뛰던 것처럼 어느새 학교근처에 왔고 저는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어떤 남자와 말을 거는 그 여자애를 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크게 부르자 오랜만에 본 제가 반가웠는지 파란불로 바뀌자 저를 향해 뛰어오더군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뛰쳐나가던 차가 결국 그녀를 박아버린 것이죠.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그 애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급하게 구급차가 와서 그 애를 실어가는 동안에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번째이자 유일한 사랑이 가버린 것이죠.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이 그 남자의 얼굴에서 흘러나왔지만 그 남자는 웃고 있었다. 마치 슬픔이라는 감정을 잃어버린 듯이 손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새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주름이 더 강조되었다.

그 후 저는 평생 집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저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죠. 그 저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녀의 죽음보다 제가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죄의식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제 몸에 변화가 생기더군요.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키는 에전보다 더 자랐습니다. 무슨 성장기였는지 키는 계속해서 자랐고 어느새 이만큼 커지고 주름은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할 만큼 생겨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이것이 내가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눈에는 눈물이 나오고 배가 아파 뒤질지경이었으니까요. 순간 저는 세상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나서고 한참을 걸어가다 어떤 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가 전혀 관리가 안된듯이 더러웠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바로 이 가게를 사고 이곳에서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가게에 누가 들어오나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로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 손님같이 여자한테 거하게 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제가 짊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기가 끝났는지 인식도 못한채 그저 무엇인가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고개는 거의 바닥에 닿기 일보직전이었다. 겨우 남아있는 커피를 다 마시고 빈잔을 올려놓았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끝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는 손님은 오늘 처음입니다. 매우 기분이 좋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갑자기 그 남자가 손가락으로 딱하는 소리를 내자 정신이 살짝 돌아오는 듯 고개는 돌릴 수 있게되었다.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가게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약에 취한 듯 눈에 초점이 없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입이 삐뚤어졌는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시죠? 저 모습을 보세요. 다들 얼마나 제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다들 하루종일 여기서 제가 커피를 날라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도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그저 실루엣만을 느낄 수 았던 사람들의 실체는 미라를 본 것 같았다. 그러나 이들한테 공통적인 것이라고는 잔에 있는 커피만 어떻게든 입으로 들이밀고 있는 것과 입가의 미소뿐이었다.

“제가 억지로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여기에 남은 거죠. 저는 그저 저들이 제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 같은 일을 당할까봐 제가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여기서 나갈려거든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뒷일은 보장못합니다.”갑자기 뒤쪽에 있는 문이 열리며 바깥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뜻했던 내부가 약간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정신만 돌아와서 그런지 몸이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자 그 남자가 내 자리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순간 처음 맡았던 그 향긋한 냄새가 나고 이제 이성마저 하애지기 시작했다. 커피... 커피.... 커피... 이곳을 나간다면 다시는 맛보지 못할 커피를 보자 더 이상 몸의 어떤 부분도 문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자리에 쓰러지듯이 앉아 그저 커피만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반복했지만 아직 부족했다. 그저 온몸의 모든 것을 이 커피로 채우는 것만을 원했다.

“역시 손님도 제 커피를 마음에 들어하시는군요. 어서 드세요. 당신을 위한 커피는 여기 잔뜩 있으니까요.”그러자 문이 닫혔다.

남겨진 사람들

국어국문학과 20151124
이윤지

아프다.

와르르, 요란한 소리가 귀를 울렸다. 제가 들고 있던 상자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다. 바닥에 부딪친 팔이며 옆구리가 화끈거리며 아파왔다. 넘어진 탓에 안경이 벗겨져 시야도 어지러웠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진영은 멍해진 머리를 붙잡고 주변을 살폈다. 제 집 문을 열었을 뿐인데, 자신은 지금 현관 바닥에 넘어져있다. 문 앞에 서있던 누군가에게 밀쳐진 것이다. 흐릿한 시야에 여전히 문가에 버티고 선 사람들이 보인다. 두 명인건가? 바닥을 더듬어 안경을 찾아 쓰고는 주변을 살폈다. 들고 있던 상자는 내용물을 여기저기에 흩뿌린 채 조금 멀리까지 미끄러져있었다. 대체 누가 남의 집 앞에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을 밀쳐 넘어뜨렸는지, 진영은 다분히 불만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곳에는 중년의 부부가 있었다. 어디선가 봤던 얼굴. 그들이 누구인지 떠올리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얼마 전 죽은 제 연인의, 부모님이었다.

***

두 분은 밀쳐져 쓰러진 자신을 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로 자신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진영으로서는 짐작 가는 바가 없었다. 아니, 짚이는 곳은 있었지만, 제 연인이었던 혜영이 죽고 없는 지금 '그걸'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신단 말인가.

순간 자신의 눈에 비쳐진 것은 익숙한 화면이었다. 혜영의 아버지가 손에 든 핸드폰을 내 눈 바로 앞까지 들이민 것이다.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은 그 아이의 페이스북이었고, 그곳엔 '이진영님과 연애 중' 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도 적혀있었다. 아, 빌어먹을 자동 로그인. 저 기능을 써보고 싶다기에, 남들 모르는 계정이라도 만들어 올려두라 했던 언젠가의 자신이 원망스러워졌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혜영에게 비밀을 단속할 잠시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걸 보신 거라면 자신의 주소를 어떻게 아셨는지도 설명이 됐다. 진영은 가만히 제 얼굴을 쓸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그 말에 두 사람의 낯빛이 바뀌었다. 벌겋게 달아올라 숨김없이 분노를 표출하던 얼굴이 무너져 내리면서 진짜 네가 내 딸의 연인이었느냐고 말없이 묻고 있었다. 화가 슬픔으로 변하는 그 표정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제 연인과 닮아있어서 제 가슴 한 쪽도 뻐근해졌다.

현관에 흩어져 있는 상자의 내용물을 정리하고 나니 무의식중에 발길이 부엌으로 향했다. 손님을 들이면 마실 것을 가져오던 습관 탓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두 사람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있을 것이 느껴졌으나 이제와 돌아서는 게 더욱 어색할 것 같아 말없이 잔을 꺼냈다. 찬장에는 홍차 티백이 놓여있었으나, 그 쪽으로 손을 뻗지는 않았다. 혜영이 하루에도 두 번씩 우려내서 마시던 차의 종류를 그 애의 부모님이 모를 리 없었다. 장례식 이후 한 달

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굳이 그들의 상처를 들쑤시고 싶지는 않았다. 물을 담은 잔을 들고 자리로 향하자, 두 분은 달갑지 않은 시선을 던졌다. 아까 넘어진 모습을 보고도 숨을 몰아쉬던 기세라면 마주 앉은 자신에게 뿌릴 수 있을지도,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으나 이내 두 분은 속의 열을 식히려는 듯 물을 들이켰고, 잔은 다행스럽게도 평범한 방식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장례식에서 잠시 마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혜영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 만난 적 없는 중년 부부가 제 집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었다. 아까의 홍차 티백을 비롯해서 혜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이라서 기분은 더 이상했다. 둘이 자주 누워서 시간을 보냈던 소파며, 혜영이 자신이 사온 책을 즐거운 듯 꽂아두던 책장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차라리 바닥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저 책들도 상자에 넣어야 했던 건데, 하는 생각만이 머리를 채웠다. 그 상태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자니, 이들을 집으로 들인 것이 조금 후회스러웠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조용한 집안에는 불쾌감을 담은 한숨소리가 퍼졌다. 들으라고 내신 것이 명백한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드니 혜영의 아버지가 표정을 구기고 있었다. 웃는다면 혜영과 비슷한 인상일 법한 서글서글한 얼굴에 무척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다.

"나 참, 혜영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

유품이라는 건 혜영이의 핸드폰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딸이 자신과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의 일이었구나. 입 안이 썼다. 자신의 표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혜영의 어머니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이의 사생활까지 보려던 건 아니었네.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망신고를 하면 아이가 핸드폰으로 적었던 글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기에 고민하다가 켜보니 그 내용이 있었던 거지."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몰라서 묻는 건가?"

담담한 듯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갑작스레 날카로워진 것에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얼마 전, 혜영의 빈소에서 마주했을 때의 따뜻한 시선이 떠올라 한층 더 착잡해졌다.

"딸아이가 친구라던 여자애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데, 달가워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나."

그 애는 분명, 남자친구도 사귀었었는데……. 라며 덧붙이는 말에 진영은 조금 허탈해졌다. 혜영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있었다. 차별은 나쁜 일이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시면서, 딸인 자신은 평범하게 남자와 결혼해 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였다. 그것만으로도 혜영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일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기에 아무런 생각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혜영은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 역시 빤히 보이는 결과를 무시한 채 천천히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라며 웃어보였었다. 그 때문일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두 분과 싸울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이제껏 영혼이니 사후의 존재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혜영이 죽어 제 곁에 떠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혜영과 함께 지낸 기억들이 배어있는 이 집에서 그 애의 부모님을 슬프게 했다가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달갑지는 않으셔도,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로 싫으셨던 건가요?"

"자네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찾아온 건 아니야."

"그럼 무슨……?"

비난 받을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찾아오셨단 말인가.

짐작 가는 곳이 없어 눈만 깜빡이고 있으니 두 분의 표정은 더더욱 굳어졌다.

"우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네, 우리 혜영이 빈소에 왔었지?"

"네, 그때 뵈었죠."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일찍 가버린 건가?"

다분히 따져 묻는 태도에도 답할 말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스로도 그 날 자신이 어땠는지 뚜렷하게 떠오르지가 않았다. 혜영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연인 아닌 친구로서 장례식장에 갔던 그 날,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

그 날 진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영화처럼 액자니 머그컵이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일도 없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술렁임 같은 것도 없었다. 평소 톡 확인이 빠른 편인 혜영이 유독 답장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잠시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고는 말았다. 한 번쯤 더 연락했더라면, 병원에라도 달려갈 수 있었을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른 결혼식을 올리던 때 외에는 한 번도 연락하는 일이 없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다. 또 무슨 귀찮은 일을 안겨주려고 그러나, 생각하며 받은 전화는 울음소리로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 '교통사고였대. 우리 나이에 장례식이라니, 나는 상상도 못했지 뭐야. 혜영이 어떡하니 진짜.....'

그 이야기를 듣던 진영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거짓말이라기에는 너무 질이 나빴으니까. 하지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도 않았다. 무언가 거대한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를 알아채고 나면 이 상황도 어이없이 웃을 법한 해프닝이 될 것만 같았다. 진영은 상대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몇 가지를 물었다. 너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자, 너는 못 받았냐며 혜영의 부모님이 혜영의 연락처에서 대학교 동창으로 저장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혜영이 자신과 사귀게 된 이후로 번호를 대학 동창 카테고리에서 의미 불명의 「^^」카테고리로 옮겨 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영은 순간 전화를 끊어버릴 뻔 했다. 이 이야기가 정말인 걸까. 그럼에도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괴물처럼 침착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혹시 빠진 사람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 해보는 게 좋겠네."

"알았어..... 너는 장례식 언제 갈 거야?"

오히려 대학 동기의 목소리가 울음에 푹 젖어있었다.

"일 끝나면, 옷 갈아입고 가야지."

진영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켰다. 연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회사를 뛰쳐나가는 일은 없었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서는, 검은색 넥타이가 없다는 걸 깨닫고 검은색 셔츠로 갈아입기까지 했다. 그렇게 장례식장 앞에 서기 전까지 내내 이럴 때가 아닌데, 라며 스스로를 재촉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혜영의 장례식장에 가는 순간을 조금이나마 미루고자 하는 자신이 있었기에 도착한 시간은 결코 빠르지 않았다. 부조금을 뽑아 봉투에 담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겨 혜영의 빈소를 찾아가자 그녀의 환한 미소가 진영을 반겨주고 있었다. 몇 번이나 봐왔던 표정이었다. 눈이 다 접히도록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모습이 흐릿하게 확대된 채 영정 사진으로 놓여있었다.

"저어..... 학생?"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고, 영정 사진 앞에 꿇어앉지도 않은 채 사진을 멍하니 보고 있던 진영은 혜영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고서야 인사를 하고 분향을 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헌화를 하고, 절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는 아직 삼십대 초반이라는, 장례식에 올 일이 많지 않은 나이 탓에 주춤거리기도 했다. 혜영의 어머니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학생들도 서툴렀다며, 바쁠 텐데 와준 것만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진영은 딱딱하게 굳은 고개를 어렵사리 끄덕였다.

"그나저나, 혜영이 어느 학교 동창이에요?"

"대학 동창입니다, 졸업하고도 연락했고요."

"그렇구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진영이라고 해요."

"아..... 진영, 이진영. 나 기억나요. 우리 애가 가끔 이야기 했었어."

혜영이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인지, 더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혜영의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지는 않았다. 그저 울음을 참는 것이 최선인 듯 보였다. 진영 역시 새롭게 말을 거는 일 없이 자리를 피했다.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나, 그 시간조차 길지는 않았다. 멀찍이 앉아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망설이며 문 밖과 영정사진을 번갈아 보던 진영은 대학에서 보았을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와 혜영의 영정사진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는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빈소에서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던 진영은 차에 타고 나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분명 상복을 갖춰 입고 빈소로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도 사흘을 내리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장소에 발을 들이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그 곳을 떠나고 싶어졌다. 진영은 자신이 혜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절절히 깨달았다.

자신이 아는 혜영은 제 볼이며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치다 그만두라고 말하면 미안하단 말 대신 씩 웃어보이던 사람이었다. 정이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자신과는 다르게 한 번 알게 된 사람들과는 곧잘 연락을 주고받는 성격이라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다. 종종 혜영을 따라 갔던 모임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녀를 아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여서, 내 연인이 이토록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뿌듯한 감정과 함께 슬며시 고개를 드는 질투심을 눌러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혜영이는, 분명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자리는 어땠나. 들어가는 길에 지나쳤던 빈소에서는 나이 들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소리가 썩 무겁지 않게 두런두런 들려왔는데, 혜영의 빈소에서는 소곤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적막한 분위기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기에 가득 차있던 혜영을 기억하는 모두가, 혜영에 대한 기억에 죽음을 덧씌우고 있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혜영의 밝은 모습 뒤에는 이른 죽음이며, 안타까움과 같이 혜영과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있었을 말들이 따라붙었다. 그 자리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혜영이 당한 교통사고의 이야기가 들려오던 순간이었다. 범인이 어떻다느니, 부검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느니.....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게 혜영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려는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어이없게도 제게 연락을 준 대학 동기가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어째서 나는 네 소식을 그 애에게 들어야 했을까? 네가 도로에서 신음하다 병원에서 눈 감기까지

의 시간동안, 아무도 내게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나에게 먼저 연락해줄 필요를 느낀 이는 없었다. 너 외의 사람에게 나는 단지 네 동창 중 하나였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네 죽음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

진영은 떠오른 기억에 제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인사를 드린 것에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잠시 왔다가 갔으면서, 별다른 뜻도 없었다는 말인가?"

"그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힘들었어요."

제 말에 혜영의 부모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으나, 그 다음에 혜영의 아버지가 내쉬는 한숨은 첫 번째에 뱉어낸 한숨에 비해 책망의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사귀는 사이였다면서. 그러지는 말았어야지."

그제야 두 분이 자신과 혜영의 사이를 알고 그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날 자신은 혜영을 잃고 괴로웠지만, 다른 사람이 그 감정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 두 분의 입장에서는 딸이 누군가와 연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누군가'를 찾아보니 느지막이 식장에 찾아와서 얼마 있지도 않다가 가버린 사람이었으니 속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는가. 혜영을 보내는 자리에서 견디지 못한 것만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었으니, 두 분이 자신을 보는 냉담한 시선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네는, 대체 어떻게 혜영이와 사귀게 된 건가?"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물음을 던진 혜영의 어머니도 썩 편안한 표정은 아니었다. 혜영과 만나서, 그 애와 사귀게 된 과정이야 기억 속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장례식의 기억처럼 다시 떠올리기 힘겨운 것도 아니니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두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딸이 여자와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달가워하실 분들이 아닌데. 자신은 그동안 혜영이 부모님에게 연애 사실을 밝히는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애가 죽고 없는 지금,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가 그 기억을 부정당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입을 떼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혜영의 아버지가 말을 덧붙였다.

"그래, 나도 좀 듣고 싶군. 우리 애가 어쩌다 자네와 사귀게 된 건지. 자네가 우리 애를 꼬여낸 것은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여보."

"사실이잖아, 당신도 이런 생각 안 한 거 아니면서 뭘."

혜영의 어머니는 딸의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남편의 말에 조금 민망해하는 표정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내게 시선을 돌렸다. 무언의 질문이었다. '어떠니, 정말 네가 내 딸을 끌어들인 거니?'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혜영이랑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사귀었을 뿐이에요."

평범하게 사귀었다는 말에 당연하게 미심쩍은 기색이 뒤따랐으나 연애의 과정을 달리 설명할 말이 없었다. 상대는 나를 연애 상대로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망설이기도 하고, 그

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어느 날에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된 것을 달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

사귀게 된 날은 겨울이었다. 특별히 낭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첫눈이 온 것도 아니었고,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아니었다. 진영과 혜영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4년이 지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말이면 으레 만나는 사이가 되어있었다. 그 날도 다를 것 없었다. 만나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 앉아 있다가 바깥이 어두워졌기에 밖으로 나왔다. 둘이 만난 뒤에는 집까지 가는 길이 겹쳐서 때문에 혜영이 진영을 데려다주고 가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있었다.

그 당시 혜영과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진영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살면서 혜영 같은 사람이 처음이었던 탓이다. 진영은 어린 시절에 꽤 여러 번 전학을 다녔기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연락을 이어가는 친구가 없었다. 그런 자신이, 다른 학교의 동창과는 달리 정을 붙이기 어렵다는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과 이렇게 자주 만날 정도로 연락을 이어나가게 될 줄은 몰랐다. 대학시절의 인연이라고 해봐야 처음에는 이름이 둘 다 '영'으로 끝난다는 별 것도 아닌 이유로 선배들의 농담에 함께 휩쓸렸던 것 정도였는데. 이렇게 친해지고, 심지어는 혜영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평소처럼 진영의 집 앞에 멈춰 서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잘 들어가라는 말을 반복하며 헤어지는 순간을 미루던 때였다. 자신이 혜영이 제 소매를 잡았다. 그 때 발갛게 물들어있던 얼굴을, 이어지는 말을 듣기 전의 진영은 찬 공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고백을 듣고 제 기분이 어땠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제 모습이 바보같이 보여서 혜영이 고백한 것을 후회하지나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걱정도 했고, 믿어지지 않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시절부터 혜영이 겪었던 몇 차례의 연애 과정을 지켜봐왔던 진영은 혜영이 자신을 연애상대로 생각할 리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혜영이 자신과 만나서 놀자며 연락을 줄 때도, 연애하는 것마냥 전화기를 떼어놓지 못할 때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접기에 바빴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너도 나를 좋아하는 줄 몰랐다고 말하자 혜영은 진심으로 놀란 듯 정말? 이라고 되묻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티를 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자기는 오히려 진영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줄 알고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혜영은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말하길 잘했다.' 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보였고, 진영은 고마움에 고개만 끄덕였었다.

혜영과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부풀었던 그 날은 집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만 나누다가 헤어졌고, 왜 그 날 고백을 한 것인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물어볼 수 있었다. 혜영은 멋쩍게 웃고는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며 답을 피하다가, 세 번 쯤 물은 뒤에야 답을 해주었다.

"고백하려는 생각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 언제가 좋을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왜 그 때였어? 무슨..... 특별한 날이었던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 날 너무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 너하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머뭇거리다가 네가 날 안 좋아하게 되면 어떡해."

"안 좋아하게 됐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얘기하길 잘했어, 나는 네가 고백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숨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혜영은 괘씸하다는 듯 입술을 내밀고는 손을 뻗어 볼을 아프지 않게 꾹꾹 눌렀다. 진영은 괜한 말을 꺼냈구나, 하면서도 제 볼을 누르는 손을 감싸 쥐고 봐달라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너하고 어색해지는 게 제일 무서웠단 말이야."

고백했을 때 미소 짓던 네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도무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상처받지 않게 거절해주더라도, 네가 날 불편하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았단 말이야. 주말에 너랑 못 만나게 되는 건 싫었어. 그렇게 쏟아낸 말들을 들은 후에 혜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결국, 너도 나도 서로하고 같이 있고 싶었던 거네."

***

'평범한 연애'였음을 설명하다가 대강 언제부터 사귀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다 혜영이 먼저 고백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분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다.

"하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래, 그 애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두 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짐작은 갔다. 혜영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 자신도 혜영이 해주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던 사람이니, 그녀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마 부모님에게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연애하면서 겪은 일들은 종종 이야기했던 거겠지. 다만 그건 부모님이 자신의 교제를 이해해줄 거라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말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게 그거 아닌가."

"혜영이가 이야기했으면, 저와의 연애도 축하해주셨을 건가요?"

한동안 집 안에는 침묵이 맴돌았다. 분위기는 두 분이 집 안에 처음 들어섰을 때보다도 무거웠으나, 진영은 그 때처럼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하지는 않았다. 한참이 지나도 두 분 중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기에, 그들의 표정을 살피던 것을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묻고 싶은 건 없으시죠?"

자리에서 일어난 나를 의아하게 보던 두 분은 질문을 듣고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다. 조금 의외의 반응이었다. 딸이 사귀었다는 여자를 만나서 질책도 하고, 혹시나 딸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오신 거라면 지금쯤은 어서 돌아가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어 일어난 것이었는데 두 분은 따라 일어나기는커녕 시선을 주고받으며 망설이고만 있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네. 이만 일어나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출 생각조차 않는 두 분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쫓아내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저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알게 되신 건 유감이에요, 혜영이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애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다는 건 알아주세요."

"알았네."

"……1층까지 배웅해드릴까요?"

"아니, 그건 됐네. 자네도 우리하고 오래 있는 게 달갑지는 않겠지."

가져온 짐이 없으니 떠나는 순간은 간단했다. 혜영의 아버지는 나가는 길에 놓인 상자를 물끄러미 보다 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잠시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 한마디를 던졌다.

"……미안했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 때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멀뚱히 서 있자, 혜영의 어머니는 흐리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혜영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어."

진영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왜 이제껏 두 분에게 화를 낼 수 없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마, 자신에게 많이 화가 난 상태로 이 집을 찾았을 두 분이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조용히 떠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장례식 이후 혜영이 없는 일상을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마주한, 혜영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혜영이 사랑했을 사람이었다. 자신과 똑같이 남겨져서 자신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아까 떨어뜨렸던 상자를 열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버리려던 물건들이 뒤엉켜있다. 혜영이 사왔던 인형들이며, 이제는 마음이 복잡해져 꺼내 입지도 못하면서 혜영이 선물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옷장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옷들. 가장 안쪽에는 눈에 띌까봐 끼지도 못하고 목걸이로 만들어 끼고 다녔던 커플링이 있었다. 진영은 인형들을 꺼내 한 번 끌어안고는, 원래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던 소파 위와 침대 위, 책장 옆에 놓았다. 이걸 버린다고 마음이 괜찮아질 리가 없는데, 고민하며 상자 속을 채우던 자신이 우스워 진영은 한동안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쿡쿡 웃었다.

아직, 너를 정리하기에는 이른 날이었다.

- 비평문 부문 -

아직 어린, 巨人
거 인

국어국문학과 20151109 김의영

“사는 게 숨이 차요”

영화 ‘거인’의 메인 포스터에는 주인공 ‘영재’(최우식)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문구가 눈에 띈다. 위의 문구는 ‘거인’이라는 영화의 제목과 어울려, 겉으로는 어른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속은 아직 어린 주인공 ‘영재’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영화의 다른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상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아픈만큼 큰다”

그러나 영화는 마치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인공의 삶을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비춰준다. 혹독한 현실을 견뎌내고있는 영재에게 이 말은 단지 고지식한 어른들이 던지는 ‘조언’정도로 포장된 ‘무책임’한 말일 뿐이다.

영화 ‘거인’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방식이다. 극의 초반부에서 영재는 ‘착한 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순탄치 못한 과정에서 점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며 끝내, 절규한다.

아직 어린 ‘거인’

먼저, 영화 안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주인공 ‘영재’를 들 수 있다. 영재는 쉽게 말해,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재는 ‘이삭의 집’이라는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 물론 그에게도 남들처럼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동생 이라는 가족이 있다. 그러나 남들처럼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 모습또한 남들과같은 것은 아니다. 일을해서 돈을 벌려는 의지 없이 남에게만 빌붙어 살려고만하는 사지 멀쩡한 아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멀리까지 가서 돈을 버는 엄마,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까지.

영재의 보육원에서의 삶은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환멸을 느낀 주인공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다. 적어도 자신의 미래가 집안의 어른들의 모습과는 같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보육원에서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보육원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며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잘보여 집으로 돌려보내지지 않기를 바란다. 영재의 이러한 행동들은 영화 전반부에서 잘 드러난다. 바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에게는 한없이 잘보이려는 것이다. 미움받지 않을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빠가 밥시간에 늦는거 제일 싫어하잖아”라며 혹여 자신에게도 피해가 될까 같이 사는 친구 범태를 타박하는 모습에서도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극의 초반부, 영화는 대비되는 영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들 앞에서는 착한척 청소도 하고 인사도 잘 하는 아이이지만, 보육원의 물건을 훔쳐 학교에 내다파는 영악한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춰준다. 그리고 영화는 영재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시키려 한다. 그러한 행동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라고 말이다.

언젠가 그의 친구 범태가 영재에게 이런 말을 한다.

“너같이 살기 싫어서라도 나간다.”이 말에 영재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그러한 비참하고 씁쓸한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전반부에 나타나는 영재의 이중적인 모습에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며 사는 보육원에 동생도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아 손목을 그었고,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육원 기부물품을 갖다 팔아도 모두 자신이 내던져진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대비되는 인물, ‘범태’

영화에 등장하는 ‘범태’라는 인물도 주인공 영재와 비교하여 주목할만 하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범태는 영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잘보이려는 영재와 달리, 범태는 그 나름대로 현실에 저항하려는 인물로 비춰진다. 가식적인 보육원 엄마, 아빠를 비웃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다. 어떻게 보면 영화 안에서 가장 솔직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현실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순종적으로 살아가려는 주인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범태의 모습이 이중적인 영재의 모습으로 주인공 내면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답답한 현실에서 순종적으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며, 한편으로는 영악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악한 모습이 어쩌면 범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겉으로 강한척을 하는 범태또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고등학생에 불과했다. 보육원에서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던 범태는 결국 아무도 자신을 거둬주지 않는 현실에 외면당하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갈 것을 원한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영재에게 부탁하지만 영재또한 그를 외면하는 현실중 일부에 불과했다. 영재는 자신도 보육원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르는 범태를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영재’라는 인물을 만든 현실의 무게

영재라는 인간상을 만드는 데에는 그의 주변 인물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 영화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주인공 영재와 직접적으로 많이 대면하는 보육원 아빠,엄마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는다. 성당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한없이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행동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함께 지내는 아이들에게 선을 긋고 그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자신들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보육원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영재가 다 착하다고 말할 때에도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글쎄.. 니가 그럴만한 인물인지. 아끼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주는거야”라며 선을 그어버린다.

영재의 친부모 또한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영재의 친부는 학교까지 찾아와 영재를 데리고 교회 목사님을 만난다. 그리곤 영재가 목사님이 될 것이라며 교회의 지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한다. 물론 거짓말이다.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형편이 어렵다고 도와줄 것을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영재의 친부는 사지가 멀쩡하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남에게 도움이나 받으려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는 같이 사는 동생 민재까지 영재에게 떠넘기려 한다. 믿었던 영재의 친엄마도 동생 민재를 영재에게 떠넘기려한다. 아직 성인도 되지 못한 영재에게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 선생님도 영재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학창시절에 너같은 상처 없는 애들이 어딨냐.”라는 무책임한 말을 던질 뿐이다. 성당의 신부님 또한 처음에는 연재를 연민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그의 상황이 나아지도록 하는 인물이 되지는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써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한 가난 속에서 영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인물은 없다. 모두들 자기가 살기 바쁘거나 무관심할 뿐이다. 심지어 친부모조차 영재를 외면하려한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에게 무책임한 친부모, 가난,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라는 삶의 무게는 ‘영재’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성당’이라는 장소의 의미

영화 속에서 영재는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한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신부님이 되기를 원한다. 때문에 영화 안에서 영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성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재는 왜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남들과 평등해지고 싶어하는 동경이 아닐까 한다. 최소한 ‘인간답게’살고 싶은 그의 필사적인 노력같은 것이다. 그는 신부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길바닥에서 평생 신문지나 주우며 살겠죠. 신부님 제가 그렇게 살 길 바라세요? 도와주세요. 저 진짜 신부 꼭 돼야되요.”

하느님앞에 평등한 인간의 모습을 갈망하는 동시에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그의 의지인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 영재의 필사적인 노력과 의지를 외면해버렸다.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한다.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 성당 다음 장면에는 바로 영재가 신발을 훔치는 장면이 나온다.

범태가 보육원에서 나갈 때 영재는 그를 못본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도 성당이 나온다. 또한 성당은 범태가 돈을 훔치는 장면에서도 등장한다. 이처럼 모순되는 장면이 영화에는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인간도, 신도 한 개인인 영재를 도와줄 수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없이 절망하는 영재의 모습,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라는 대사. 그것이 반복되면서도 영재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그 대비되는 장면의 전환은 종교도 영재라는 개인을 구원해줄 수 없음을 암시한다.

결국 극의 종반부로 갈수록 그 성당이라는 장소는 모호해지고 만다. 도와줄 것처럼 말하던 신부님도 결국 직접적으로 영재를 도와주지는 못한다. 이것은 또한번 영재가 좌절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믿었던 종교조차도 영재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절정

영화 '거인'의 절정은 바로 주인공 영재의 '절규'가 아닐까한다. 영화속에서 극의 초반부 영재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동생 민재를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친부모와 보육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게 된다. 그 절정의 끝이 '자해'였다.

그러면서도 영재는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을 그은 보육원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아마도 그 순간이 영화 속에서 주변 인물들에게 비춰진 영재의 가장 솔직한 장면이 아닐까 한다. 영재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그렇게 절규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 다 자란 인물처럼 묘사되었다. 하지만 그도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어린 아이였다.

"그럼 우리 어디로 돌아가, 난 누가 책임져, 민재 내가 책임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데. 엄마도 별 다를게 없구나"

자신이 돌아갈 곳을 갈망하는 어린 아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영재의 절정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영재를 진심으로 보듬어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먼 곳으로 영재를 보내버릴 뿐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는 영재처럼 강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거짓말도 서슴치 않으며 살아갈 것이다. 현실은 같을 것이다. 그 현실은 가히 17살 영재에게, 그리고 수많은 영재들에게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거인'의 의미

영화를 보면서 '거인'이라는 영화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거인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 아주 큰 사람'이다. 아마도 주인공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다. 하지만 몸이 크다고 해서 그 내면까지 완전하게 성장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화에서 무책임한 친부모에게 아직 자신이 돌아갈 곳을 갈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거인'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에 대한 질문으로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영화의 포스터에는 '아픈만큼 성장한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리고 나는 그 포스터의 문구에 대해 비웃듯 말한바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이 그렇다. 주인공은 성장하지 못한다. 다만 아무도 손내밀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 결국 좌절하고 절규할 뿐이다. 그러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주인공의 모습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나는 '거인'이라는 단어 앞에 감히 '아직 어린'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다. 고등학생인 영재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주변 인물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절망과 상처,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영재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몸은 자랐지만 내면은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로 만들었다. 몸은 거인이 되었어도 그 안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 아이에 멈춰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끝으로, 거인이라는 영화의 의도는 무엇일까. 영화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주인공이 아무리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좌절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는 가난하고 무책임한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악순환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화의 결말이 조금 더 밝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잠시의 안도감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부터 다시 영재를 외면하는 계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 악순환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문제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이 영화가 아직 우리 사회 구석진 곳에 있는 수많은 영재들에게 나도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영재들 중 하나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라쇼몽으로 보는 사람

(1)인간의 본질적인 것, '라쇼몽 효과'로 나타나다.(표현하다)
(2)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예술과 철학으로 답하다.

20171108 인문학부
한태호

1. 서론

'라쇼몽'은 195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낸 미스테리 범죄형 영화이며, 감독인 구로사와 아키라의 작품이다. 라쇼몽은 원작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라쇼몽과 덤불 속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두 작품을 적절히 섞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창작물로서 탄생했다. 라쇼몽이 처음으로 상영되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라쇼몽에 대한 평판은 재평가 되었다. 무엇이 라쇼몽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는가? 라쇼몽은 무엇을 다루는 영화이기에 사람들은 주목을 한 것일까? 어떠한 영화든 그 영화 안에 담긴 주제가 있어야 영화를 보고 난 다음 관객에게 전달하는 메세지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주제는 다시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이 영화에 주제는 모든 장면에서 가리키고 있으며, 어느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라쇼몽은 오래전에 만든 흑백 영화이지만 지금 봐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여려명의 시선으로 스토리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영화를 보는데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라쇼몽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걸작으로 탄생했다. 영화 촬영 기법과 음악, 배우들의 연기도 영화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가장 크게 지금의 라쇼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라쇼몽을 주제에 측면에서 장면들과 인물들을 바라볼 것이며, 왜 이 영화가 대단한지 살펴볼 것이다.

라쇼몽은 숲 속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 이어져나가는 영화이다. 폐허로 된 라쇼몽에서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나무꾼, 스님의 대화를 듣는 남자까지 총 3명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나눈다. 타죠마루라는 산적과 사무라이와 사무라이 아내 사이에 있었던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영화는 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관아에서 각각의 인물들의 진술로 진행된다. 영화는 같은 사건이지만 서로의 진술이 다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영화는 점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된다. 각자의 기억에서 전혀 다른 진술들이 나오는 모습은 이 영화의 주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모습과 스스로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습으로 기억을 만들어나가는 점을 살인사건이란 중심소재로 보여준다. 영화를 보면서 관객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 맞춰보라는 듯이 계속해서 인물들의 진술에 따라 살인사건을 다르게 그려진다. 끝에 가서 가장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다고 생각된 나무꾼조차 영화의 주제에 속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살인사건에 진실은 미궁으로 빠져진다.

라쇼몽에서 진실은 과연 중요했는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살인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 앞에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기 위해 스스로가 기억을 왜곡시키면서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영화의 주제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이랑 비교해 볼 만 하다. 같은 사건에 다른 증언들 서로가 다르게 기억하는 사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라쇼몽 영화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두 명의 인물들, 그들이 오고 간 자리에 사건이 일어났고, 살인자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두 명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한다. 사건은 두 명의 인물이 서로 다른 진실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된다. 라쇼몽에서도 그렇듯 살인사건은 일어났지만 모두 다른 사실들을 말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각각 다른 진술들 사이에서 진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러한 태도는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난다. 사실 이태원 살인사건만이 아닌 모든 범죄사건에서 용의자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위해 거짓말을 한다.
나무꾼의 대사 중에 "끔찍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가 말한 "끔찍하다"는 것은 단순히 살인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화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진술일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진실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가 끔찍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이태원 살인사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라쇼몽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2. 본론

'라쇼몽 효과'는 같은 사건일지라도 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입장과 견해의 맞추어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라쇼몽은 많은 사람들과 비평가들에게서 주목 받았던 영화이다. 사람들은 왜 이 영화에 그토록 주목하게 되었는가?
그 답은 영화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영화 주제, 즉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영화 안에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영화에서 주제와 관련되게 연출되어 나온 장면들이 있고, 카메라 구도, 배경음악, 인물의 대사로 비춰지는 모습 등, 많은 부분들이 단 하나의 주제로 연관시키게 해준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총 3가지 중요한 장소에서 사건들이 펼쳐진다. 나생문, 숲 속, 관아로 나누어지는데, 나생문은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과 중간에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나오고, 영화 후반부에서도 등장한다. 숲 속은 영화의 액자식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펼쳐질 때 등장하고, 관아 또한 역시 그때 등장한다. 라쇼몽 작품을 더 자세히 보기위해 나눈 3가지 장소들을 분석해보고, 영화에 시작과 끝에서 나온 나생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제의 측면에서 인물들을 분석해보면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장면분석(1) 먼저 영화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나생문이 중요한 장소 중 첫 번째로 이야기 할 수 있다. 무너져간 나생문에서 나무꾼과 스님 그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 온 행인 셋이 등장한다.
나생문 앞에서 행인이 한 대사 "이 라쇼몽에 살던 도깨비도 인간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영화의 초반부에 나온 이 대사로서 다 무너져가는 나생문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일본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깨비들이라는 존재보다도 더 악랄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우리는 이 대사로 영화가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다룰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나생문 아래에 3명의 인물은 거세게 오는 비를 피해서 앉아있다. 우리는 라쇼몽의 주제와 관련된 날씨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무꾼은 계속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동안 비는 계속 쏟아진다. 나무꾼이 말한 "모르겠다."는 나생문의 분위기를 더욱 미스테리하게 보이게 하고 사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이 되서 앞으로 이어질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나생문에서 이야기가 진행하면서도 비는 멈출 기세를 모른다. 영화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와 같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 또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상황으로 전개 될 거라는 암시처럼 작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비와 나생문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영화에서 펼쳐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앞으로 이어질 사건에 대한 암시를 이룬 중요한 미장센이다.

장면분석(2) 두 번째로 영화의 숲 속 장면을 생각해보자. 영화의 주제를 표현하는 것은 각 인물의 모습을 장면으로 담아낼 때에도 드러난다. 나무꾼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숲을 걸어가고 있는 나무꾼을 카메라는 따라가듯이 찍는다(트랙킹 기법). 같이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은 나무꾼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가는 관객들에게 무언가 일어날 듯 한 긴장감을 준다. 여기서 나뭇잎 사이로 비춰지는 빛 그리고 다시 나뭇잎으로 가려져서 어둠은 반복되면서 나무꾼을 빛과 어둠으로 번갈아가면서 비춘다. 여기서 나무꾼의 존재가 선과 악의 갈등을 그릴 인물이란 것을 잘 표현해준다. 숲 속을 찍은 장면들은 산적, 사무라이 아내, 무당(사무라이 혼령), 나무꾼이 진술하면서 플래시 백으로 살인사건을 회상했던 장소이기에 매우 중요한 곳이다. 숲 속에서 각 인물들은 회상 장면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들이 나온다. (숲 속에서 강렬한 햇빛을 촬영한 것 서술)

장면분석(3) 관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생각해보자. 나무꾼의 이야기 안에서 그려지는 이야기의 구도를 살펴보면, 산적(타조마루),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내를 중심으로 살인사건이 펼쳐지고 그것을 목격한 나무꾼이 있다. 영화는 타조마루의 진술과 사무라이 아내의 진술 그리고 죽은 사무라이 혼을 대신해 무당이 진술하는 것으로 각자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한다. 진술을 하는 씬은 영화의 주제를 한층 더 부각 시키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진술을 하는 4명의 인물들을 중점으로 영화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산적(타조마루)에 진술부터 생각해보면, 그는 사무라이와 함께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빼앗기로 결심한 다음, 남자를 유인하여 결박한 후에 여자를 겁탈하였다. 여자에 남자 가운데 살아남은 쪽을 따라가겠다는 요청으로 산적에게 사무라이와의 결투를 요청했다. 그래서 남자와 결투를 벌인 끝에 남자를 죽였지만, 그 사이에 여자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사무라이의 아내는 겁탈을 당한 다음 남편(사무라이)에게 안기고 하소연 하지만 싸늘한 시선을 느끼면서 자신이 버림받음을 느끼고, 칼을 든 채로 남편에게 가까이 가서 남편의 시선을 본 뒤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에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고, 도망갔다고 한다.
세 번째로 무당(사무라이의 혼령)이 혼령에 빙의한 뒤 진술하는 부분이다. 산적에게 겁탈 당한 아내는 결국 남편을 버리고 산적을 택한 뒤, 남편을 죽여달라고 산적에게 요청하지만 산적 또한 이런 비열한 여인에게 혐오감을 느끼면서 사무라이를 풀어준다. 사무라이는 도망친 아내와 사라진 산적 때문에 홀로 남겨지고 비통하게 울고 나서 자살을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말한 사건의 진실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다. 같은 사건이지만 모두 다른 진실들은 영화의 관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사무라이는 명예로운 결투 끝에 살인을 한 것이고, 아내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고, 사무라이는 산적에게 포박당하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으로 표현된다. 특히 사무라이는 죽었지만, 무당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다. 여기서 감독은 인간이란 죽어서도 이기심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명의 인물들이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말한

것으로 들리기에 어느 것도 진실이라고 판단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두 그들 입장에서 말한 사건들이라는 점은 공통적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영화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아는 모두가 사건에 진실을 말하는 곳이다. 그러나 모두의 진술이 다 끝나면 어느 하나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말한 진술에서 영화의 주제와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이 말한 진술은 모두 스스로에게는 진실이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사건 기억이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기억하고 싶은 게 다르다. 라쇼몽에서 관아 장면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표현한 장면이여서 매우 중요하다.

진술하는 인물들은 관아에 있는 집행관에게 대답을 하지만 집행관이 한 질문은 들리지가 않는다. 마치 그들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서 관객과 배우들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표현된다. 또한 진술을 하는 장면에서 인물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 촬영기법은 표현하지 않도록 금지되어 있음, 라쇼몽에서 이러한 표현기법을 사용해서 신선함과 파격적인 시도를 함, 금기된 촬영기법: 해를 찍는 것)

관아 장면에는 진술하는 인물들의 위치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산적(타조마루)과 사무라이 아내는 그늘진 곳에서 증언을 하는 장면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곳에서 어두운 그늘에서 말하는 점은 과연 인물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증언을 하는 인물들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무꾼과 스님은 밝은 햇빛아래에 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인물들의 진술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근거로 모든 인물들의 진술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꾼은 마지막에 자신이 이 사건에 목격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뒤에 나와 앞에서 말한 3명의 인물들(산적, 사무라이의 아내, 사무라이)의 진술들을 햇빛 아래에서 본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꾼 스스로가 진술할 때에는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늘아래에서 한다. 나무꾼의 진술 또한 다른 인무들과 별 다를 거 없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햇빛과 그늘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장면분석(4) 다시 나생문의 장면으로 돌아와 떠올려보면 다른 등장인물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 증언을 하는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생문에서 비를 피하는 3명의 인물들 중 2명의 인물들은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스님은 영화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인물로 표현된다.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인물이지만 살인사건을 참혹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인간은 선하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인물이다.
영화에서 스님과 정 반대되는 인물인 행인은 영화의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다. 인간은 본래 악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여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스님과 행인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할 때도 행인은 인간의 악한 면을 강조하면서 스님의 말에 반대를 한다. 행인은 버려진 아기의 부적을 훔칠 정도로 인간의 악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고 주제를 잘 드러내는데 가장 필요한 인물이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만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그러하다는 논리로 오히려 나무꾼과 스님 중 가장 당당하다. 자신의 말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나무꾼과 스님을 꾸짖는 상황까지 펼쳐진다.

두 인물에 중요한 점은 서로가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영화의 주제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가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기에 하나의 주제를 더욱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행인은 비참한 현실을 말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은 이기적이여야 살 수 있다고 한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라 말하던 승려의 말에 옳다면서 맞장구를 치는 장면에서 그는 인간에 본성을 대사로 표현한다. 승려는 끊임없이 절망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말하려고 한다. 둘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영화에 대한 주제가 두 입장으로 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결론

결말 부분은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영화는 마지막 부분에 나무꾼의 증언마저 진실인지 의심이 되는 순간, 나무꾼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인물, 선한 인물로 그려진 스님에게 의심받고 아기의 부적을 훔친 행인에게 조차 비웃음을 받는다. 여기서 아기는 무력하고 가엾은 존재이며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존재인데, 행인이라는 악이 부적을 빼앗고 스님이라는 선이 아기를 지키기는 장면에서 나무꾼은 무력한 모습으로 잠시 비춰진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스님에게 자신이 돌보겠다며 아기를 받고 나생문을 빠져나온다. 여기서 스님이 나생문에서 빠져나올 때 비는 더 이상 오지 않고, 햇빛만이 비춰진다. 영화에서 나무꾼은 선과 악에서 고뇌하는 인물로 그려지다가 아기라는 존재를 통해서 선의 길로 가야하는 확신을 하는 인물로서 전환한다. 영화에서 인물이 선의 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결론은 인간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던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전부 인간에 대한 불신과 이기적인 면모를 강조하면서 흘러가던 점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결론에 대해 완전한 부정은 아니지만, 영화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따뜻한 인간성으로 결말dfm 맺기 보다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마지막까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주제를 신중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쇼몽의 주제는 많은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이기에 주제를 통해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각자 영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영화의 결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말의 완성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무꾼 또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앞에서 밝힌 후에 바로 스님은 나무꾼의 한 명의 아이가 늘어도 괜찮다는 대사를 듣는다. 이 대사 하나로 납득당한 뒤 나무꾼에게 아기를 맡긴다. 스토리에 전개 측면에서도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앞에서 있었던 수많은 인간의 이기심과 거짓된 말을 듣고 나서도 한 번에 말로 믿음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스님이 아기를 나무꾼에게 맡긴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대사와 시간을 더 투자 했어야 했다. 앞에서 말한 주제 측면에 강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 이외에 결정적으로 영화의 완성도에 있어서 결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독이 만든 결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독이 인간에 대한 희망을 결말에 넣으려면 더욱 완성도를 높였어야 했다. 관객 입장으로서는 결말이 다 만들어진 영화에 해피엔딩을 넣고 싶어하는 감독의 욕심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쇼몽은 영화가 모두 끝이 나더라도 관객들에게는 다시 시작되는 작품라고 생각한다. 라쇼몽을 보면서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궁금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화에서 진술하는 인물들은 증언들은 전부 다르고, 3명의 주요 진술하는 인물들(산적, 사무라이 아내, 사무라이)은 각자가 살인자라고 말한다. 영화에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살인범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살인사건은 단순히 영화에 스토리 전개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은 모두 내면에서 나오고,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기에 진실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거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라쇼몽이 관객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큼의 포괄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우리는 작품의 주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더 깊게 고민해보고, 많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한 일에 주관적으로 합리화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는 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영화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다루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나무꾼과 결말을 동시에 비추어볼 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극복해 나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즉 스스로 고뇌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 할 수 있다. 영화 속 승려의 대사가 그러하듯이, 사람에 대한 믿음, 결국 사람의 이기적인 면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영화는 살인사건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생긴 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레 미제라블

국어국문학과 20151129
장은영

Ⅰ. 인기 뮤지컬에서 인기 영화로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은 2012년에 개봉한 톰 후퍼 감독의 작품이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소설 속 인물인 '장 발장'의 이야기와 그 주변인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프랑스 혁명 시기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레미제라블은 이미 영화 이전에 뮤지컬로 세상에 나왔다. 세계적인 주요 뮤지컬 상 70여 개 석권한 최고의 인기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뮤지컬 영화는 영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노래로 이루어져있다.

Ⅱ. 뮤지컬 영화 최초의 라이브 녹음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이후 그런 종류의 영화가 종종 나오기 시작했다. 레미제라블도 그 중 하나였다. 그 중에서도 레미제라블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뮤지컬 영화 역사 사상 최초의 라이브 녹음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매 테이크마다 배우들은 세트 바깥에 있는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 실시간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반주는 녹음된 곡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 템포에 맞게 현장에서 연주하는 것이다. 뮤지컬 영화에 있어서 라이브 녹음은 배우로 하여금 좀 더 실감나고 자유로운 연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사 한 마디 한 마디를 노래가 아닌 연기의 한 일부로 만들어 노래를 내뱉을 때의 숨소리, 짓는 표정이나 행동에 애드리브를 넣기에도 적절하다. 노래 가사를 대사를 내뱉듯이 불러내어, 완벽한 '노래'라기보다는 완벽한 '연기'를 연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객들에게 스토리의 리얼리즘을 좀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 녹음된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연기하는 것은 배우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뮤지컬 영화를 성공적으로 살려준 라이브 녹음에는 효과만큼이나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영화 촬영장은 생각 외로 소음이 많기 때문에 라이브 녹음은 불필요한 소음을 배제하고 주변이 조용해야만 한다. 주변의 소음 하나하나가 녹음에 포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면을 찍는 카메라맨들의 움직임도 최소화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마차 안에서의 배우를 찍을 때엔 마차 소리에 배우의 노래 소리가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미제라블의 음향 팀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말 발굽소리가 음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노래와 리듬에 효과음을 맞춰낸다. 또한 은촛대가 부딪혀 나는 소리로 노래와 어우러지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영화 상황에 맞는 효과음을 노래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다. 영화를 만든 모든 스텝들은 사운드에 관해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레미제라블은 이러한 라이브 녹음으로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주목시켰다. 극 중 판틴 역을 맡은 앤 헤서웨이는 'I dreamed a dream'이라는 곡으로 엄청난 주목을 이끌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웃기도 하고, 현실에 대해 한탄하며 흐느끼기도 하는 노래는 그 어떤 대사보다도 절절하게 들린다. 이외에도 에포닌의 'On my own', 프랑스 혁명군들이 부른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등 감명 깊은 노래들이 립싱크에 비해 배우의 표정과 몸짓과의 위화감이 적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이 영화 내용에 압도되게 만든다.

이와 같이 뮤지컬 영화의 최초 라이브 녹음은 관객들에게 성공적으로 선보여졌다. 그러기 위해선 라이브 녹음에서 노래를 이용해 훌륭한 연기를 해낼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해야 했다.

극 중 코제트 역을 맡은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2009년 크게 흥행했던 '맘마미아'에서 소피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또, 에포닌 역을 맡은 사만다 바크스는 실제 레미제라블 뮤지컬에서 에포닌 역을 맡고 있던 뮤지컬 배우였다. 사만다가 아닌 에포닌은 상상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찬을 받았던 그녀는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레미제라블은 사운드, 그리고 주요 노래에 관해서는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뮤지컬 영화 역사상 최초로 시도한 라이브 녹음은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음향 기술의 발달과 함께 관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하였다.

Ⅲ. 송 쓰루

뮤지컬 영화는 대부분 평범한 영화와 같이 대사 위주로 내용을 진행한다. 그러다 중간 중간 주인공의 심리 묘사나 주요 장면을 표현할 때 노래를 넣는다. 하지만 영화 레미제라블은 원작 뮤지컬을 충실히 지키면서 대사 없이 노래로만 진행된다. 음이 없는 대사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이러한 진행은 관객들의 호불호를 갈리게 만든다. 평범한 영화를 즐기던 관객에게는 노래를 잇기 위해 어중간한 음으로 대사를 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레미제라블에서는 바로 다음 노래가 나오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평범한 대사에도 멜로디 없이 음을 넣어 말한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음 노래와 이어나간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노래 멜로디는 그 전부가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화를 노래로만 진행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원작을 최대한 지키며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필요성에 따라 대사를 활용했으면 그 어중간한 음에서 발생하는 어색함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노래 가사에는 등장인물의 감정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만 서정적인 내용들은 그 상황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레미제라블 원작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노래마다 존재하는 상황을 이해하기에 속도감이 꽤 있다. 노래가 나오면 그 다음 노래가 진행되고, 그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면 다음 씬으로 넘어가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천천히 곱씹고 감동을 느끼고 싶어 하는 관객들에게 있어서 레미제라블은 정신없는 영화에 불과하다. 때문에 애초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해 둔 사람만이 영화를 편히 볼 수 있다.

관객들이 좀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을 라이브 녹음을 시도한 것에 비해, 이해도를 떨구는 속도감 있는 진행은 그리 좋지 않았다. 확실히 레미제라블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적인 요소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뮤지컬을 즐겨보지 않는 관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노래를 잇기 위한 송 쓰루는 뮤지컬에서 필수적인 요소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살리고자 영화적인 요소를 간과했다는 점이 좋지 않다. 작품성은 뛰어난 평가를 받더라도 관객들에게 영화를 이해시키는 부분에서는 생소한 기법으로 무리를 주었다.

영화 <Requiem For A Dream>의 상호텍스트성
: 스타일 분석과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121103
권순영

본 고에서는 영화 <파이>, <더 레슬러>, <블랙 스완> 등을 통해 자신만의 영화적 스타일과 대중성까지 고루 인정받았던 대런 아로노프스키(Darren Aronofsky) 감독의 <Requiem For A Dream>을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영화의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대런 아로노프스키는 제 14회 선댄스 영화제 감독상, 제17회 스톡홀름영화제 비전상, 제 65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제29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 작품상, 남동부 영화비평가협회 감독상을 받으며 데뷔 직후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스타일적인 면에서 기존 할리우드의 스타일을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였다. 특히 그는 인물의 심리상태를 편집이나 촬영기법을 통해서 구현했다. <블랙 스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배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아픈 몸에도 깨어난 직후, 허겁지겁 공연장으로 뛰어가는 심리적 압박감을 기존 할리우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이는 편집인 점프컷[1]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녀가 흑조 역할을 마침내 해내는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CG로 그녀를 정말 흑조로 변신시켜 그녀가 흑조 배역에 완벽히 동화되었음을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그 외에도 본 고에서 논할 <Requiem For A Dream>에서는 주인공들의 약물중독심리상태를 몽타주로 시간을 압축하고, 비정상적인 클로즈업, 패스트 모션, 슬로우 모션 등을 활용하여 표현 하였다.

<Requiem For A Dream>에서 많은 모티브가 차용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그에 앞서 영화를 샷 분석을 통해 샷 안에 기호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 낼 것이다. 20세기 중엽 프랑스의 평론가 롤랑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을 통해 말했듯이 감독은 텍스트의 기원이며 작자는 독자로서 감독의 의도에 구속되지 않고, 작자 개인의 견해로서 영화를 해석해 볼 것이다.

제 1장 서론

1.1 상호텍스트성.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을 차용하여 “아는 대로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말 그대로 어떤 작품도 절대로 한가지로 해석되어 읽힐 수는 없을 것이다. 작가가 텍스트를 창조하면, 독자는 개인적인 견해와 지식, 사회문화 속에서 텍스트를 저마다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1941~)에 의해 재정립된 바흐친(Mikhail Bakhtin,1895~1975)의 상호텍스트성을 따르면 개별 독자들을 저자만큼이나 텍스트 의미 생산의 중요한 주체로 보았다.

---

1) 장면이 비약적으로 돌출한다는 의미의 편집 용어. 보통 편집은 연대기적 순서에 입각하여 동작 및 사건이 연속적이 되도록 화면을 연결하여 한 장면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소위 비가시 편집(invisible cutting)이 일반적이나 점프 컷은 반대로 연속성이 갖는 흐름을 깨뜨리는 편집이다. 화면상의 연기 동작이 시간을 건너뛰거나 되돌아가는 듯 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화사전, 2004. 9. 30., propaganda)

텍스트를 창조적 의식의 결정된 산물로 간주하기를 거부 하는 것은 독자의 위상을 바꾸고자 하는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작품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공급해 준다고 할 상위적인 어떠한 원천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텍스트를 살아 있는 현실성 속에서 생산할 일이 독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말라르메처럼 책을 쓰는 사람이 청중이기를 원한다. 독서는 소비가 아니라 창조가 되어야한다.[2)]

또한 크리스테바가 1966년 문학이론가 바흐친에 관한 논문에서 상호텍스트성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텍스트를 페노텍스트와 제노텍스트로 구분한다. 쉽게 말하자면, 페노텍스트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텍스트로서 제노텍스트의 과정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노텍스트란 텍스트 속에 신화적, 철학적 모티브를 변주하여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한다.

1.2 영화의 기호

영화 기호학의 선구자인 메츠(Christian Metz, 1931~1993)는 소쉬르(Saussure Ferdinand De, 1857~1913)의 기호학을 통해서 영화를 보았다. 그는 기호학을 영화에 접목시키면서 영화를 언어로 보지는 않았다. 영화는 언어와 다르게 이중분절이 불가능하며, 추상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츠는 영화를 언어활동 즉, 랑가주(langage)로 칭했으며, 영화의 스타일적 요소 즉, 색, 촬영기법, 편집기법, 및 인물, 인물관계 등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영화의 기호들로 해석하고 이것을 기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기의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내러티브 속에서의 이야기 구조뿐만 아니라 하나의 샷 속에서 어떤 기호가 내포되어 있는지 유심히 보아야 하며, 그것들을 기호의 의미작용으로 해석해야한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영화의 제노텍스트를 해석하기에 앞서, 한샷 한샷 세밀하게 영화 의 기호를 분석한 후에, 그 속에 숨겨진 제노텍스트를 발견하고, 영화와 제노텍스트 간에 어떤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3 인물을 통해서 본 줄거리

본 고에서 다룰 영화 <레퀴엠 포어드림> 은 주인공 해리골드팝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약물중독에 빠져드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영화의 제노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물을 통해서 줄거리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사라 골드팝

사라골드팝은 아들인 해리 골드팝을 홀로 키우는 과부로서, 외로움에 병적으로 TV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태피 티본스 쇼'를 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살게 된다. 어느날 그녀가 즐겨보던 TV쇼에서 출연섭외를 받고, 아들의 졸업식에 입었던 빨간 드레스를 입기 위해 다이어트를 감행하게 된다. 음식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사라 골드팝은 결국 의사를 만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점점 미쳐가게 된다. 결국 사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끔찍한 치료를 받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

---

2) 뱅상 주브, 하태환 역「롤랑바르트」, 민음사, 1994, 147-148쪽.

(2) 해리 골드팝

해리 골드팝은 어머니인 사라 골드팝이 항상 TV에만 정신팔려 있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TV를 어머니 몰래 고물상에 팔아치우고는 그 돈으로 친구인 타이론과 여자친구인 마리온과 함께 마약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를 차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초기자본을 벌기 위해 해리는 타이론과 함께 '엔젤'에게 마약을 싼값에 사 비싼값에 되파는 마약 딜러가 되고, 점점 더 마약에 중독된다. 마약 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마약을 더 이상 구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 마약을 구하기 위해 타이론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향하다가 마약 중독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을 가게 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결국 한쪽 팔을 절단하게 된다.

(3) 마리온 실버

해리와 달리 중상층의 부모에게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온 마리온은 사고를 치고도 행복해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남자친구인 해리와 함께 마약에 중독 된 마리온은 해리가 구해주는 마약에 의존한다. 해리가 마약을 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나자 돈을 벌기위해 자신이 싫어하던 심리상담가에게 몸을 팔게 된다. 더 나아가 성매매의 대가로 마약을 주는 리틀존 에게까지 몸을 팔아 마약과 돈을 갖게 된다.

(4) 타이론 C. 러브

해리의 친구인 타이론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여자친구와 관계에서도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는 해리와 함께 마약을 구하러 캘리포니아에 가던 중 해리의 마약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제 2장 <Requiem For a Dream>의 스타일과 기호

영화의 스타일이란 스크린에 들어나는 모든 것을 칭한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시네마토그래피(Cinematography)로 말할 수도 있겠으며, 본고에서는 영화의 촬영 기법, 편집기술, 소품, 음향, 촬영지등 영화를 이루는 모든 것을 영화의 스타일이라 칭할 것이다. 영화의 스타일은 네러티브와 어우러져 중요한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스크린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에 중요도를 둘 수는 있겠으나, 짧은 시간동안 스크린에 비추어진다고해서 그것이 작은 의미를 지녔다고는 볼 수 없다. 잠시 지나가는 샷 속의 한 부분이더라도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다룰 장에서는 영화 <Requiem For a Dream>에 존재하는 스타일적 요소를 각각의 기호로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도록 하겠다.

2.1 촬영기법

영화는 같은 시나리오를 보고 찍는다 하더라도 감독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 촬영될 수 있으며, 다양한 촬영기법이나 편집 등의 형식이 내용을 반영했을 때 좋은 영화라고 평

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화 <Requiem For a Dream>은 기존에 쓰지 않는 다양한 촬영기법을 사용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스펙타클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독특한 촬영기법에서도 의미가 창출되며, 카메라 촬영형식이 내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1.1 하이 앵글

하이앵글이란, 카메라가 피사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촬영하는 기법이며, 부감(俯瞰) 이라고도 한다. 보통 하이앵글에서는 피사체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무력감이나, 상실감등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고, 한 스크린에 많은 풍경과 사람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영화에서 군중 씬이나 풍경을 강조하는 씬에서 많이 쓰이기도 한다. <Requiem For a Dream>에서는 하이 앵글이 자주 쓰였는데, 이는 인물들을 무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영화에서 인물들은 삶에 주체로서 삶을 이끌지 못하고, 약물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주체가 상실된 상태를 하이 앵글로써 잘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1.2 초광각렌즈

<Requiem For a Dream> 에서는 초광각렌즈를 이용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초광각렌즈란 다른 말로 어안렌즈라고도 불리며,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넓게 표현할 수 있어 인물들의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광각렌즈를 사용할 시에는 초점거리가 극도로 짧고 상이 둥근 모양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어지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아가 관객이 영화에 소격효과를 느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영화에서 사용되는 렌즈의 형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Requiem For a Dream>에서는 인물들이 마약을 흡입하거나 중단했을 때 일시적으로 초광각렌즈가 사용되어 인물들의 혼란한 심정과, 환각상태의 공간에 대한 왜곡 등이 잘 나타나져 있다. 또한, 관객이 디제시스 속으로 직접 들어가 실제로 마약을 흡입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인물들이 마약을 한 느낌을 렌즈를 통해 잘 표현 했다.

2.1.3 익스트림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란 특정 피사체를 확대하여 보여주는 클로즈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부위를 극도로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다. 보통 긴장과 불안 등을 나타내는 묘사에서 많이 쓰이며, 실제 눈으로는 보기 힘든 앵글이기 때문에 관객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감독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사용할 때에는 의미를 담기위해 사용될 경우가 많다. 특히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다른 피사체들을 보게 하지 않고 특정 피사체만을 보여주게 된다. <Requiem For a Dream>에서는 인물들이 마약을 하는 장면에서 인물이 직접 나오지 않고, 몽타주 씬으로써 마약, 주사기, 미세혈관, 말려진 돈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난 뒤 눈동자의 동공이 열리는 것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동공이 열린다는 것은 빛이 적기 때문이며, 빛이 많은데도 동공이 열려져 있는 경우는 보통 뇌의 기능이 정지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의사들이 응급환자가 올 경우, 눈에 불빛을 비춰보는 이유와 같을 것이다. 영화에서 동공이 열리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인물들이 마약을 통해서 삶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고 수동적 상태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죽음충동의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2.2 소품

영화에서 소품은 중요한 요소이다. 소품이나 소도구는 도상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배우나 대상의 성격을 의미화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소품이나 소도구의 색상에서도 내러티브 전개를 통해서 의미가 창출되기 때문에 영화에서 지시물이 될 수 있는 소품을 유의 깊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

2.2.1 TV와 자몽과 오렌지가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

영화에서 새라 골드팝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TV라 할 수 있다. TV는 사적 영역 안에 공적 영역이 들어오는 매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후에 언급할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는 집단과의 합일로 해석될 수 있다. 남편을 잃은 새라골드팝은 배우자가 결여된 상태로서, TV 속에 존재하는 집단과 합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리히 프롬은 이런 집단과의 합일을 결핍에 대한 도취적 해결로 보았다. 아마도 이러한 집단과의 합일을 이루기 위해 새라 골드팝은 광적으로 TV에 집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새라 골드팝은 TV쇼에 나가 스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설정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 가난한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여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일 방향 적으로 강요받게 된다. 새라골드팝 또한 이런 아메리칸 드림 이데올로기에 지배받고 있으며 이런 모티브는 영화곳곳에서 나타난다. 새라골드팝의 아들인 해리는 마리온 에게 옷가게를 열어 성공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옷가게를 열기위해 마약 상인인 ‘엔젤’에게 마약을 구입하여 유통하게 된다.

마약 상인이 엔젤인 것에도 의미가 있다. 미국의 지명중 로스 엔젤로스가 있는데, 지명의 유래의 설 중, 미국 노래에도 있듯이 lost angeles 즉, 서부개척시대에 남자들이 아내를 내버려두고 골드러시를 위해 서부로 가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두고 가게 되면 천사인 아내를 잃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뜻 이 있다. 이는 극중 해리가 마약을 구하기 위해 마리온을 두고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는 설정과도 일치한다.

새라 골드팝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당시 식사로 대신 했던 과일은 자몽 (GrapeFruit)이다.

자몽에서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후반부에서 자몽은 오렌지로 변주된다. 아들인 해리가 마약을 구하러 마트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온 오렌지와 마약을 실고 온 트럭을 볼 수 있다. 자몽은 영어로 하면 GrapeFruit인데 이는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벡 (John Ernest Steinbeck, 1902~1968) 의 소설인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떠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조드의 가족들도 캘리포니아로 떠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도 결코 기회의 땅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농민들은 막대한 양의 농작물을 수확하면서도,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조차 사먹을 돈을 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대공황기의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그린 소설이 「분노의 포도」이다. 작가인 존스타인벡은 이 작품으로 퓰리처 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소설에서 주로 다루어진 허황된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미국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몽(Grapefruit)으로 재치 있게 변주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로 한번 더 변주되어 영화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돈에 대해 연연하지 않던 마리온이 돈을 위해 몸을 팔게 되고, 캘리포니아에 가던 타이론이 감옥 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 자본주의의 노예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제목이 “Requiem For A Dream” 인데, 번역하자면 “꿈을 위한 진혼곡” 정도로 볼

수 있다. 진혼곡이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곡으로써 꿈이 죽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Dream 이 American Dream 으로써, 대공황시대에 미국인들의 꿈이 모두 사라져버린 비극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2 숫자 3

<Requiem For a Dream>에서는 숫자 3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새라 골드팝이 즐겨 보았던 태피 티본스 쇼에서는 반복해서 세 규칙을 강조하며, 그녀가 다이어트를 할 때 먹게 되는 약도 세가지 종류이다. 또한 다이어트 광고 문구도 30일을 투자하라는 문구 였으며, 그녀가 식사량을 줄였을 때 슬로우 모션과 클로즈업을 통해 보여줬던 시계도 3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그녀가 다이어트 식사를 위해 먹었던 식사는 계란 한개와 자몽반쪽 그리고 커피한잔으로,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세음식이 삼각형을 이루게 배치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숫자 3과 삼각형의 이미지는 자크 라깡(Jacques Lacan, 1901~1981)이 사용한 용어인 오이디푸스 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오이디푸스 삼각형은 가족의 삼각형이라고도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로 이루어진 닫힌 가족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로이트의정신분석의 개념 중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자아는 거울단계에서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게 되고 아버지에 의해 억압을 받게 되며, 아버지의 질서를 따르게 된다. 더 나아가 법과 사회의 질서를 따르고 이는 초자아로 형성되어 사회에서 기능하게 된다. 이런 핵가족의 삼각형의 구조를 오이디푸스삼각형이라 하며, 영화에서 숫자 3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라캉은 이러한 오이디푸스의 삼각형에서 자유로워 져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영화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인 해리와 타이론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상태로서, 결핍된 상태이고, 이런 오이디푸스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에 있어, 초자아가 제 기능을 못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 파국을 맞게 된다.

제 3장. 에리히 프롬「사랑의 기술」이 Sub Text로서 <Requiem For a Dream>에 어떻게 들어나는가.

미국의 신프로이트학파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사랑의 기술」에서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사랑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대다수의 소외된 현대인들이 사랑의 우연성 내지 기회성을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랑이란 일종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는 기본전제로부터 이 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저자는 이런 전제 위에 “인간의 실존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유일한 답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프롬은 이 책을 통해 현대인이 미처 정의 내려 보려고 시도하지 않은 채 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랑이라는 평범한 주제를 놓고 그의 독특한 심리학적 통찰력과 예리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인간의 본질을 철저히 해부한다.[3)]

본고에서는 에리히 프롬의「사랑의 기술」의 텍스트가 Sub Text로서 영화 <Requiem For a Dream>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라고 하였다. [4)]

---

3) 에리히프롬,「사랑의 기술」, ㈜시사영어사 편집국 역, YBM 시사영어사, 1997, 2쪽
4) 에리히프롬,「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2006, 25쪽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든 인류로서든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되어있는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5)]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의 합일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스스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던져져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된다. 이런 분리 상태에서 분리불안을 느끼며, 분리가 모든 불안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은 인류가 분리 상태에서 벗어나 합일에 도달하려는 방법을 크게 집단과의 합일과, 도취적 해결, 창조적 활동, 그리고 사랑으로 생각하였다.

3.1 도취적 합일

에리히 프롬은 도취적 합일에 대한 설명에서, 인류는 원초적 결합에서 벗어날수록 자연의 세계에서 더욱더 분리된다고 했다. 분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는 욕구도 더욱더 강렬해지는데, 이런 다른 방법으로 분리에 의해 생긴 불안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절망적 노력이며 결과적으로는 분리감을 더욱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증대되는 분리감을 해소시키기기 위해 더욱 집착적으로 도취적 합일에 더 자주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도취적 합일의 모든 형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강렬하고 심지어 난폭하다는 것, 둘째는 퍼스낼리티 전체에 몸과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 셋째는 일시적으로 주기적 이라는 것이다.[6)]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인류가 유아기에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토양, 동물, 식물은 아직도 인간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동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것은 동물 가면을 쓴다든가 토템으로 삼은 동물 또는 동물신을 숭배 하는 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으로 거행되므로 집단과의 융합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이러한 해결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런 집단과의 융합도 도취적 해결이라 할 수 있는데, 비도취적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인이 선택하는 형태가 도취적 합일이다. 또한 군중과의 일치에 상대적으로 실패했을 때도 보여주는 이 형태는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그리고 강박적인 성애 중시, 자살 등으로 나타난다.

영화에서 새라골드팝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그녀는 더욱더 병적으로 TV 다이어트 강의 '태피 티본스 쇼'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집단과의 합일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종교적인 활동의 집단과의 합일은 현재에 와서 매체의 발달로 인해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로 확장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새라 골드팝의 집단과의 합일에 대한 욕망은 TV쇼의 출연섭외 전화를 받으며 극단적으로 커지게 된다. 그때부터 골드팝은 TV쇼의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군중과의 일치에 상대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점점 그녀는 다이어트 약으로 나타나는 마약에 중독되게 된다. 이러한 도취적 해결이 그녀가 그녀스스로를 망가트리게 된다.

---

5) 에리히프롬,「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2006, 24쪽
6) 에리히프롬,「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2006, 29쪽

에리히 프롬은 근대 자본주의가 권위나 원리 또는 양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즐거이 명령에 따르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고 마찰 없이 사회 기구에 순응하는 사람들, 폭력 없이 관리되고 지도자 없이 인도되고 목적 없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 움직이고 기능을 다하고 곧바로 나간다는 목적 이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현대인은 상품으로 변하고,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고 하였다.[7)]

주인공인 해리골드팝은 먼저 아버지가 결핍된 상태로 이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도취적 합일인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로 시작한다. 그는 직업을 갖지 않는 상태로, 사회에서 무력한 상태로 그려지며, 정당한 노동이 아닌, 마약을 싼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돈을 벌게 된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외된 상태로, 결국 자신이 사랑의 대상인 여자친구 마리온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게 된다. 그는 더 나아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이라는 도취적 해결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그의 팔을 자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의 죽음충동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에리히프롬 또한 군중과의 일치에 상대적으로 실패했을 경우,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그리고 자살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해리의 여자친구 마리온은 언뜻 보기에는 중상층에 속하며, 해리와의 사랑을 통해서 합일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란 불완전한 것이며, 배우자와의 합일은 항상 일시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합일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마리온은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실패했으며, 해리와 마찬가지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해리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여, 사회에서도 소외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마리온은 특히,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통해 말하자면 1차 Egoist라고 할 수 있으며 상상계 즉, 어린아이에 머물러져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기위해 심리상담사를 억지로 만나기도하고, 영화 초반부에 해리와 함께 경비 시설에 들어가 사고를 치곤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엿 볼 수 있다. 또한, 해리는 돈을 구하기 위해 마약을 구하러 다니지만, 마리온은 아이처럼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일체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마리온은 상상계에 머물러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문기의 쾌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후반부에 리틀존의 권유로 향락 파티에서 Ass to ass 즉 항문간 성교를 하게 되는 것에서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항문기 쾌락에 대한 모티브는 새라골드팝이 즐겨보는 태피 티본스 쇼의 진행자 태피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태피는 포르투갈어로 tefe [테피] 항문, 음문 이라는 뜻으로 이어진다. TV쇼에서 반복해서 “ 태피와 신나게”라는 어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항문적 단계는 진화과정의 필연적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어린이의 구순적, 항문적 수준에 고착하는 성인은 병든 것으로 보았다.

타이론은 어머니를 결핍한 상태로 계속해서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듯한 셔레이드를 자주 보여준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필수적인 존재인데, 에리히프롬은 아버지와 다르게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어머니는 자연이고 대지이고 대양이라고 하였다. 또한 갓난아이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8)] 아버지가 권위를 통해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

7) 에리히프롬,「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2006, 119~120쪽
8) 에리히프롬,「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2006, 64쪽

나 무력감을 조장하지 않게 만든다. 이런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의 타이론은 여자친구 와의 신체적 합일을 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에 대한 결핍을 어떤 욕구로도 채우지 못하고, 마약에 의한 도취적인 합일로서 해결한다.

3.2 창조적 활동

앞서 말했듯이 에리히 프롬은 합일을 이루는 몇몇 방법 중 '창조적 활동'을 이야기 했다. 꼭 예술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에 속한다.

> **합일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은 '창조적 활동'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이든, 직공의 창조적 활동이든-이다. 어떤 종류의 창조적 작업이든 창조하는 자는 외부 세계를 나타내는 자료와 결합한다. 목공이 책상을 만들든, 금세 공인이 보석 조각에 가공을 하든, 농부가 곡식을 기르든,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서 일하는 자와 그 대상은 하나가 되고 인간은 창조 과정에서 세계와 결합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적인 일, 곧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내 작업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에만 해당된다.[9]**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할 때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어 몰두하는 것을 창조적 활동에 의한 합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에서는 마리온에 의해 이 내용이 들어나는데, 그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영화 전반부에 걸쳐서 잡지를 찢어 종이에 붙이는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그녀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다면 어째서 마리온의 창조적 활동에 의한 활동은 완전한 합일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프로이트는 창조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생산적인 일 곧,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내 작업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에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마리온의 창조적 활동은, 생산적 활동이라 할 수 없고,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에 불과한 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마리온은 합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4장 결론

본 고는 영화 <Requiem For a Dream>이 어떻게 여러 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2장에서는 스타일적 요소를 통해서 영화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 졌다고 해석해 보았다. 3장에서는 에리히프롬의「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영화를 해석해 보았다. 2장에서는 영화 제목에서의 Dream이 아메리칸 드림의 모티브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했고, 영화의 주제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3장에서는「사랑의 기술」와 <Requiem For a Dream>을 비교분석하여 전반적으로는 분리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류가 가지는 합일의 여러 단계 등을 살펴보고, 도취적 합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이렇듯 영화 <Requiem For a Dream>을 통해서 매체들 간에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화는 문학이 상상의 지평을 구현하는 방법을 차용해 서사 예술의 범주내로 진입하고, 영화적 표현 수단의 근본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때문에 영화는 문학을

9) 에리히프롬,「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2006, 34쪽

원전으로 삼아 끊임없이 각색되고 있다.[10)]

영화의 원전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또한 영화 감상에서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보느냐 에 따라 다른 원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에서 보듯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감독의 의도나 감독의 작품 설명은 일종의 속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는 감독이 내주는 영화라는 원전 텍스트를 보고 저마다의 배경과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한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0) 진성희, 張愛玲 소설과 화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09년, 246쪽

모래 속으로 사라진 현대인들의 꿈

-"모래의 여자"에 대하여

인문학부 20171114

홍주빈

<모래의 여자>는 일본의 유명 소설가 아베 고보의 동명 소설 "모래의 여자"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1964년 제작된 영화로 아베 고보가 직접 각본을 썼고 데시가라 히로시가 감독을 맡았다. 소설 "모래의 여자"는 1962년 출간되었으며 이 소설로 인해 아베 고보는 전 세계적 작가가 되었다. 뉴욕 타임즈 선정 세계 10대 문제 작가로 지목되었으며 요미우리 문학상, 프랑스 최우수 외국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영화화된 <모래의 여자>는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칸 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모래의 여자>의 시작은 남자 주인공이 희귀한 곤충을 찾아 사막을 다니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그의 꿈은 곤충을 발견해 자신의 이름을 붙여 곤충 도감에 이름이 실리는 것이다. 그는 차편이 끊겨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래 구덩이 안에 있는 과부의 허름한 집에서 자게 된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보니 내려올 때 있었던 사다리는 사라지고 남자는 탈출할 방법을 찾지만 끝없이 미끄러지는 모래 구덩이 안에서 좌절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모래를 파주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그는 일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일을 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물과 식량을 주지 않아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된다. 계속해서 탈출하려던 주인공은 까마귀를 통해 구조 요청 편지를 보내려고 덫을 만들다가 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한다. 더 이상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을 매우 기뻐한다. 그러던 도중 과부가 임신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 의해 구덩이를 나가게 된다. 그러나 그는 탈출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종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결국 사망으로 처리가 되며 끝이 난다.

내가 처음 이 영화를 접하게 된 것은 어느 책의 한 문단에서였다. 허지웅의 "나의 친애하는 적"의 한 문단이었다. 처음 <모래의 여자>에 대한 줄거리 소개를 하였는데 그 스토리가 가히 충격적이었다. 처음 읽으면 당연히 주인공이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주인공의 상황도 이해가 간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속절없는 현실에 의해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접하여 보았다. 과연 이 작가는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이 영화를 두 번, 세 번씩 보며 내가 느낀 것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나는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적응하고 무너지는 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감독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몇 번 더 보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가 현대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주인공은 꿈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인공은 모래 구덩이에 잡혀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고 과부와 사랑을 나누고 모래 구덩이 속에서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꿈을 잊는다. 아니 자기 자신을 잊는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 앞에 모래 구덩이가 우리를 가둔다. 현대 사회에서의 구덩이는 틀에 박힌 삶과 그것을 따라가는 아이들. 남들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남들이 다니는 학원을 가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살아가면서 점차 꿈보다는 돈을 추구하게 되는 삶이 바로 모래 구덩이가 아닐까. 처음에는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꿈을 놓지 않고 빠져 나오려고 시

도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에 계속되는 반대에 점차 모래 구덩이에서의 삶을 받아 들이기 시작한다. 의미 없이 모래만 파는 그런 삶을. 결국 그 삶 안에서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게 된다. 나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삶을 강렬히 비판하고 있다고 느꼈다. 모두 이 주인공의 선택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왜 자유를 찾아가지 않는가. 왜 기회가 있음에도 탈출하지 않는가. 왜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를 다들 들었다. 이 우화가 왜 지금까지 오래 읽힐까. 간결하면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로 작가는 이 점을 생각해 단지 모래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로 현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꿈들은 다 어디에 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더 이상 탈출하지 않는가. 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러한 느낌을 받는 소재들이 많이 등장한다. 나는 이 소재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우선 모래이다. 제목에서부터 <모래의 여자>이다. 이 모래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핵심 요소이다. 우선 모래는 사막을 연상한다. 매우 더우며 생명이 쉽게 존재하지 않고 물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막은 부정적인 장소이다. 주인공이 갇히게 되는 것도 모래 구덩이이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며 주인공과 과부를 위협하는 모래이기도 하며 단단하지 못하고 쉽게 흘러내리는 모래의 특성으로 주인공이 계속 탈출하는 것에 실패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모래는 주인공에게 시련이자 장애물이다. 그런가 하면 모래는 돈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인공이 노동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바치며 마을 사람들은 그것으로 돈을 번다. 현대인들이 꿈을 잃게 되는 주된 요인은 돈 문제이다. 이것을 모래에 비유해 주인공이 모래 구덩이에 갇혀 못나오고 결국 모래 구덩이 속에서 단순한 노동을 하며 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장면이 바로 돈 문제로 점차 꿈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래를 파는 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벌레는 주인공의 꿈이다. 어렸을 때는 흔히들 곤충학자, 교사, 우주 비행사, 경찰, 연애인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의 꿈을 꾼다. 주인공의 꿈은 새로운 곤충을 발견해 곤충도감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래 구덩이에 처음 빠졌을 때 곤충도감과 곤충 표본들을 매우 아끼며 시간이 남을 때 그들을 계속 연구한다. 그러나 후에 그가 점차 모래 구덩이 생활에 적응하면서 더 이상 곤충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과부가 일거리들을 담을 통이 없어지자 자신의 곤충 표본들을 모조리 버리고 통을 그녀에게 준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이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버리는 순간이자 현실에 타협하는 순간이라고 느꼈다. 이 장면 이후로 주인공은 더 이상 곤충도감이나 곤충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각자 원하는 꿈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가 점차 이 꿈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각자 원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점차 자신의 꿈에는 흥미를 잃고 그저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진정 자신이 원하던 삶일까에 대해 벌레를 버리던 주인공의 모습에서 질문을 던진다. 또한 벌레는 복선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초반부에 주인공이 벌레들을 채집한다. 그 벌레들은 필사적으로 나가보려 하지만 실패한다. 이런 벌레의 모습이 후에 주인공의 모습과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개미지옥은 주인공이 모래 구덩이에 빠져 못나오는 상황을 표현한다. 개미지옥은 구덩이를 파서 개미가 그곳에 빠지게 한 다음 힘이 빠져 결국 구덩이 맨 아래까지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먹는 벌레이다. 개미

지옥에게 당하는 개미의 모습 또한 주인공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세 번째, 과부는 주인공을 모래 구덩이로부터 못 떠나게 하는 인물이다. 과부도 사실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모래 구덩이에 갇힌 신세이다. 그녀는 이미 남편과 자식을 모래 폭풍으로 인해 잃었다. 영화 중간에는 마치 마을 사람같이 행동하고 생각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비추어 진다. 그녀는 이미 모래 구덩이 속의 삶에 적응하고 그에게 모래 구덩이 속의 삶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과부는 맨몸으로 주인공의 주의를 끌고 탈출하려고 할 때 관계를 맺으며 주인공을 점차 끌어들이며 구덩이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은 사람들의 생각을 점차 갉아 먹는다. 지금 길거리를 걸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하고 있다. 또한 피씨방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수많은 학생과 어른들이 이곳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게임을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저 주어지는 삶에만 헌신하게 된다. 바로 이런 모습이 모래 구덩이에서 모래를 파는 주인공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모래 구덩이에서 모래를 파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안다. 왜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과부와의 관계이다. 주인공은 그녀를 사랑하면서 점차 그 삶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게임과 스마트폰을 하면서 삶에 적응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찾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구덩이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네 번째, 마을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회 최상위 계층이라고 느꼈다.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 끌어들이는 것이다. 최근에 터진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건만 봐도 그렇다. 그들은 우리를 모래 구덩이로 집어넣고 이득을 본다. 영화 내에서도 그들은 주인공과 과부가 열심히 퍼낸 모래를 불법적으로 팔아 돈을 얻는다. 그리고 식량과 물을 주면서 마치 구세주인듯 행동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고용주들이 사기를 치거나 함부로 대한다.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는 끊임없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또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바다를 잠깐 보고 싶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과부와 해보라고 한다. 이 장면이 바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부는 마을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들의 재미를 보는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도 돈으로 이 경계가 갈라진다. 돈이 없는 자들은 구덩이 아래에서 모래를 계속해서 파며 돈이 많은 자들은 구덩이 위에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조롱한다.

다섯 번째로 영화 중간에 나의 눈길을 끈 한 등장인물이 있다. 바로 과부가 임신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주인공은 바다에 갔다가 다시 한번 그의 물탱크를 확인하면서 물에 한 아이가 비추어 진다. 주인공은 그를 한번 쳐다본다. 과연 잠깐 등장한 그 아이는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그 아이에서 왜인지 어린 왕자가 떠올랐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 또한 꿈을 버리고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비판을 한다.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른들과 그 사이에서 빛나는 어린 왕자. 바로 그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아이는 꿈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자주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모래 구덩이에 빠지기 전, 그리고 빠지고 난 직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갈 수록 모든 것을 지리, 산술, 역사, 문법으로 판단하는 꿈이 없는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 바로 주인공이 모래 구덩이의 삶에 완전히 적응해가는 그 시점에서 어린 아이를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는 더 이상은 꿈을 쫓지 못하는

주인공을 처다 보며 안타까워 하는 시선을 느꼈다. 주인공은 아이에게라도 물탱크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하지만 바로 도망간다. 아이는 왜 등장해서 왜 바로 도망가는 것일까. 꿈을 가진 존재인 아이는 모래 구덩이에서의 삶을 적응한 주인공에게서부터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 아이를 보는 것도 출렁이는 물에 비친 희미한 모습이었다. 바로 그것이 이젠 꿈을 잃어버린 주인공에 대한 애도가 아니었을까.

여섯 번째,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대사와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등장한다. "살아가는데는 아주 많은 증명서가 필요하다. 계약서, 자격증, 주민등록증, 권리증, 확인서, 등록증, 조합원증, 추천서, 임시 허가증, 동의서, 수입 증명서. 더 없나? 기억 못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대체로 실수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 한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다. 그 생각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는 끝이 없다. 내가 너무 따진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 대사와 동시에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점차 페이드인 되며 등장해 걸어 다니다가 주인공의 주위에 앉는다. 나는 이 대사에서 바로 영화가 현대 사회를 지적하고 있다고 느꼈다. 영화의 시작부분에 나오는 대사는 대체로 그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넣는 것이 대부분이다. 살아가면서 많은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대사와 주인공이 누워서 모래를 만지는 행동은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대사들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이 대사들은 명백히 사회를 지적하고 있다. 많은 증명서들은 복잡해진 현대인들의 삶과 쓸데없는 형식들을 뜻한다. 그리고 그 다음 대사를 통해 현대인들이 모래 구덩이를 나가는데 두려워 하는 아니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도쿄를 연상하게 하는 흰 드레스를 입은 도시적인 여자가 등장한다. 그녀가 등장하고 주위에 계속 있음에도 그녀와 대화 한 마디 없고 쳐다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주인공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일 것이다. 아마 그녀는 주인공에게 중요하고 도시를 아니 도쿄를 연상하게 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은 모래 구덩이에 빠져 과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도쿄와 많이 비교를 한다. 주인공에게 모래 구덩이와 도쿄는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사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하고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 이것은 비판하려는 현대인들을 뜻하면서도 모래 구덩이에서의 삶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처음과 후반에서 바다가 등장한다. 처음에 곤충을 관찰하기 위해 사막에 온 주인공은 잠시 바다를 보며 숨을 거칠게 내쉰다. 이후 주인공은 중간에 너무 답답하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를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탈출을 할 수 있었을 때도 바다를 보러 갔다가 이내 다시 돌아온다. 바다는 벌레와 같이 그에게 꿈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미지이다. 바다는 그래도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소박한 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벌레가 경찰관 같은 꿈이라면 바다는 정의를 지키는 모습, 그런 차이이다. 그래도 현대인들이 아직 놓지 못하는 그런 꿈이다. 주인공도 벌레는 결국 버리지만 바다는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하려고도 하고 그가 탈출하고도 처음 가는 곳이 바로 바다이다. 그만큼 주인공이 잊지 못하는 그런 원초적인 꿈인 것이다.

작가는 이 영화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주인공처럼 모래 구덩이에 빠져 그 안에서의 삶은 순응하고 기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아무리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결국 영화에서처럼 기회는 온다. 주인공이 만약 계속해서 탈출을 꿈꾸고 있었더라면 과연 그는 탈출하지 못하였을까? 단지 모래 구덩이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계속 그 안에 머무를 것인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생각한다. 주인공이 매우 멍청하고 답답하다고. 그러나 그 모습이 현대인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 영화는 1964년도 작품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2017년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이 충격을 준다. 꿈을 잃고 단순 노동에 찌들어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럼에도 자신이 모래 구덩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작가는 외친다. 계속 모래 구덩이 속의 그 사람으로 살 것이냐고.

명량

국어국문학과 20161078
이혜원

Ⅰ.서론

<명량>은 2014년 7월 30일에 개봉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개봉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었다.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항상 인상적인 연기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최민식이라는 대배우의 출연과 그의 뒤를 받쳐주는 또 다른 '흥행 보증 수표'인 류승룡과 조진웅, 이는 이미 <명량>이라는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것을 보증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2011년, 치열한 영화시장에서 성공을 거머쥐었던 영화 <최종병기 활>의 감독인 김한민의 기획력 역시 영화의 성공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결국 <명량>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의 결과로 <명량>은 현재 누적 관객수 17,615,057명으로 역대 1위의 위치에 있는 최고 흥행작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량이라는 이 영화를 굉장한 수작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영화가 과연 완전히 훌륭한 영화였는가, 혹시 개봉한 시기의 상황 덕을 본 것은 아닐까, 해서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Ⅱ. 비판적 고찰

1. 왜 <명량>인가?

필자는 이 영화가 훌륭한 영화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만 영화를 보면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우선 이 파트에서는 <명량>의 제목이 굳이 명량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명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명량대첩이 맞다.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명량대첩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영화가 <명량>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든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전반부 1시간은 명량대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전반부에는 실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고 후반부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강하게 얘기하자면 전반부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만큼 미흡했다는 것이다. 전반부 전체를 인물들의 소개로 사용한 것 같다. 일본 장군들과 이순신의 상황과 고뇌에 대한 전개가 전부였다. 감독이 후반부에 나올 명량대첩 전투 장면에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었던 거라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전반부가 그 후반부의 본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기엔 전반부에 소개되는 인물들이 후반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미비하다.

이 영화는 전반부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명량대첩의 전투 장면이 나온다. 감독은 앞의 전반부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만약 앞의 전반부 역시 꼭 필요한 장면들이었다면,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삽입했던 것이라면 차라리 그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심리를 자세하게 묘사해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내면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명량대첩의 장면이 관객들의 뇌리에 깊게 세겨질 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목 자체가 <명량>이 되어버리면 후반부의 짧은 영상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전반부의 장면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이럴 경우 앞의 장면이 영화 상영시간을 채우기 위해, 이순신의 유명한 어록들을 등장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2. 이순신의 지나친 영웅화

사실 이순신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영웅이긴 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명량해전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인물들을 도구로써 사용했다. 이와 함께 필자는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필자는 이순신이 완벽한 리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순신은 항상 완벽하고 치밀한 준비로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발휘한 장군이다. 그러나 그가 영화에서 그린 것처럼 완전한 리더인지는 의문이 간다.

명량해전은 조선 배 12척과 일본 배 133척이 붙어 다소 무리가 있는 전투였다. 아무리 이순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투는 꽤나 무모했고 병사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의 대전투 전의 두려움 속에 한 병사는 탈영을 시도한다. 그러나 곧 이순신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이순신은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친다. 그 병사는 마지막에 항변을 하고자 했으나 이순신은 그가 짧은 말을 하자마자 '할 말일 끝났냐'며 죽이고 만 것이다. 그러곤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하면 살 것이다.'라는 명대사를 내뱉는다. 이는 전투 전에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의 기운을 북돋아 준 행동이라고 관객들은 판단했을 것이다. 이순신의 카리스마에 매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병사들의 전의를 띄우는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인간이 어떤 두려움의 앞에 서있을 때, 그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두려움으로 전자의 두려움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필자는 이순신이 한 것처럼 형벌로써 적에 대한 두려움을 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훌륭한 지도자의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적당한 행위였으며 이순신의 리더쉽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했고, 필자는 이 장면이 이순신의 영웅성을 나타낸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부분을 보고 이순신의 명대사를 삽입하기 위한 무리한 장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순신은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명량해전은 무리니 돌아오라는 조정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대첩은 성공적이었으나 그의 고집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이순신이 소통을 하지 않는 리더라고 판단한 부분은 여기가 아니다. 영화 중에서 한 병사가 작전에 대해 묻지만 이순신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한다. 앞서 보았듯이 병사들은 일본과의 무리한 전투를 앞두고 큰 부담감과 두려움에 힘들어했을 것이다. 진정한 리더라면 그들의 전의를 북돋기 위해 생명을 앗아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 보다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고 곧 있을 전투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가 평소 진중하고 과묵한 성격인 것은 알겠으나, 병사들의 질문에도 소통하지 않고 홀로 판단하는 것은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3. 다른 인물들의 역할

한 인물의 능력이 더 부각되기 위해서는 그와 적대관계에 있는 인물의 역할이 꽤나 중요하다. 그 적대적인 인물의 능력이 주인공과 비슷하고 둘의 대결이 막상막하로 이루어지다가 주인공의 승리로 대결이 끝났을 때, 주인공의 능력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량>에서는 이순신 외의 다른 인물들이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기억에 남는 조연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분량도 이순신을 연기한 최민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일본 장군이 그에게 대적할 최고의 적군이긴 했다. 그러나 그들의 분량은 너무나 적었고, 그들이 이순신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후반부의 일본군은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죽는다.

심지어 조진웅이 연기한 와키자카는 영화 중에서 '이순신은 내가 가장 죽이고 싶은 자이며 가장 싫어하는 자이고 내가 가장 저주하는 자이지만, 가장 술을 함께 나누고 싶은 자이며, 가장 좋아하는 자이고, 가장 만나고 싶은 자이다.'라며 이순신을 그를 존경한다는 말을 한다. 이순신의 최대의 적이 그를 좋아한다고 표현한다면 관객들에게 일본군의 위력과 힘을 보여줄 수 없다. 관객들은 당연히 일본군은 약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긴장감을 조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순신을 대적할만한 적당한 인물의 부재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이순신의 능력이 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부분 때문에 이순신의 영웅성이 묻히게 되니 다른 영역에서 그의 능력을 칭송해 영화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만약 영화의 전반에서 일본군과 이순신의 대립에 대해 더 극적으로 드러내고 일본군이 이순신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는 장면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영역에서 이순신을 영웅화시키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순신의 아들인 이회 역시 부친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회가 만약 아버지를 존경하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무모한 결단에 불안해하며 저항하는 캐릭터로 더 부각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무도 이순신의 앞길을 막지 않는 영화의 장치 속에서 그나마 이회라도 이순신의 발목을 잡고 시련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의 위대함만을 살리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대로 이회의 캐릭터는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다. 그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하고 이순신의 심리를 보여주는 도구로만 이용되었을 뿐이다.

Ⅲ. 흥행 성공의 비결

1. 훌륭한 액션 영화

<명량>은 전반부에는 명량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이순신에 대한 경외 정도로만 그쳐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이 영화의 재미를 느낄 만한 부분은 명량해전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후반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전투 장면이 관객들에게 시시하게 느껴졌다면 이 영화는 누적 관객 수 역대 1위라는 기록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후반부에서 나오는 액션 장면들이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관객들의 지루함을 달래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파도와, 배들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교하고 실제감있게 그려졌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겁을 먹어 이순신 혼자 싸우는 장면에 절로 긴장되었을 것이다. 일본 수장과의 결투가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났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한 액션 장면들이 영화의 미흡한 점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2. 개봉 당시의 사회

영화 <명량>이 개봉되었던 당시는 2014년 7월이다. 우리 모두 2014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2014년은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폭풍으로 혼란스러웠던 해이다. 심지어 그 해 7월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의 회장인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된 달이다.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월호라는 키워드는 사회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국민들은 리더의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

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 책임감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이다. 그 당시의 리더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진정한'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도중에 <명량>이 개봉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훌륭하고 완전한 지도자로 나타내었다. 일본과의 무모한 전투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결국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현실에서 부재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에 환멸을 느끼던 국민들이 영화를 통해 제대로 된 리더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대리만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도는 일본이 군사주의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명량>에서는 그런 일본과 대결하고, 일본인이 이순신에 존경을 표하고, 전투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일본에 대해 간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가슴 속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이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기존의 전쟁 영화에서는 군사들의 모습을 주로 다루곤 했다. 그러나 <명량>에서는 백성들이 이순신을 도우며 두려움과 현실에 맞서 전쟁의 성공에 도움을 준다. 이순신이 자신의 능력과 함께 백성을 중시하며 그들과 고난에 대응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2014년은 다사다난한 해였기 때문에 백성의 힘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하는 것에 관객들은 영화 속 백성에 그들을 대입해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는 결국 관객들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닌 용기있는 백성, 그를 아끼는 리더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명량>을 좋은 영화라고 판단했다고 본다.

Ⅳ.결론

<명량>은 흥행에 성공했고, 국민들의 대리만족을 해줬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결코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완벽한 영화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영화의 후반부가 하이라이트였다고 해도 전반부는 관객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고,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가 군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은 맞으나, 그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적절한 인물의 부재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순신에 반하는 인물의 능력이 조금 더 부각되었다면 영화의 완성도가 더 살아났을 것 같다. 명량해전의 화려한 액션은 시선을 사로잡을 만하나, 전반부의 미흡함에서 비롯되는 영화 전체의 결함은 차마 가려내지 못했다. 영화 후반부의 액션 장면들이 너무나 황홀했었기 때문에 전반부의 내용이 후반부 만큼이나 매력적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영화이다.

서사가 갖는 힘, 아이 캔 스피크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Ⅰ. 서론

ⅰ. 영화 선정 이유

‘아이 캔 스피크’를 비평할 영화로 가져온 이유는 이 영화가 기존의 시도들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얘기될 부분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영화가 한국의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를 소재로 하고 있다. 실제 역사를 영화화하는 작업, ‘위안부’를 다루는 영화를 만드는 시도는 꽤 있었다.

크라운드 펀딩으로 제작되었던 ‘귀향’이 그랬고, 단편 드라마에서 영화로 제작됐던 ‘눈길’이 그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 캔 스피크’가 소재 면에서 색다른 시도를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 사람들에게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는 이색적인 소재가 아니고, 특히나 ‘위안부’는 꽤 많은 영화에서 그려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도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서사에 있다. 서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른 위안부 소재들의 영화들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 영화는 서사를 가진 구체적인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실제 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 그 중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이다. 아직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어서이기도 하고, 편벽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경계해서인지 많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영화들은 그 시대적 배경을 영화의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시대를 사는 인물을 구현해서 그 시대 전체를 재현하는 식으로 영화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교적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

‘위안부’를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장면은 ‘옥분’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아주 잠깐 등장할 뿐이다.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계속 2000년대를 사는 ‘옥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과거의 ‘옥분’의 불행보다는 현재를 사는 ‘옥분’의 모습을 더 많이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안부 영화의 소재로 설정해놓고 그 소재를 성실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와 같은 현실을 사는 구체적인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이 인물이 겪은 불행은 관객과 아주 먼 얘기가 아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객들 머릿속에 단순히 ‘위안부’라는 역사적 불행이라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개인이 자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안부’를 다루는 많은 영화들은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했다. 하지만 ‘아이 캔 스피크’는 역사적 사실보다 개인이 당한 불행, 그 개인이 가지는 서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영화가 가지는 특이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더 공감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이끌어낸다. 그것이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이다.

Ⅱ. 본론

ⅰ. 영화에서 드러나는 서사, 시나리오와 인물을 중심으로

- **시나리오**

모든 예술 작품에서 ‘서사’는 참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 서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는 사람의 집중하는 정도와 공감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화의 시작도 시나리오, 즉 글에서 시작하는 작업이다. 영화 역시 소설과 시와 같이 글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업이니만큼 것이니만큼 서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필요는 없는듯하다.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 ‘위안부’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 영화가 ‘위안부’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보면 그 장르가 가족 영화인가 생각될 정도다.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소재인 ‘위안부’는 그렇게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중반부가 넘어서야 그 모습을 조금 드러낸다. 이러한 서사 구조를 취하는 것을 보면 감독이 그렇게 서사 구조를 배치한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서사구조를 배치한 이유는 이 인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영화를 통해 비극적인 역사의 한 부분인 ‘위안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겪은 개인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구조에서 이 영화에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드러난다. 영화에서 주되게 얘기하고,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 비극을 겪은 개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였던 일본의 만행, ‘위안부’ 그 역사적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교과서에도 ‘위안부’ 관련 얘기가 설명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인은? 우리는 그 비극적인 일을 감내해야 했던 개인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당면한 국제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여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다.

‘위안부’를 다루는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모든 영상 콘텐츠들이 할머니들이 그 당시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 그려내기 바쁘다. 그런 시도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시도들도 가치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비극을 겪은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의 서사가 갖는 의의는 충분해 보인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에서 드러난 서사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역사적 불행으로만 그려졌던 ‘위안부’라는 소재를 영화 안의 인물인 ‘옥분’이라는 인물 개인이 겪은 비극이자 불행으로 옮겨 오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옥분’, 개인의 불행에 공감하게 된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시나리오의 서사가 의도하는 대로 영화를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건보다 그 불행을 겪은 ‘옥분’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시 말해, 이는 시나리오의 서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옥분’이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효과이다. 영화의 초반부에 그녀가 위안부 피해자인 사실은 드러내지 않은 채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데 집중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 **옥분**

이 영화에는 주된 인물은 두 명이다. ‘옥분’과 ‘민재’가 그 둘인데 먼저 ‘옥분’이라는 인물부

터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옥분’은 ‘위안부’라는 역사적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지만 영화 초반부에서부터 그 얘기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초반부에 ‘옥분’이라는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아주 꼬장꼬장하고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할머니로 묘사된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주되게 풀어가야 가는 인물을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옥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명진구 온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주변의 부정을 신고한다. 대단한 부정을 신고하는 것도 아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배달부, 입간판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영업자.....등 평범한 우리들을 고발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니 영화 초반에 이 인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이 인물을 현실감을 갖게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변에는 기품 있고 우아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조금은 억척스럽고 어떨 때는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인물이 현실감을 갖게 하는 요소는 하나 더 있다. ‘옥분’은 자신이 위안부에 끌려갔던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싶어 한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는 아주 당연히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개인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몫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가 가능한 이유는 ‘위안부’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2017년 현재에 위안부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했고, 정당한 사과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처음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 영화는 ‘옥분’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일들까지도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옥분’이라는 구체적인 개인을 설정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돌아왔지만 집에서는 아들, 동생의 혼삿길이 막힌다며 ‘옥분’이 당한 일을 숨기기 바빴다. 그 과정에서 ‘옥분’은 자신이 당한 일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게 된다. 그 결과 나라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도 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개인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권을 온전히 회복한 뒤에도 피해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설움은 영화의 한 장면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같은 위안부 피해자인 ‘정심’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정심’은 위안소에서 죽음을 결심했던 ‘옥분’을 살려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 인물이 치매를 앓게 되고 자신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살고자 했던 ‘옥분’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면서 자신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망신스러워하고 아들 앞길 막힐까봐 전전긍긍 쉬쉬하고.....
불쌍한 내 새끼, 욕 봤다, 욕 봤어. 한 마디만 해 주고 가지. 그러고 가지.”

여기서 ‘옥분’이라는 인물에게 상처를 준 주체가 누구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라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롯이 개인이 이 문제를 떠안아야 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화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위안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함을 확인시켜준다.

- **민재**

사실 이 영화에서 '민재'라는 인물은 영화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아니다.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위안부 청문회에서 '옥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기는 했다. 하지만 이 인물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다. 그런 부분에서 보고자 한다면 이 역할이 가지는 서사에 대해 논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얘기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던 서사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에서는 남성 중심적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영화와는 반대의 서사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은 남성의 몫이다. 그런 일반적인 서사구조가 있음에도 이 영화의 경우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먼저, 이 영화가 '위안부'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재'라는 남성 캐릭터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그 사건의 당사자인 '옥분'이 자신의 문제를 타개해나가는 설정은 현명했다.

위안부를 다루는 다른 여타의 영화들과 달리 '아이 캔 스피크'는 그 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영화가 '위안부'라는 소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관건이 되는 부분은 소재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만약에 '민재'라는 인물이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옥분' 대신에 뭔가를 해결하는 서사를 취했다면 평은 달라졌을 것이다.

우선, '위안부'라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난 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지 않은 의도부터 좋은 평을 받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영화의 본질을 흐리게 됐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화가 가지는 특이점인 '위안부'라는 역사적 비극을 개인의 문제로 옮겨왔다는 평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영화의 시간적 배경부터 해서, '위안부'라는 소재가 중반부 넘어서야 등장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시도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참신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옥분'말고 다른 인물들이 갖는 비중이 적절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민재'가 가지는 서사는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배치였다고 여겨진다.

ⅱ. '대사'로 전해지는 현 세대가 들어야 할 말

'아이 캔 스피크'의 대사에는 여러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많다. 더불어 2017년을 살고 있는 세대들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한다. 구체적인 인물을 설정해 그 인물이 내뱉는 대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신을 돌아보게끔 한다. 또,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는다. 얘기 될 필요가 있는 많은 대사들 중에 두 개를 꼽아 분석하려 한다.

"이게 바로 공무원 시행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면피. 책임지지 않는다."

이 대사는 재개발을 하려는 건물주와 그걸 막으려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상황에서 구청 공

무원이 한 말이다. 구청장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 줄 필요도 있고, 구청장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이 질 게 빤히 보이는 소송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눈속임을 하려고 한다.

이 대사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두고 현실적 해결은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고 외면하기에 급급한 세태를 꼬집고 있다.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위안부'이니만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위안부'는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소녀들은 낯선 곳에 끌려가서 철저히 유린당했고, 상처 받아야 했다. '위안부'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고향으로 돌아온 소녀들은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겨야 했고,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여기며 대부분의 소녀들은 결혼을 선택하지도 못했다.

나라는 끌려가는 소녀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소녀들을 보듬어 주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영화에서는 이 대사를 통해 그러한 현실을 꼬집고 있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최소한, 위안부 피해자들 등록을 받고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나라의 역할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나라는 그들을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숨겨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얘기하기 위해 털어놓을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먼저 찾아가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야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나라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다시 역사의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진 많은 문제들을 홀로 감당해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에 재대로 편입할 수도 없었고 가족을 형성하지도 못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과제를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대사는 그런 한국의 현실을 고발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할머니 가족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오셨어. 형, 옥분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위에서 언급한 대사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을 꼬집는 것이었다면 이 대사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를 한 명, 한 명 꼬집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가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제 활동이나 자아실현을 돕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개인들의 태도가 바람직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과거에 비해 '위안부'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해결이 일본의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제이긴 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할 과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현 세대들의 태도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위안부'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제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이 국가적 불행을 개인의 불행으로까지 인식하는 것이다.

이 대사는 바로 '위안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개인이 당했던 폭력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만 한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소녀들이 당한 불행이자, 그들이 돌아와서도 제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인식이 선행됐을 때 그 다음 과제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당한 폭력임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그 개인을 위한 복지와 사회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고, '위안부'를 중심으로 펼쳐질 국제적인 분쟁도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

ⅲ. 아쉬운 점
- 풀다가 만 것 같은 '동생'의 서사

'민재'와 '옥분'의 관계는 영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설정된다. '옥분'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동생과의 대화를 위한 것 말고도 친구인 '정심'을 대신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문제로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초반부에는 '옥분'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를 미국에 입양 간 동생과 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옥분의 동생'이라는 캐릭터를 넣은 것으로 보였는데 영화의 분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 그 동생의 캐릭터를 영화 속에 잘 녹여내서 풀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 '옥분'의 동생은 자신의 누나와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연락하기도 싫다고 했는지, 어떤 계기로 입양을 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위안부 청문회가 있어서 '옥분'은 미국을 방문하다. 여러 번 '옥분'과의 통화를 거절해왔던 동생은 '민재'의 거듭된 부탁으로 LA에서 워싱턴으로 찾아온다. 그렇게 만나게 된 '옥분'과 그 동생이 재회하는 것으로 둘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했다며 포옹을 나누는 것으로 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서사에 있어 흥미 있는 사건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무리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동생에 관한 서사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위안부'를 다루는 작품으로써 '아이 캔 스피크'라는 영화가 가지는 의의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존재했던 여러 편의 '위안부' 영화와는 다른 서사구조를 취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얻어냈고 그 효과로 관객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안부' 얘기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여러 번 말했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신 현실을 사는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줬다. 바로 그것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위안부'를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다음으로 '민재'라는 남성 캐릭터를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시킨 것에 대한 효과를 말해보고

자 한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사건의 당사자인 ‘옥분’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위안부’라는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옆길로 새지 않고 그 소재를 희석시키지 않고 또렷하게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아이 캔 스피크’라는 작품은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위안부’라는 역사적 소재를 영화에 잘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평은 좋은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동생에 관한 이야기 풀이가 조금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훌륭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로 보인다.

곡성

인문학부 20171001
강원모

“절대 현혹되지 마라." "미끼를 물었다." 위의 두 문장은 영화 '곡성'의 포스터 문구이다. 영화 포스터는 첫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극 중 영화를 보면서 낚시를 하는 장면이나 의심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 걸로 봐서 포스터의 문구는 영화의 사건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객을 몰입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곡성의 장르는 오컬트 무비이다. 오컬트 무비는 '신비주의', '초자연주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호러 영화를 말한다. 오컬트는 악마와 성서가 자주 등장하는데 <로즈마리베이비:악마의 씨>가 원조로 <오멘>, <엑소시스트>, <사탄의 인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영화들은 악마를 숭배하는 사교집단과 기독교 집단의 대치를 그리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분석과 형이상학적 소재를 통해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주고, 또 악마에 대한 믿음을 통해 공포감을 준다. 모든 호러 장르 중 가장 진지하고 많은 공포감을 준다. 살상무기는 '염력'으로 사람을 내동댕이치거나 여러 물건을 움직여 구타한다. 곡성 역시 기독교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다. “영화 첫 장면에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7~39절 말씀이다. 영화의 시작을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 관한 영화라 자칫 오해를 했었지만 무속인이 나오고 굿을 하는 등 한국의 토속적인 민간신앙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핵심키워드인 ‘의심’이라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위해 인용한 글귀라 생각하였다.

곡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서술을 하면 낯선 외지인(쿠니무라 준)이 나타난 후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 사건들로 마을이 발칵 뒤집힌다. 경찰은 집단 야생 버섯 중독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지만 모든 사건의 원인이 그 외지인 때문이라는 소문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 경찰 ‘종구’(곽도원)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여인 ‘무명’(천우희)을 만나면서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확신하기 시작한다. 딸 ‘효진’(김환희)이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상으로 아파오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종구’. 외지인을 찾아 난동을 부리고, 무속인 ‘일광’(황정민)을 불러들이며 굿을 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효진의 상태는 더욱 더 악화되고 종구는 친구들과 함께 외지인을 찾아가 외지인을 죽인다. 외지인을 죽임으로서 효진의 상태가 나아졌지만 퇴원을 하고 일광은 종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명의 효진이를 아프게 한 귀신이라 하고 종구를 혼란스럽게 한다. 무명을 자신을 믿어달라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집에 가지 말라고 종구에게 말하지만 종구는 결국 무명을 믿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 효진이가 아내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 또한 칼에 찔려 죽을 맞이하게 된다. 일광이 집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영화는 마무리가 된다.

이 영화는 총 4명의 중심인물이 있다. 그 인물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인물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주인공인 종구는 곡성에 사는 평범한 경찰관이다.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이다. 자신에게 정확한 지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사건현장에서도 거리를 유지하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파출소에서도 차단기가 내려가고, 신원미상의 나체여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국과수의 결과 즉 독버섯의 의한 중독 및 환각에 믿음을 가지며 사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범했던

딸이 이상해지면서 본격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 딸이 위험에 처하면 물불을 안가리고 달려드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종구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로 보이지만 적어도 한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무명과 종구 사이를 갈라놓은 무속인 일광은 처음에는 효진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선한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지인과 손을 잡은 하수인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종구가 일광 집에 찾아 갔을 때 일광은 일본 속옷인 훈도시를 입고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일본인인 외지인과 한패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다. 또한 외지인이 태웠다고 하는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종구의 가족들을 카메라로 찍는 장면을 보고 확신을 가졌다. 일광은 외지인을 도와주면서 무명과 종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사람이다. 만약 장모가 일광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장모 또한 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무명은 곡성에 토속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에서도 말 했듯이 무명이라는 원죄에 속하지 않은 즉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종구에게 딸 효진이를 지켜주고 외지인과 대립되는 역할을 한다. 종구 역시 외지인이 악인지 무명이 악인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외지인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이다. 그의 정체는 악마이다. 악마는 불안과 의심을 먹고 성장한다. 시체의 사진을 수집하고 사람의 공포로 힘을 키워간다. 종구가 처음부터 의심을 한 사람이었고 외지인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을 하였지만 효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에 다시 부활을 하였으며 사제를 죽이면서 자신이 악마임을 증명을 하였다.

영화 곡성은 많은 복선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반전 요소 또한 가자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필자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1.영화 첫 부분에서 외지인의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장면 “미끼를 물었다.”라는 영화 포스터를 연상시킨다. 이 장면은 후에 종구와 효진이가 강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건너편의 외지인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 장면을 통해 효진이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고 생각한다.

2.무명이 종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접근 하는 장면이 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무명이 돌을 던지는 것으로 봤을 때 무명은 죄가 없는 사람 즉 신(절대자)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할머니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신의 대리인 천사라고 볼 수 있지만 영화 배경이 토속적인 것이 많아 그 지역의 토착신 정도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3.효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속인 일광을 부르고 굿을 하는 장면이 있다. 일광이 살을 날리는 장면과 외지인이 굿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일광의 살을 날릴 때마다 외지인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감독이 의도적으로 교차편집을 한 것 같다. 이때 까지만 해도 일광이 외지인을 공격하는 착한 무당인줄 알았다.(필자도 감독의 편집에 현혹 되었다.) 사실 일광은 효진이에게 살을 날리고 있었고 효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지 못한 종구의 방해로 실패 하고 말았다. 그럼 왜 외지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을까? 그건 바로 곡성의 토속신이라고 볼 수 있는 무명의 공격 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면 왜 무명이 외지인을 공격했을까? 외지인은 트럭에서 죽은 박춘배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를 '되살리기 위한(혹은 악마를 그 신체에 소환하기 위한)' 주술을 행한다. 그런데 무명의 방해가 있었고, 외지인의 주술이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트럭을 찾았을 때 일본인이 놀라죠. 엥? 주술이 실패한줄 알았는데 시체가 없어졌네? 이렇게 말이다. 나중에 종구와 친구들을 습격한 이 좀비는 '실패한 주술의 산물' 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4. 딸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외지인을 죽이려고 집에 찾아가서 싸우는 장면이 있다. 외지인은 도망을 쳤고 결국 트럭에 치여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악마라고 주장되는 외지인은 왜 도망을 쳤을까?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2가지가 있다. 외지인이 악마에 빙의 된 상태이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 도망을 쳤다. 종구를 한테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무명한테서 도망을 친 것이다. 필자는 후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지인의 악마에게도 빙의 됬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생각을 말하자면 나홍진 감독님께서 실제로 무명과 외지인의 대결장면이 있었지만 편집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자면 아직 악의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해 살기 위해 도망을 쳤다가 우연히 종구와 친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인간의 몸 바로 외지인의 몸을 잃고 악마 본인이 몸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화 곡성 자체가 악령과 인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지인뿐만 아니라 영화가 끝날 때 까지 무명 또한 인간인지 귀신인지 또는 어떤 선의 존재인지 종구는 알지 못하였으며 계속하면서 의심을 키워드로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이다.

5.무명이 종구에게 ‘앞집의 닭이 세 번 울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인물 중 하나인 베드로(예수의 제자 중 1인)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예수의 가장 충직한 제자였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믿음이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혼란에 빠져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의심'하는 실수를 범한 거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긴다. 만약에 닭이 세 번 울리기 전에 종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은 무명의 신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나홍진 감독의 대답이 흥미롭다. 바로 "아니다"였다. 즉, 종구의 가족들은 감독이 생각하기에도 죽을 운명이었던 것 같아보였다. 그렇다면 무명은 종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왜 종구의 가족은 종구가 무슨 행동을 취하든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일까? 종구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일까? 무명은 대체 왜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남는다.

6. 부제가 악마를(그는 기독교도인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악마라 지칭했습니다. 본인의 종교 신념대로 그를 인식한 것이다.) 맞닥뜨린 장면이다. 처음에 부제가 악마를 맞닥뜨렸을 때, 부제는 확고히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악마다." 필자 그 이후의 대사들이 정말 무서웠다. 정말 악마가 인간을 현혹시킬 때는 이런 식의 수법을 사용하겠구나 싶었다. 대충 대화의 흐름은 이렇다.

외지인: 너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부제: 너는 악마다 외지인: 그래, 너는 확신에 가득차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부제: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라 외지인: 너는 이미 나를 악마라고 의심했고, 그 의심을 확신하러 온 것일 뿐이니, 나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손에 들고 있는 그것(낫)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부제: 네가 악마가 아니라면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바로 이 대목이다.

처음 관람할 때는 단순히 악마가 성경 구절과 손에 만든 성흔으로 부제를 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부제는 처음에 분명 확고한 신념, 확신을 가지고 동굴로 악마(라고 단정지은 외지인)를 찾으러 갔다. 정말 확신이 아닌 이상 감히 오밤중에 혼자 악마를 맞닥뜨릴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외지인은 교묘하게 그의 확신을 깨버렸습니다. 그 확신을 깨

버리는 방법이 무서웠다. 그저 너(부제)의 믿음대로 행하라는 메시지가 다였음에도 부제는 오히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게 소름이 돋았다. 그가 정말 악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실 부제의 나약한 양심을 공격한 것이겠지요. 부제는 눈 앞의 좀비를 목도하고도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감싸다가 공격을 받은 인물이다. 충분히 그가 악마의 꾐에 넘어갈만 한다. 그리고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악마는 힘을 얻어 본색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 구절로 부제를 더욱 의심 시키게 한다. 외지인: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화 첫 시작 장면에 나왔던 누가복음 24장39절의 말을 인용했다.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부제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고 부제는 결국 그런 의심 속에서 악마에게 사로잡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핵심 키워드가 '의심' 이라는 것을 영화 마지막에 보여준다.

이 영화는 상징적인 물건이나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의미들을 알아보자한다.

1.카메라와 사진

나홍진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관객: 외지인이 쓰는 카메라의 의미는? 나홍진: 사진을 찍어 영혼을 담는 뭐 그런 의미다. 카메라는 희생자의 영혼을 담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진을 모으는 행위가 피해자들의 영혼을 모으는 행위와 비슷해 보인다. 그렇기에 외지인은 시체사진들의 모아 자신의 힘을 모았던 것이고 사진을 다 태웠다는 것은 영혼을 다 흡수 했다고 생각을 한다. 일광이 마지막의 종구의 가족들의 사진을 찍는 행동도 그가 외지인과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2.좀비(박춘배)

마을에 여러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도 그 어디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돈 적이 없었다. 그 말인 즉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왜 지금까지는 그 많은 초현실적인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다닌 적은 없었을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종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구가 외지인의 집에서 그의 사당을 박살내고 키우던 개를 죽였을 때, 외지인은 한나절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일본어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 들리던 한 단어가 있었다. "테메"라는 단어다. 이것은 "너 이 자식이..." 뭐 대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외지인은 악마를 모시는 무당인 것 같았다. 인간의 언어도 사용하고 사람같이 보이나, 악마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고라니를 생으로 먹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등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좀비의 상태와 비슷함)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인간이었을 때 악마였을 때 모습을 보여 줌으로 써 관객들을 혼란시키게 하려고 하는 나홍진 감독의 의도가 보인다. 그렇기에 자신은 악마로부터 독립하여 예전의 평범한 인간인 무당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외지인은 마지막 제물이 효진이라고 생각하고 일광의 굿이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박춘배의 시체를 숙주로 악마의 완전한 부활을 꾀하였고, 의식을 시작한다. 의식이 끝날 무렵 외지인은 무명에게 공격을 당하고 가까스로 살아난다. 그리고 의식을 잃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그는 부리나케 자신이 의식을 행한 트럭에서 치여 죽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의식은 사라지고 악마의 의식만 남는 것 같다. 악마의 부활이 실패되고 그 부작용으로 버섯중독의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살아있는 시체 즉 좀비가 탄생 된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하고 있다.

3. 까마귀, 나방, 닭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의 의미이지만 일본에서는 길조이자 주술적인 의미의 새이다. 영화 장면에서 일광이 종구 집에 있는 장독대에서 까마귀를 찾아내는 장면이 있다. 그 것을

통해 흉조의 의미인 까마귀를 잡아냄으로써 믿음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까마귀기를 통해서 외지인과 소통을 했을 수도 있다. 자기가 종구가 집에 침입 했으니 더 이상 까마귀가 필요 없고 굿을 할 것이니 외지인도 굿을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을 수도 있다.

닭은 영화 장면에서 일광과 외지인이 굿을 했을 때 나왔고 무명이 '앞집의 닭이 세 번 울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로 언급을 했다. 오랫동안 새벽닭의 울음소리는 아침의 밝음, 빛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옛말에도 닭이 3번 울리고 아침 새벽이 오면 악귀나 악령이 물러난다고 한다.

일광이 무명을 보고 피를 토하며 도망치는 장면이 있다. 차를 끌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나방들이 나타나 도망을 방해한다. 그 것을 본 일광은 차를 돌려 다시 곡성으로 간다. 이 장면에서 나방은 악마가 부활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나방은 부활, 탈바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에 트럭에 치여 죽은 일본인의 의식을 없어지고 완전한 악마만이 부활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4.무명이 입은 옷들

무명은 종구가 생각하는 버섯중독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옷이나 특정물품들은 몸에 지니고 있었다. 무명과 종구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무명의 옷차림을 보고 결국 의심을 하고 닭이3번 울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그 옷들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그렇기에 외지인의 계획을 계속 방해 할 수 있었고 일광까지 직접 종구네 집으로 가서 굿을 해 일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5.금어초

영화 첫 시작과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꽃이나 종구가 살인현장에서 꽃을 봤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고 효진이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나서 문 앞에 금어초가 시들어져있는 장면이 있었다. 이 영화에서 금어초는 무명이 설치한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연쇄살인 현장마다 금어초가 있었고 무명이 자신이 덫을 놓았다고 말하는 장면을 봐서 금어초는 무명이 악마를 잡기위한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금어초가 시든 이유는 함정에 걸린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금어초가 아름다운 꽃인데 시들면 해골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들면 해골모양으로 바뀌는 꽃 나홍진 감독은 무명의 실패 악마의 성공을 금어초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영화 '곡성'은 인식론적인 세계관에 종교적 색채를 덧입힌 영화라고 평하고 싶다. 철학자 데카르트(1596~1650)는 조금이라도 확실치 않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먼저 감각으로부터 또는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감각적 지식을 의심한다. 감각적 지식이란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감각을 통하여 인식되어지는 감각적 사물의 존재 및 그것에 관한 지식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일반적인 것에 관한 지식도 의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보편적인 것에 관한 지식인 수학적 진리마저도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 '기만적인 신'(deus mendax)의 조종과 농간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한 가지만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다. 데카르트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다고 한다. 사유의 내용은 의심할 수 있어도 사유한다는 사실과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는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제1원리로 내놓았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그려놓고 꿈과 현실을 드나들며 관객을 헷갈리게 한다. 꿈만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또한 그러한 현실에서 다시 깨어나고를 반복한다."의심은 악마를 강하게 만들고 당사자에게 화를 불러온다."현대 과학(독버섯에 대한 기사)을 믿는 일반인들, 무당이나 주술을 믿지 않는 성당의 '큰 사제'는 화를 입지 않는 반면, 종구는 귀신(외지인 또는 무명)이 자기 딸을 아프게 만들고, 마을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의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화를 자초한다. 마찬가지로 부제도 악마의 실재를 믿고 동굴까지 찾아가서 화를 당한다. 종구는 외지인에 대한 괴담을 듣고 이를 의심하여 화재현장을 찾아간 집에서 처음으로 무명을 만난다. 처음으로 무명을 만나고 그를 목격자라고 믿었던 장면에서는 악마에게 습격 받았을 때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일종의 '구원'을 받는다. 아직까지 의심의 단계가 매우 낮은 정도여서 환상은 깨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무명이 그 장면이 '꿈 아니여' 하는 걸로 보아 실제 있었던 일임을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겪는 것은 다 자기의 의심에 따라(악마에게 현혹되어) 만들어낸 것이고 영화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의심은 악마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지고 꿈은 점점 현실)화 되어간다. “나는 나 자신에서 유래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유래하고, 다른 것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 안의 모든 것을, 적어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나를 가능케 하는 자도 생각하는 존재여야 한다. 내 안에 신의 관념이 있으므로,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지탱해 주는 것도 신의 관념 안에 있는 모든 완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적인 완전성을 가진 것은 신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이다. 이 말을 통해서 필자는 이 영화가 데카르트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곡성 영화부분에서 신부님의 말씀이 있었다.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믿지 말고, 보이는 것을 믿으라” 영화에서는 그저 흘려드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데카르트의 사상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영화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관념이 있지만 내 관념을 지탱해주는 것 또한 신이기 때문에 나는 의심을 해서는 안된다. 한 마디로 마지막 무명의 대사와 같이 '너의 의심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가 신의 믿음에 저버린 종구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정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갖고 있으나, 강렬한 정념은 쉽게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마음과 정념을 지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보다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보다 정념에 약한 사람, 즉 '강한 마음'과 '약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약한 마음도 정념을 훈련시켜 지도하게 되면 모든 정념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 영화는 강한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약한 마음은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종구가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마지막에서라도 의심을 하지않고 강한 마음을 먹어 무명을 믿었더라면 효진이는 흔한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독버섯을 먹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모든 일이 그저 꿈처럼 일어났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의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 죽지 않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죽었다. 당시 '황해'가 끝나고 난 뒤였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들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너무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깐.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확장하고 확장했다. 그렇게 찾은 이유를, 시선을 부감으로 와이드해서 봤더니 이런 이

야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말을 했다 그렇기에 이 영화 제목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큰소리 내어 우는 것’ 즉 곡성이라고 지었던 것 같다.

곡성이라는 영화는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 외지인의 입을 빌어 "당신이 이미 의심하고 결론내린 것대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 영화의 주제고, 그것이 결국 관객에게도 적용되는 거다. 나홍진 감독도 자신의 입으로 "관객들이 내는 모든 결론들이 이 영화의 답이고 결말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도 결국 그것이 이 영화의 주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홍진 감독은 중요하게 '피해자의 심정'에 대해 언급했는데... 딸 효진이를 지키려는 아빠 종구의 부성애로 표현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그렇게 됐고 결말은 어떻게 났다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점도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다. 영화 장면 중 "왜 하필 효진이가 당해야 했냐"는 종구의 질문을 한다. 일광에 말에 따르면 효진은 그저 미끼를 문 물고기 였을 뿐이다. 낚시꾼인 외지인은 그저 아무나 걸리라고 낚싯대를 던진 것뿐이다. 결말이 어찌됐든 진실을 알기 위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체로 당신은 옳았다는 피해자를 향한 공감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나홍진 감독의 의도가 보인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영화를 본 관객들처럼 그에 대한 해석이 각자의 경험지식에 따라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될 수 있고 진실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에 따라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이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영화한 것이 곡성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곡성>은 끝없이 의심을 하게 만들고, 끝없는 미끼로 캐릭터와 관객들을 낚는 영화다. 다들 곡성을 다양한 관점으로 ‘의심’하며 보기를 권한다.

영화 <초록물고기>, 장르, 리얼리즘과 인물

국어국문학과 20161112
한봉관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 <초록물고기>는 97년도에 발표된, 시간적으로는 1990년대 개발사회를, 공간적으로는 서울 영등포와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신도시인 일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여러 논문들과 평론에서 이 영화를 다룰 때에 '공간'적인 요소들을 빼놓지 않고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평론에서도 역시 그런 공간적 배경들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을 것이다.

이창동 감독은 영화에 대한 얘기에서 이런 대목을 말했다.

"내가 보기엔 한국 영화에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인물의 매력이나 삶, 감정등이 전해질 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에서 인물을 강조하고 싶었다. 왜곡된 인물들이 아닌 진짜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인물들."

인물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감독의 의지는 아마 충실하게 반영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스크린(screen)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화려한 미장센(mise en scène)이나 인물들의 멋진 액션 등, 관객을 사로잡는 장치보다, 인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된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장르는 '필름 누아르' 혹은 '갱스터 영화'로 잘 알려져있다. 두 장르는 비슷한 성격을 띠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두 장르 모두 영화의 내용에 있어서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로 호명되는 영화들은 많은 부분이 장르적인 성격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다. 그 장르의 '전형'이 정해져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같은 장르의 영화끼리는 주로 어둡고 그늘진 분위기가 만연하다거나, 스토리의 전개가 비슷비슷 한 것이다.

우리가 이 영화를 생산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공간과 인물, 그리고 장르적인 특성에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름 누아르의 지배적인 분위기

'필름 누아르'(film noir)'는 프랑스어로 '검은 소설'이라는 뜻이다. 누아르 장르는 보통 1920년대 독일의 표현주의와 1930년대 미국 공포 영화와 갱스터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포스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작은 범주의 장르로 보자면 <초록물고기>는 '필름 누아르'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필름 누아르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는 이 영화에서도 여러 시퀀스(sequence)의 지배적인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막동(한석규)이 기차에서 우연히 미애(심혜진)를 만나고, 그녀의 스카프를 돌려주기 위해 앞 칸으로 가는 장면에서 막동이 미애를 발견하는 순간 기차는 터널에 들어선다. 터널이 지나고 막동은 열차의 칸 사이에서 미애를 괴롭히고 있던 폭력배들을 만류하려다가 휩싸이고 만다. 터널에 들어가며 어둠이 확 깔렸던 이 신(scene)에서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진다. 게다가 열차의 칸 사이 공간은, 터널이 지난 이후에도 객석이 있는 칸에 비해 어두운 공간이다. 배태곤(문성근)의 추천으로 막동이가 잠깐 일하였던 '주차장', 배태곤이 운영하는 나

이트클럽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있긴 하지만 스크린에 비추는 공간은 그늘지고 어두운, 음침한 느낌을 주고 있다. 막동과 배태곤이 낮에 허름하고 빛이 폐쇄된 건물에 들어가 배태곤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 장면에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아르 풍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미장센이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영화의 주요 사건들은 대부분 캄캄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암흑의 공간이 관객의 시각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영화를 보는 내내 필름 누아르의 분위기를 지우기란 쉽지 않다.

공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초록물고기>의 이야기 전개가 누아르 영화의 전형을 따라간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보통 누아르 영화는 주인공이 어둠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그 세계에 있는)보스의 여자로 대변되는 여자주인공과 사랑에 빠진다. 이 주인공은 신경증적인 면이 다분하며 야망을 갖고 있어 조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허나 그런 주인공은 결국 자신을 어둠의 세계로 들여놓은 보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초록물고기> 역시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양상은 닮아있음을 볼 수 있다. 주인공 막동은 배태곤에 의해 어둠의 세계, 그림자가 드리운 세계에 발을 담갔다. 미애와의 사랑도 영화 전반에서 드러난다. 막동의 최후 역시 배태곤에 의해 결정지어 졌다. 이런 점에서 필름 누아르가 이 영화의 장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르적인 특징은 이 장에서 마무리 짓고, 영화에 대한 주요 해석은 리얼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다루기로 한다.

막동이네와 조직의 인물들

위에서도 기술한 바 있듯이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는 등장인물들의 설정을 뚜렷하게, 또 진짜 삶에 부딪히는듯하게 그려냈다. 때문에 영화를 이해하기에 앞서 인물들을 분석해보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막동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막동이네'와 조직의 인물들도 차례로 살펴보자.

영화 속 인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이 <초록물고기>를 보더라도, 누구나 막동에게서 순수함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막동의 순수함은 앞 장에서 언급한 장르적인 특성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 영화의 어두운 배경(필름 누아르의 분위기)에서 대조되어 극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순수성의 역효과로 쉽게 타락의 길로 동화되는 느낌도 받았다면, 그것 또한 가능한 얘기이다. 작품 초반에, 막동이는 집으로 돌아와 큰 형(이호성)이 기다리고 있던 버스정류장으로 찾아간다. 여기서 큰 형이 뇌성마비 비슷한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도 처음으로 관객에게 보인다. 큰 형과 막동이가 서로를 껴안고 해맑게 웃는 모습에서부터 이미 보는 이로 하여금 막동에게서 순수의 이미지를 벗기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창동 감독이 인간을 보는 본질은 '순수함(Purity)'에 있다는 견해[11]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막동'이 '엄마'를 호명하는 점에서도 그의 순진함이 느껴진다. 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을 때도, 김양길을 살해한 후 집에 전화했을 때도 그는 그의 '엄마'를 찾는다. 특히 동주(조민철)이 막동에게 태곤의 일을 의뢰했을 때, 클럽 건물의 숙실에서 엄마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주목할 만하다. 어둠의 세계로 상징되는 영등포의 클럽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막동은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측면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 가지, 우리는 막동의 순수함이 드러나기 전에, 영화에서는 그의 폭발적이고 신경증적인

11) 류 훈,「인간을 바라보는 영화감독의 두 가지 시선: 이창동, 임상수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3권 제 11호, 2013, 5쪽.

성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창동 감독은 그의 <초록물고기> 촬영 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언급하였다.

"문제는 폭력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있다. 액션물에서 흔히 보는 것 같은 상투적인 움직임과 멋있는 과장을 피하고 그들의 격투 자체가 사실적이면서도 뭔가 젊음의 허망한 분출처럼, 그러면서도 막동이의 폭발적인 성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의 의도는 영화의 도입부부터, '막동'이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가장 첫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차에서 미애를 괴롭히던 불량배들에게 전역 패(牌)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쫓아가 보복하는 신이 그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량배들 중 한명을 뒤에서 기습 한 이후, 그들이 다투는 모습은 말 그대로 '멋있는 과장을 피하고', '사실적이면서도 젊음의 허망한 분출처럼' 서로 분에 치밀어 엉겨 붙어, 때리진 못하고 뒹굴기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막동이 배태곤의 밑으로 들어가기 전, 판수(송강호)와 주차장에서 싸우는 모습의 양상도 이와 비슷하다. 막동은 판수에게 몇 대 맞고는, 각목을 들고 돌아선 판수의 뒤통수를 치는 등, 즉각 보복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한다. 기존 영화들에서 주인공의 격투 신은 뭔가 짜인 각본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들로 구성되기 마련인데, <초록물고기>는 각본이 없는 격투 신 같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막동의 순수함이 오히려 이런 폭발적인 성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순수'해서 두려움보단 거침없는 행동이 앞서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격투 신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셋째 형과 트럭을 타고 경찰차를 쫓는 장면에서도 역시, 그의 순진함과 확 터지는 성격을 보여준다. 처음엔 경찰을 쫓는 셋째 형을 말리지만, 이후 오히려 막동이 더 흥분하여 소리까지 지르며 자신의 감정을 마구 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이런 막동의 광기(狂氣)를 영화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장면을 트래킹(tracking) 기법으로 촬영한 트랙 쇼트(track shot)로 담아낸 것도 막동의 성격 표출을 더 잘 드러나도록 해준다. 카메라가 수평으로 앞서가며 트럭과 경찰차가 휘청거리며 쫓고 쫓기는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막동이와 셋째 형이 신나하며 달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화면구도였다.

영화의 타이틀에서, 그리고 막동이가 집으로 복귀했을 때 보여주었던, 일련의 '사진'들은 순수함을 넘어 시골 청년의 소박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 소박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막동의 '꿈'이다. 배태곤의 말을 빌리면, 막동이는 큰 포부를 가져도 모자랄 젊은 나이에, 식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게 소망의 전부다. 또한 그가 동경하는 가치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초록물고기'를 잡던 때의 삶이다. 이런 '꿈'과 같은 부분은 다른 장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막동의 소박함의 중심에 있는 '가족'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막동의 가족은 다들 '결함'을 안고 산다. 우리는 영화의 진행 속에서 그들의 결함을 하나 둘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큰 형은 뇌성마비라는 큰 장애를, 둘째 형은 가정과 일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알코올 중독증세의 장애를 가졌다. 전역 후 둘째 형과 처음 만나서 식사하러 간 고기집의 일은 그가 술로 문제를 빚은 적이 있음을 알려준다. 셋째 형과 여동생 순옥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가족구성원의 결함은 '어머니'의 생신 날 폭발한다. 어머니의 생신 때 한 데 모여서는, 그 아수라장을 이루는 모습은 한 가족의 위기를 보여주는 듯 했다. 이들의 결함에는 아마 시대적인 변화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실도 막동이 둘째 형과 고깃집에 가서 나눈 대화에서 드러난다. 다음은 막동이의 대사다.

“형님, 우리 식구들 그냥 전부 같이 모여 살면 안 될까, 옛날같이? 아버지 계실 때 좋았잖아”

막동의 가족이 지내는 공간도, 위기를 단편적으로 드러낸다. 신도시 일산의 주변 풍경들을 보여주는 신에서, 막동의 집은 낡고 초라한데 바로 건너편엔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있는 모습. 그들 가족이 처한 상황의 영향도 사상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기에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서술하겠다.

배태곤의 조직 인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곤의 부하 조직원 중 판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한 인물이다. 김양길(명계남) 세력의 등장으로 그가 보여준 태도에서 이미 기회주의자로서의 자격을 인증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배태곤은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미애에 관한 이야기도 뒤에 이어서 하겠다.

리얼리즘적 가치와 작품 해석

1) 세부의 진실성과 전형성

<초록물고기>는 문학예술사적으로 봤을 때 리얼리즘의 감각으로 해석하여 느낄 수 있는 점이 많다. 리얼리즘은 작품을 통해 현실의 본질과 실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상이다. 최유찬의 ‘문예사조의 이해(1995)’에 따르면, 실재론에 ‘세부의 정밀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주장했다고 한다. 이 세부의 정밀성(진실성)은 작품 내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가령 앞에서도 언급했던 막동이의 싸움 장면이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큰 목적인 싸움의 승패나 싸움이 일어난 계기보다, 격투 양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고 박는지, 그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등 세부적인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리얼리즘의 ‘세부의 진실성’과 뜻을 같이한다.

리얼리즘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인 ‘인물의 전형성’에 관하여도 얘기할 거리가 있다. 막동이가 어떤 인물들의 ‘전형’인가. 그가 살아가는 시기는 1990년대이다. 그는 군대에서 갓 제대하였지만, 그가 사는 일산은 급격한 개발을 통해 신도시화 되어가고 있었기에 3년이라는 세월에 너무나도 많이 변해있었다. 사회 초년생인 막동은 도시의 가치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순수함과 시골풍의 소박함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신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한 시골 사람들, 청년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엥겔스는 전형에 대하여 “프레드릭 제임슨의 지적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게 되는, 그 자체 역사성과 역사적 변화를 담지 하는 ‘역사적 순간의 전형’”이라고 얘기했다[12] 막동이가 그 시대 개발사회에서의 인물의 전형을 내포한 인물이라는 것은 작품을 조금 심도 있게 관찰해 본다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살인(殺人)

<초록물고기>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중 한 가지는 바로 살인(殺人)이라는 플롯 속의 장치다. 이 작품에서는 총 두 차례의 살인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다소 충격적이기도, 섬뜩하기도 한 부분이지만 영화의 플롯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

12) 최유찬, 『문예사조의 의해』, (실천문학사, 1995), 177쪽.

문에 명료한 해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살해는 막동이가 김양길을 죽이는 것이다. 이 사건의 이유에 있어서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가령 막동이가, 조직에 들어서면서 배태곤에 대해 품게 된 존경심이 있었는데 김양길의 등장으로 자신의 우상 배태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소 그의 성격대로 폭발적이고 충동적이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견이 있다. 혹은 배태곤이 막동이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의견 등도 존재한다. 막동이가 과연 배태곤에게 살해를 지시받았을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명쾌한 해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김양길을 죽이기 직전에 배태곤과 허름한 건물 옥상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직접적인 대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리얼리즘적인 해석이다.

리얼리즘의 일반 이론에서, 개인은 그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즉 자신 이외의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개인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자아'라고 부른다. 영화 속 막동이의 사회적 자아는 크게 두 공간에서 형성되어 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막동이'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에서의 '막동이'이다. 이미 이 사회적 자아의 형성으로 미루어 봤을 때, 두 자아는 대립적인 구도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산 신도시 옆 낡고 부실한 집과, 영등포의 어두운 거리 속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적인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막동의 자아도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막동은 영화 초반부에는 가정에서의 자아로서만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 막동을 전형으로 하는 인물들이 모두 겪듯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나는 장면은 영화 초반부에 두 차례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신이 전역하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 파출부 전화를 받고 나가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다방여자로 일하고 있는 여동생 순옥을 다방에서 찾았을 때, 막동은 공통적인 대사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의 자본적인 부담감이 드러나는 것이다.

"엄마, 이제 그런거 하지 마. 내가 돈 많이 벌 테니까", "너 내가 앞으로 돈 벌 테니까 이런 일 하지마!"

셋째 형과 트럭에서 나누는 대화도 같은 구성이다. "알았어, 돈 벌거야 두고봐."하는 막동의 표정에서 일면의 긴장이나 걱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미애를 찾으러 다녔다. 군대에서 딴 면허증 말고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그에게, 미애를 통해 만나게 된 배태곤이 주선해 준 일자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동이가 타락하는 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막동은 자신이 원래 속해있던 가정으로서의 자아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였고, 그것을 공급해 줄 배태곤과 함께하게 된 것이다.

김양길의 등장으로, 배태곤의 세력은 본인들이 원래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넘어, 그들 조직 자체에까지 위협을 받는다. 판수가 배태곤을 배신하고 김양길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런 위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쯤 되면 막동과 배태곤의 관계가 보스와 부하조직원으로 굳어졌을 때다. 김양길 세력과 배태곤 세력의 정식 만남에서, 김양길에게 맞고 코피 흘리는 상태로 맥주를 들이키던 배태곤과 그런 배태곤을 쳐다보는 막동의 표정. 많은 감정을 함유하고 있는 표정 같다. 조직에서의 자아로 존재하는 막동은, 가족처럼 대해주고 가장 필요한 물질적 부분까지 책임져주는 배태곤에게 상당부분 의지 했을 것이 틀림없다.

“너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라. 내 동생이 되는 거야. 막동이동생. 알겠어?“

이후, 순수한 만큼 망설임 없는 막동의 성격은 결국 배태곤과의 대화를 겪고 김양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김양길을 살해한 장소가 그의 세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화장실이라는 것도, 그의 저돌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 첫 번째 살인은, 조직 속 사회적 자아로서의 막동 자신과, 그의 꿈(가족으로 대변되는 가치와 그 속의 자신이라는 자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존경심을 품게 끔 해준 배태곤을 지키기 위한 살인으로 보인다. 막동은 어떤 야망을 가졌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그저 순수하고 실행력 있는 인물이었다.

두 번째 살인은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의 죽음이다. 배태곤은 왜 막동이를 살해 했는가. 여기에서도 역시 배태곤이 어떤 사회적 자아를 갖춘 인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배태곤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여, 그의 표리부동하고 악독한 성격으로 보스의 자리까지 차지했다. 그가 형사와 대화하는 장면이나, 자신의 부하들이 슈퍼 앞에서 김양길 세력과 치고 박으며 싸운 것을 호통 치는 장면에서 스스로를 깡패들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과 같은 대사가 그 표본이다.

“형사님은 이 배태곤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폭 쫓아내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전쟁 치르고 이 배태곤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이 동주, 우리가 깡패니? 우리가 깡패야?”

그러나 내면은 깡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다. 가장 명확한 사건은 형사의 아내와 바람피운 남자를 옹졸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배태곤이 과거 자신보다 위에 있던 김양길과 재회한다. 그는 불만을 품고 있지만 김양길에게 뚜렷한 수를 쓰지 못하고, 오히려 맞서 싸운 부하들을 제지한다. 우리는 조직이 전부였던 배태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는 상관없이 모두 배태곤의 의지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막동이가 김양길을 살해 한 것은 어쩌면 배태곤의 뜻에 반(反)한 것이고, 배태곤 조직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었다.

그(배태곤)가 가진 사회적 자아는 ‘조직의 보스로서의 자아‘였다. 조직을 위해서 늘 그래왔던 대로, 또 한 번 폭력적이고 간사하게 막동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 그는 줄곧 막동을 챙겨주는 척 하면서 훨씬 큰 희생을 치르게 해왔다. 그리고 최후까지도 막동은 배태곤에, 배태곤의 조직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막동. 어쩌면 자본을 위해, 어쩌면 배태곤과 조직 자체를 위해 벌인 일이지만 많은 무리가 있었다. 안타깝지만 배태곤에게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떨고 있는 막동의 모습은 뇌리에 강하게 남는다.

3) 꿈, 혹은 동경

이야기의 근본적인 출발 지점이자 영화를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는 것은 막동이 가진 ‘꿈’이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삶이 힘들어진 가정. 둘째 형이 트럭에서 계란을 팔고 있을 때, 막동이

는 멈춰 선 자리에서 “형, 옛날 여기 우리땅 아니야?”라고 말하는 점도 이전엔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좋았던 것을 보여준다. 이후 막동이의 시점쇼트(Point - Of - View Shot)로 촬영된 것처럼 그의 시선을 따라 주변 광경을 카메라가 담는데,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있어 막동이네 초라한 집과 대비된다. 급격히 발전한 신도시의 모습을 둘러보는 막동의 감정이 미묘한 것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대까지 다녀온 막동은 아직 어릴 적의 시절을 동경한다. 김양길을 죽이고 큰 형과의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은 그가 무엇을 동경하였는지 잘 드러내준다.

“큰 성, 큰 성 생각나? 빨간색 철교. 우리 어렸을 때 초록색 나는 물고기 잡으러 많이 놀러 다녔었잖아 …(중략)… 큰 성.. 그때 생각나..?”

그의 낭만적인 동경은, 낭만주의 이론에서의 ‘고향’, ‘오래된 미래’와도 같은 가치이다. 동경의 내용이 철저하게 과거의 것이고 돌아갈 수 없었던 점이, 막동이의 순박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관객들로 하여금 막동의 가족을 향한 ‘애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영화 속에서 그는 그의 동경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꿈을 품고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려서 생활하는 것. 이런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는 오직 자본만이 부족하였다. 앞서도 얘기 했듯이 이런 수단을 막동의 손에 쥐어주는 존재가 바로 배태곤이었다. 이 사실이 막동이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동이 무능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급변하는 사회에 혼란스러웠으며, 그의 순수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이 ‘미애’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배태곤의 조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 막동의 꿈을 스러지게 하는 존재도 배태곤이다. 조직을 위해 희생했던 막동이가 배신을 당하면서, 영화는 비극으로 끝난다. 배태곤의 살해는 매우 사실적인 부분과 낭만적인 부분의 결합 같은 느낌이다. 막동이의 ‘고향’의 좌절. 이 좌절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사회’였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낭만주의적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막동의 꿈만이 아니다. ‘막동’이라는 인물의 구성 자체가 낭만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는 것이 낭만주의 사조의 경향 중 하나인데, 이런 감정의 가치가 막동에게서도 보인다. 순수한 그의 성격에서 폭발적이고 무언가를 뿜어내는 듯한 폭력행위, 즉 (얘기되어 온)판수와의 격투장면이나 그가 처음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트리는 장면 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막동이 감정에 충실했다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 전반에 걸쳐 막동의 광기(狂氣)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광기’또한 감정의 가치, 즉 낭만주의적 가치에 해당한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리얼리즘이 반(反)낭만주의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인데, 이처럼 한 영화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 사조가 서로 어울려 나타나는 것은, 영화 감상에 있어 상당히 흥미를 주는 부분이다. 마치 낭만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이, 낭만주의적 동경 혹은 향수를 찾아 리얼리즘의 세계에 빠진 모양이다.

4) 미애

미애라는 인물은, 어쩌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일지 모른다. 그도 그럴게 영화의 처음 시퀀스와 마지막 시퀀스는 이 ‘미애’를 통해 장식되기 때문이다. 또 막동이 조직으로 들

어서게 된 계기도 결정적으로는 미애를 통해서였다. 두 인물이 처음 마주쳤을 때, 우연하게도 미애의 스카프가 막동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막동이 김양길을 죽이기 직전까지는 막동의 손에 스카프가 쥐어져 있었다.

막동과 미애가 서로 사랑했다는 부분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많고 복잡한 듯한 그녀의 표정과 종종 술에 취해 몽롱함을 가득 끼고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막동과 같은 인물이 접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녀가 막동과 보내는 시간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막동이 아직 조직에 들어가기 전, 막동의 시선을 따라서, 카메라는 미애의 춤추는 장면을 담는다. 막동이 손가락을 부러뜨려가며 일을 처리한 것을 배태곤에게 보고하는 동주를 지나쳐서 말이다. 그리고 미애는 막동과 함께 기차를 탔을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한다.

"막동씨는 참 순진한 사람인 것 같아."

미애는 막동의 순진함을 그대로 보고 사랑해주는 인물이다. 그 후 둘이 나누는 키스는 서로에게 긴장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다. 미애라는 인물의 설정이 여러 가지 스킨십에 능숙할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 오히려 미애에게서 그런 긴장감이 더 커보였다.

미애는 배태곤에 의해 많은 상처를 받는다.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막동의 옆으로 미애가 차를 끌고 갈 때 울고있던 모습으로 대략 짐작할 수 있다가, 영화 후반부엔 배태곤이 주선하여, 정체모를 '검사'에게 몸을 팔리는 장면도 나온다. 그런 미애를 503호실 외울 수 있겠냐며 무시하는 배태곤. 미애에 있어서 매우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이다. 술에 취해, 배태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며 신음하는 미애는, 막동과 둘이 남는다. 그리고 막동에게 '내 몸은 많이 더러워'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마치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미애의 말을 빌려, 이미 '더러워진' 미애와 '순수성'을 띠는 '막동'의 연결은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것일까. 아마도 미애는 자신과 다르게, 너무나도 순진한 막동의, 그 순수함 자체가 사랑스럽고 탐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된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미애가 배태곤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처음 막동이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을 때도,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짐작된다. 술에 취해서 도망치려하고, 배태곤의 부하가 만류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막동이를 새 애인이라고 소개까지 하며 가기를 거부한다. 또 막동이가 운전하고 미애와 둘이 차에 탄 신에서 미애가 막동에게 하는 대사를 주목해야 한다.

"막동씨, 막동씨는 배태곤 밑에서 일하는게 좋냐고."

미애의 진지하고 체념한 듯한, 동시에 의구심을 품고 던지는 이 질문에 막동이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미 막동이보다 오래, 배태곤의 옆에서 그 조직을 겪어본 미애는 막동이가 아직은 조직과 배태곤을 잘 모르고 있다고 느껴서 그랬을까. 무언가 알려주고 싶은 느낌도 강하게 드는 대사였다. 또 이런 장면에서, 조직과 미애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어서, 둘 중 한곳을 선택하면 한 쪽은 버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막동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조직에 있는 한, 미애는 배태곤의 여자이기 때문이다.

배태곤에게 쭉 잡혀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 한다. 배태곤은 항상 자신하며 미애가 막동이와 기차를 타고 돌아왔을 때, "기차타러 갔었어? 맨날 그냥 돌아올꺼면 뭐하러 타. 넌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어. 알잖아."라고 얘기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이

장면은 미애와 막동의 묘한 사이를 배태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관객에게 시사한다. 이어서 나오는 장면도 하나의 단서가 된다. 배태곤이 선물할 옷을 입어보라며 미애를 건들 때, 미애의 등에 난 흉터. 그 흉터를 보고 배태곤은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는데, 배태곤이 강퍅한 자신의 의지, 즉 미애를 옆에 두고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이 짐작된다. 그 신의 미애의 표정에서는 혐오의 감정까지 느껴진다.

그녀가 절대 도망갈 수 없다고 믿고 있는 배태곤은 미애가 막동에게서 도망의 용기와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미애는 막동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도망칠 가능성을 보인다. 기차에서 내린 후 역 앞에서, 미애가 막동에게 “ 막동씨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하며 일종의 기대감을 담고 묻는다. 배태곤의 전화를 받은 직후다. 그러나 막동은 결국, 조직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나이트클럽에서 무대 위에서 하대 받는 미애를 구해줬던 막동,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더욱 폭발적인 성향이 이 신(미애와의 사랑과 조직을 선택하는 장면)에선 발휘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가야죠, 형님이 오라고 했으니까요.”

이는 위에서 얘기한 필름 누아르의 전형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석 될 부분이다. 누아르 장르의 남자 주인공은 보스의 여자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막동의 일방적인 이별의 과정에 해당한다. 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은 막동이가 김양길을 살해하기 직전이다.

막동과 미애는 서로의 물건을 각자 가지고 있다. 막동에게는 미애의 스카프가, 미애에게는 막동의 옛날 집 사진이 있다. 스카프의 의미는 무엇일까. 스카프(scarf)는 보통 어깨나 목, 머리를 감싸주는 장식품이다. 미애가 가진 지위, 꾸밈의 역할이 극대화 된 위치에서 꽤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영화 초반부에 이것이 막동의 집 빨래건조 줄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스크린에서 잠깐 비춰준다. 그 집, 그리고 집이 찍힌 사진은 막동의 이상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막동의 집’은 가족이라는 가치를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교환하여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막동은 김양길 살해 직전에 미애의 스카프를 태워버린다. 이 과정은 미애보단 보스, 조직을 선택하여 조직 사회에서의 막동(자아)를 견고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김양길의 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영화<초록물고기>에 나타난 사상적 성격(리얼리즘과 낭만주의)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 영화 속 장르를 규정짓는 요소들과, 그런 분위기 속에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맞춰 보았다. 더불어 감독 스스로도 강조하였던 ‘인물’에 대한 탐구도 진행해 보면서 여러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였다. 문단의 사이사이에서 영화 촬영기법을 통해 얻어낸 효과들도 발견하였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자, 관객인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초록물고기>에서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핵심은, 영화가 1990년대의 신도시를 그려내었다는 점이다. 이 영화의 인물들은, 도시적 가치를 지닌 일종의 ‘부르주아’는 단 한명도 없다. 그저 보통이거나 그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인물들이다. 그런 인물들의 발버둥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겠다는 생각? 그것은 아마 틀린 답이다. 필자는 이런 가난과 타락을 그린 영화에서, 그런 그림들 자체를 느

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간단한 감상 속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관점들(장르, 문예사상, 그리고 인물)은 이 영화를 좀 더 생산적이고 값지게 읽어내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가난'과 '타락'. 그 시대의 막동이들이 짊어 져야 했던 운명을 두 음절의 단어로 나타낸다면, 그것이 곧 '가난'과 '타락'이 아니었을까. 여기서 우리에게는 막동이란 인물의 순수함이 더욱 빛나 보일 것이다. 동시에 스크린 속 암흑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 영화를 충분히 감상해낸 것이다.

핵소 고지

전쟁터에서 비폭력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 에 대해

인문학부 20171080
이호준

전쟁터에서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바보같을 지도 모른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전쟁터는 사람을 죽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실현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 데즈먼드 도스가 그다. 그는 집총은 거부했지만, 병역의 의무 자체는 당당히 받아들인, 좋게 말하면 독특한, 나쁘게 말하면 별난 사람이었다. 그는 의무병으로 지원하여 전장을 비무장인 상태로 뛰어다녔고 결국 75명의 전우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었다.
이를 영화로 빗어낸 것이 바로 〈핵소 고지〉이다.

기관포 사격에 옆에 있던 동료가 순식간에 벌집이 되어버리고, 폭격과 총격으로 인해 한치 앞도 볼 수 없으며, 사방에 쥐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시체가 즐비한 끔찍한 환경에서 과연 인간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전장의 광경은 도저히 그럴 수 있을 것같지 않지만 그는 해냈다.

그는 그의 신념을 관철하며 그곳에서만 수십명의 동료의 소중한 목숨을 구해냈으며, 심지어 적인 일본군 조차도 치료해주었다.
이 영화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주인공이 훈련소에서 오키나와 상륙 작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인 데즈먼드 도스는 빙역의 의무에 따라 미군으로 징집되었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며 상관과 동료들에게 처음부터 반감을 사게된다.
때문에 상관은 그의 부대에게만 특히나 가혹한 훈련을 시켰으며, 덕분에 동료들은 앙심을 품고 그를 단체로 린치하는 일조차 발생하게되었다.

심지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휴가를 내려는 도스에게 상관은 군법을 들이대며 총을 집어들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자 유치장에 가두기에 이른다. 도스의 애인은 그의 참혹한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총을 드는 척이라도 하면 안되냐고 하소연하듯이 매달리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군사재판까지 회부되어 결국 무기 없이 전장에 의무병으로서 참전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도스가 전쟁 영웅으로서 명예의 훈장을 받을 정도의 활약을 하게되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참혹한 전쟁속에서 도스는 몸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의 손에 미치는 생명을 동료, 적 관계없이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75명의 목숨을 구해내며, 스스로의 용기와 신념을 관철해보았다.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비웃거나 겁쟁이라 비난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없이 전장으로 올라갈 수 없다며, 안식일에 기도를 올리는 도스를 기다리며 진군을 늦출정도로 모두가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

피와 살이 흐르고 총탄과 포탄이 내리는 전장에서 그는 누구도 죽이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으로서 온갖 인륜이 유린되는 전장에서 비폭력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보였다.

※그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신념.

영화를 보면서 강조되는 것은 주인공의 데스몬드 도스의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신념인데, 이는 그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기인한다. 도스는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를 따라 안식교를 믿게 되었으며,유년기에 동생인 '할'을 실수로 죽일 뻔 했던 일로 진정으로 신을 믿게 되었으며, 아버지와의 다툼에서 권총으로 아버지를 위협했던 일로 인해 집총에 거부감과 그의 신앙이 합쳐져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그의 신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일화는 그의 신념을 단순한 종교적 신념으로 치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굳건한 신념으로 인지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에게 있어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한 신념은 신과 자신에 대한 약속이자, 굳건한 의지이며 그의 무기였다.

주변의 도움.

데스먼드 도스가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도 있었지만, 주변인들의 도움도 컸다.
먼저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 토마스 도스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서 전쟁에 크나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성격이 괴팍하게 뒤틀렸으나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는 아버지였다.

그는 아들인 데스몬드가 군사재판에 회부되자 아들의 양심적 집총 거부가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아는 사이인 장군까지 직접 대면하기 까지 한다.
아들의 정당함이 입증되어 무죄를 받아낸다면 자신이 치를 떨정도로 싫어하는 전장으로 아들을 보내야하게 되지만, 그는 아들의 굳건한 신념을 믿었고, 그 만큼 아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기에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다음으로는 도스의 연인인 도로시 쉬테가 있다. 그녀 또한 연인인 도스처럼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였다.

그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그를 지지해주었다.
이는 도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녀에게 신념을 증명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다. 자신의 신념조차 지킬 수 없다면 그녀를 지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신념은 서로의 관계를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도구이자,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의 증명이었다.

오키나와 전투.

1945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81일간 지속된 전투이며, 태평양 최대, 최악의 전투이며, 영화 〈핵소 고지〉의 후반부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 전투는 참혹하기 그지 없는데, 사람의 사지가 절단되고, 내장을 흩뿌려지며, 순식간에 목이 날아가는 등 사람의 죽음을 온갖 방법으로 연출했다.

거기에 마지막 부분의 일본 장교의 할복이나 항복한 척 하면서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일본군인 등의 차마 보기 거북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기 위한 연출이었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이정도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거부감이 들정도로 지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
그렇기에 주인공인 도스의 행위의 용기와 의지가 돋보일 수 있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유혈이 낭자하였으며, 잔인했다.

"Help me get one more"
이 문장은 영화 후반부에 주인공인 도스가 동료들을 구하고 한 명, 한 명 구출하여 절벽 아래의 안전 지역으로 내려보낼 때마다 읊조린 대사이다.
신에게 제발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스의 대사는 그 자체로 그의 신념을 나타내는 것같다. 다리가 흔들거리고 손이 밧줄에 쓸려서 피를 쏟아내도, 일본군에게 발각당해 추격당하면서도 그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살을 깎으며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로서 75명이라는 고귀한 목숨을 죽음의 늪에서 건져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해도 이루기 힘든 일을 그는 그저 '신념' 하나로 이루어 낸 것이다.
이는 비폭력주의, 생명 존중 사상, 사랑, 동료애 등이 모두 얽혀서 만들어진 강인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후에 도스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중 하나인 '명예의 훈장'을 수여 받게 된다.

겸손함.
데스몬드 도스는 자신은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화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말 그대로 그는 자신이 했던 일은 특별시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로 인해 유명해지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저 목숨의 등불이 꺼져가는 순간 까지 조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
그는 전쟁 중에 핵소 고지 전투에서만 75명을 구해냈고, 그가 병으로 인해 명예전역을 할 때까지 약 300여명의 목숨을 구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가 실현시킨 엄청난 업적은 그저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켰을 뿐인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그의 일화를 배경으로한 〈핵소 고지〉는 영화화 되지 못하고 결국 잊혀졌겠지만, 다행히도 그가 나이 87세로 세상을 떠나기 몇 년전, 무슨 변덕인지 그에게 끊임없이 구애해왔던 영화 제작사에 그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실제 고증.
데즈몬드 도스의 일화를 영화 〈핵소 고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영화의 연출을 위해서 각색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도스의 아버지는 영화에서는 제 1차 세계 대전의 참전 용사지만, 실제로는 그저 평범한 목수였다고 한다. 상관에 대한 호소 또한 장군이 아니라 교회의 군의회 의장에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영화 내에서 도스가 동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 따돌림등을 당하는 모습이 연출되지만, 실제로는 가끔 부츠를 던지는 정도로 영화내에서 보여준 정도의 린치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영화 내에서 도스의 계급은 이등병인데 반해 실제로 전쟁 당시 그의 계급은 상병이었다.

이는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각색이며,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영화적 서사를 위해 실제 전투도 부분부분 각색되어있다.

물론 전투는 실제로도 매우 치열했지만, 그것을 염두하고도 중대장이 부상당한 의무병(주인공) 하나를 위해 일선에서 빠지는 등 관객이 보고서 고개를 갸우뚱할 장면이 몇몇 있다.
다만 이런 몇몇 연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고증은 훌륭한 편이다.

- 시나리오 부문 -

내가 잠들면

국어국문학과 20151131
정현아

S#1 진료실 (낮/내부)

진료실 벽은 온통 하얀색이며, 책상과 의자만 놓여있다. 카메라를 등지고 책상에 앉아있는 의사. 그 옆엔 분홍색 옷을 입은 간호사가 서있고, 경비원들이 진료실 문을 막고 있다.

선잠 **(의사의 멱살을 잡으며, 울부짖으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고!!**
간호사1 **(선잠의 팔을 잡으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손 놓으세요.**
의사 **(경비원들을 보며) 이분 303호로 안내하세요. 입원할 겁니다.**
선잠 **(화내며) 뭐? 입원? 너 내가 우스워? 아주 우스워서 그러지?**
경비원 **(선잠의 어깨를 잡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그만하세요. 이제 가셔야 합니다.**

S#2 병원복도 (낮/내부)

병원 가운데에는 환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의자와 TV가 놓여있고 안내 데스크는 뒤쪽에 놓여있다. 화분이 가득한 병원 복도. 환자복 입은 사람으로 가득한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선잠. 사람들은 동시에 선잠을 바라본다.

선잠 **(노려보며) 야 뭘 봐!!!!!!!!!! 구경났어?????? 니들 하던 거나해!!!!**

고개를 돌려 다시 TV 보는 사람들.

선잠 **하, 그래!!!!! 너희도 내가 우습냐???? 어? 여기 끌려온 내가 우스워!!!!!**

이 상황을 쳐다보는 선잠의 친구 이든. 경비원들에 의해 병실로 인도되는 선잠.
화면은 선잠의 방을 비추며 선잠은 침대에 누워있다. 이때 우측 하단엔 *내가 잠들면* 이라는 타이틀이 뜬다.

S#3 방안 (새벽/내부)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8평 남짓한 반지하 방. 방안에는 침대, 옷장, 책상, 냉장고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선잠 **(가쁜 숨을 내쉬며) 하아…….**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있는 선잠. 얼굴을 찡그리며 가만히 앉아있다. 이내 일어나 욕실로 향한다. 얼굴을 씻고 옷을 입으며 출근 준비를 하는 선잠. 기분이 안 좋은 듯 얼굴은 계속 찡그리고 있다.

S#4 회사 (오후/내부)

키보드 소리만 들리는 사무실 내부. 8개의 책상은 칸막이로 나눠져 있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바라보며 키보드를 치는 선잠.

부장 **(버럭 하며) 이선잠 사원!! 당장 이리로 오게!!!**
선잠 **(놀라며) 네..? 네!!! 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거리며 부장 앞으로 가는 선잠.

부장 **오늘 회의 자료 이선잠씨가 갖다놨다며? 아주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순서도 뒤죽박죽! 그냥 난리가아니더만? 다른 부서 부장들 앞에서 내가 사과를 해야겠어?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선잠씨는?**
선잠 **죄송합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오는 선잠. 컴퓨터만 하염없이 바라본다.

과장 **(웃으며 다가와) 아이고. 선잠씨 미안하게 됐어. 회의 자료 순서가 그럴줄은 몰랐지~ 선잠씨가 한번 더 확인하고 놓지 그랬어! 선잠씨 잘못도 있는 거지?**

과장을 향해 싱긋 웃는 선잠. (클로즈업) 책상 밑 떨리고 있는 선잠의 두 주먹.

S#5 방안 (늦은 저녁/내부)

한숨을 내쉬며 방안으로 들어오는 선잠. 책상 의자에 양복 재킷을 벗어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둘러보는 선잠.

선잠 **(맥주를 손에 들고 바라보며) 맥주 한 잔 먹을까..**
(한숨을 내쉬며) 어휴, 무슨 술이냐..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맥주를 넣는다)

욕실로 향하는 선잠.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온다. 선잠은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눕는다. 눕자마자 잠에 드는 선잠.

(오버랩) 선잠의 꿈
S#6 회사 (오후/내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선잠.

부장　　(버럭 하며) 이선잠 사원!! 당장 이리로 오게!!!
선잠　　부르셨습니까, 부장님?
부장　　오늘 회의 자료 이선잠씨가 갖다놨다며? 아주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순서도 뒤죽박죽! 그냥 난리가아니더만? 다른 부서 부장들 앞에서 내가 사과를 해야겠어?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선잠씨는?
선잠　　아, 회의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이 저한테 그냥 뽑아서 대충 놓기만 하라고 하셨는데요?
과장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뭐? 어디서 상사한테 말대답을 꼬박꼬박 해! 그럴 땐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부장에게 허리 숙이며)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뭐해! 이선잠씨! 빨리 사과 안드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선잠.

(오버랩) 현실 선잠의 방

S#7 방안 (자정/내부)

선잠　　(눈을 뜨며 일어나) 헉……. 헉……. 뭐야! 또 꿈이야? (한숨 쉰다)

그때 울리는 책상 위의 휴대폰 소리. 선잠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향한다.

(인서트) '이든'이라고 쓰인 휴대폰 화면.

S#8 포장마차 (새벽/외부)

포장마차에 홀로 앉아 소주를 먹는 선잠. 이든이 들어온다.

이든　　(자리에 앉으며) 너는 왜 술을 혼자 마시냐,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소주잔과 소주 한 병을 가져다주는 사장님.

선잠　　(이든에게 술을 따라주며) 그나저나 이 새벽엔 뭔 일이야?
이든　　(술을 받으며) 야 꼭 무슨일 있어야해? 너 근데 얼굴이 이상하다? 뭔일있어?
선잠　　(한숨 쉬며) 야, 이든아 있잖아. 내가 요즘 꿈이 이상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꼭 꿈에 나와
이든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선잠　　아니. (술을 마시며) 하..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일이 꿈에서 되풀이 된다니까? 미세하게 다르게 근데 결과는 항상 안 좋고 꿈에서 깨도 그 찜찜함이 가시지 않아.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래서 요새 잠자는 것도

싫어. 꿈 안 꾸고 자고 싶다.

이든 네가 너무 신경 써서 꿈에 나오는거 아니야? 병원에 한 번 가보는 건 어때?

선잠 (허탈하게 웃으며) 야, 사내가 이런 일로 뭔 병원이냐. 술이나 마시자

이든 (멋쩍게 웃으며) 아.. 그런가? (이내 좋은 생각이 난 듯 눈이 커지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선잠 너는 내가 잠 못 자는 게 그렇게 웃기냐?

이든 아니 내가 아무리 인성이 덜 됐어도 친구가 고민이 있다는데! 요즘 잠 잘 오는 방향제? 그런 스틱 있다는데 그거 한 번 써봐!

선잠 아, 그래? 그게뭔데?

이든 그 있잖아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신제품으로 나온거야. 아로마향이 들어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신경이 안정되서 잠이 잘온대. 신경 안정제? 그런거지!

선잠 오 그거 좋다. 가는길에 사가야겠다.

S#9 편의점 (새벽/내부)

종업원 (선잠에게 다가오며) 찾는 거 있으세요. 손님?

선잠 아, 그 신경 안정되는 방향제라고 있어요?

종업원 이쪽에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방향제를 빤히 쳐다보는 선잠. 계산 후 편의점을 나서는 선잠.

S#10 방 (새벽/내부)

책상에 앉아 밥을 먹는 선잠. 휴대폰을 들어 이든에게 전화한다.

선잠 여보세요? 이든아 나 그 방향제 샀어.

이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 정말? 나도 효과 있는지 알려줘

선잠 알겠어! (전화를 끊는다)

책상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향하는 선잠. 침대에 앉아 방향제를 코에 대고 냄새를 들이킨다. 이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다.

S#11 방 (점심/내부)

개운한 표정을 일어나는 선잠. 화장실에서는 선잠의 콧바람 소리가 들린다. 욕실에서 나오는 선잠. 외출 준비를 한 뒤, 집을 나서는 선잠. (페이드 아웃)

S#12 공원 (늦은 오후/외부)

(페이드 인)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공원.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그런 모습을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선잠의 엄마.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추레하다. 이때 엄마에게 다가오는 선잠.

엄마 **(활짝 웃으며) 선잠아! 여기 앉아!**
선잠 **꼴이 또 왜 그래?**
엄마 **(웃으며) 아니, 선잠아. 엄마는.. 네가**
선잠 **(엄마의 말을 끊으며) 아, 됐고 (지갑을 꺼내며) 이거면 돼? 나도 별로없어. (엄마의 손에 20만 원을 쥐여준다)**

이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에게서 떠나는 선잠.

S#13 지하철 (늦은 오후/외부)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는 선잠. 두 손은 머리를 감싸고 허리를 숙여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숨만 내쉰다.

(플래시 백) 선잠의 어렸을 적 기억

S#14 어린 선잠의 방 (자정/내부)

방안에서 방문에 기대어 두 손을 머리에 감싼 어린 선잠. 거실에선 부모님이 싸우고 있다.

아빠 **(화를 내며) 이 여편네가 또 술을 마셔?**
엄마 **(술을 따르며) 건들지 마. 당신도 지금 다른 여자랑 술 먹고 왔잖아. (아빠를 째려보며) 왜 나한테만 그래?**
아빠 **(윽박지르며) 뭐?! 이 여자가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린 선잠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무릎에 얼굴을 파묻어 소리 죽인 채 울고 있다.

S#15 지하철 (늦은 오후/외부)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소리. 선잠은 생각에서 깨어나 지하철이 오는 것을 바라본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에 오르는 선잠.

S#16 방안 (저녁/내부)

힘없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선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는다. 방향제를 바라보다 냄새를 맡는다. 이내 잠이 드는 선잠.

(오버랩) 선잠의 꿈

S#17 어린 선잠의 집 거실 (자정/내부)

거실 탁자에 놓인 3개의 소주 병. 엄마는 소주잔을 들어 소주를 마신다. 집으로 들어오는 선잠의 아빠.

아빠 **(화를 내며) 이 여편네가 또 술을 마셔?**
엄마 **(술을 따르며) 건들지 마. 당신도 지금 다른 여자랑 술 먹고 왔잖아. (아빠를 째려보며) 왜 나한테만 그래?**
아빠 **(윽박지르며) 뭐?! 이 여자가 말이면 단 줄 알아?**

방에서 자다 깨 나오는 어린 선잠.

어린선잠 **(울먹이며) 엄마 아빠 또 싸워??? 왜 자꾸 그래!! (주저앉아 울면서) 엄마 아빠는 내가 싫어서 그래?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엄마 **(선잠을 안아주며) 선잠아.. 그런 거 아니야 얼른 들어가서 다시 자 엄마랑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아빠 **(선잠을 바라보며) 우리선잠이 아빠 엄마소리에 깼구나? 아빠가 미안해요. 선잠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아빠랑 같이 먹을까?**

황급히 술병을 치우는 엄마. 아빠는 선잠을 무릎에 앉히고 선잠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여준다.

S#18 선잠의 방 (새벽/내부)

울리는 선잠의 알람.

선잠 **오늘은 악몽이 아니네.**

회사 갈 준비를 하고 나오는 선잠.

S#19 선잠의 차 (새벽/내부)

신나는 음악이 들리는 차안. 선잠은 차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신호 대기 중인 선잠의 차.

선잠 **(당황해 하며) 어? 어?!**

신호 대기 중이던 선잠의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며 선잠의 차와 사고가 난다.

선잠 **(차에서 내리며) 아니, 아저씨 왜 후진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장난해요?**
아저씨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냅다 들이 받아놓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

네? 여보 이리 나와 봐.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아줌마 (목을 잡으며) 아... 여보 나 여기 목이 너무 아파요..

선잠 아니 아저씨께서 후진을 하셨잖아요.

아저씨 (윽박지르며) 뭐????? 증거 있어?? 지금 우리 아내 목 아픈 거 안보여? 너 이거 어떻게 처리할건데? (휴대폰 카메라를 키며) 요즘 애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딱 증거를 잡아야지. 여보! 경찰에 신고해!

S#20 경찰서 (아침/내부)

나란히 앉은 아저씨와 선잠.

경찰 이선잠씨, 계속 그렇게 발뺌 하실 겁니까? 간단한 접촉사고 때문에 꼭 이렇게 경찰서 까지 오셔야겠냐구요.

선잠 (억울해하며) 아니 경찰 선생님. 저는 진짜 신호 앞에 가만히 서있는데 저 분께서 후진을 하더니 사고가 난거예요!

아저씨 경찰양반! 나는 이 청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의 해줄 마음이 없어져!

경찰 이선잠씨, 지금 합의 못하면 감방으로 가셔야한다구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하시고! 보험처리하세요! 지금 그 지역에 CCTV도 없고! 두 분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고 새벽이라 목격자도 없는 이 시점에서 정황상으론 이선잠씨가 잘못했다고 저희도 보여 지니까요. 그만 버티시고요, 네?

선잠 저는 정말 죄가 없다니까요..

아저씨 (기가 차는 표정을 지으며) 하! 난 합의 안하니까 그런줄 알아!

경찰 (선잠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이. 선. 잠. 씨!

선잠 (한숨 쉬며) 아저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는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내가! 합의 해주기 싫었는데 청년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니까 내가 합의해주는 거야! 인생에서 빨간줄 그어지면 끝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있어?

선잠 (고개를 숙이며) 네.. 감사합니다.

S#21 경찰서 밖 (점심/외부)

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한 국밥집으로 들어가는 선잠.

선잠 (자리에 앉으며) 이모 국밥 하나만 주세요. 음식 나오는 동안 잠깐만 자자.(방향제의 냄새를 맡는다.)

앉은 자리에서 졸기 시작하는 선잠. 이내 국밥이 나온다.

아주머니 총각! 국밥 나왔어!

선잠은 국밥을 먹기 시작한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하루 때문에 선잠은 자신이 국밥을 먹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한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 선잠.

S#22 국밥집 밖 (점심/내부)

선잠의 건너편에 보이는 차사고난 아줌마와 아저씨. 아줌마의 목은 멀쩡하다. 선잠은 이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하며 무단횡단을 해 아저씨와 아줌마의 곁으로 간다.

아저씨 **(당황해 하며) 이 미친놈은 왜... 왜이래! 오지마!**
아줌마 **어머머머. 미쳤나봐!**

길에 놓인 소주병을 집는 선잠. 중얼거리며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다가간다.

선잠 **(혼자 중얼 거리며) 어차피 꿈이니까 괜찮아. 저번 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됐잖아.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야. 이건 꿈이잖아. 꿈이야 이건.**

이내 선잠은 아저씨의 얼굴에 소주병을 내리친다.

아줌마 **(비명을 지르며) 사...살려주세요!!!! 여기 미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줌마의 비명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선잠. 온몸을 떨기 시작한다.

선잠 **(당황해하며) 꿈.. 꿈이잖아.. 꿈이야.. 꿈이었어..**

자신의 손에 있는 피를 옷으로 닦는 선잠. 이내 경찰이 선잠을 붙잡는다.

S#23 경찰서 (늦은 오후/내부)

유치장 안에 갇힌 선잠. 선잠을 찾으러 경찰서로 들어오는 이든.

경찰 **이선잠씨 보호자 되십니까?**
이든 **네. 선잠이 보호자입니다.**
경찰 **이선잠씨가 사람을 소주병으로 가격했어요. 다행히 수술 할 정도는 아니고, 그쪽편이랑 오해가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그쪽분들이 고소는 안하셨어요. 이선잠씨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계속 혼자 꿈? 이라고 중얼거리던데 병원한번 가보세요.**
이든 **(선잠을 바라보며) 네. 감사합니다.**

S#24 선잠의 집 (저녁/내부)

이든 **(선잠을 침대에 눕히며) 너는 무슨.. 사람을 때려.**
선잠 **이든아.. 그거 꿈이야 꿈에서 한거야.**
이든 **그래 꿈이야. (방향제를 선잠의 코에 대며) 자 이거 마시고 얼른 자 선잠아.**

선잠은 잠에 들고 이든은 선잠의 휴대폰을 열어 오늘의 통화목록과 메시지 목록을 지운다. 그리고 선잠이 자는 것을 확인한 뒤 집밖으로 나온다.

S#25 선잠의집 밖 (저녁/외부)

전화기를 드는 이든.

이든 **(전화를 하며) 어, 난데. 그거 방향제 말이야. 어 그래. 그거 아직까지 부작용은 없었다고 그랬지? 그래. 판매량 홍보 계속하고.**

(페이드 아웃)

S#26 선잠의 집 (아침/내부)

침대에서 일어나는 선잠.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 한다.

선잠 **내가 잠을 그렇게나 오래 잤나.. 하루를 넘게 잤네.. 어제 꿈은 진짜 현실 같았는데..**

선잠의 집 초인종이 울린다. 수화기로 향하는 선잠. 이내 현관문을 열어준다.

선잠 **야 최이든! 어쩐 일이냐!**
이든 **너 주말에도 밥 안 먹고 혼자 있을까봐 이 형이 떡볶이 사왔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일어났냐?**
선잠 **그러게.. 요 며칠 피곤했나봐.. 잠을 하루 넘게 잔거 있지?**
이든 **너 어제 아무것도 안했어?**
선잠 **어... 근데 그렇게 잤는데 꿈을 꿔서 그런가.. 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냐. 떡볶이나 먹자.**

그때 누군가 거세게 선잠의 집 문을 두드린다.

집주인 **(문을 두드리며) 총각!!! 총각 거기 없어??**
선잠 **네..? 나갈게요! (문을 열어주며) 어쩐 일 이세요?**
집주인 **월세를 아직까지 안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3개월 치나 밀**

렸잖아!

선잠 그건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계약하실 때 선세로 드리기로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계약하는 걸 봤구요. 제가 은행갈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께 돈 드리고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했어요.

집주인 뭔 소리야!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다시 전화 와서 매달 넣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첫 달치만 넣고 나머지는 넣지도 않았어! 이번주내로 나한테 넣어줘!

집주인이 나간 뒤 서로를 바라보는 선잠과 이든.

선잠 이든아. 나 떡볶이 못 먹겠다. 먹고 치우고 가든 알아서 해. 나 아빠한테 좀 가봐야 할 거 같아.

이든 어.. 그래..!

집에서 나가는 선잠. 이든은 선잠이 빌라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고 선잠의 뒤를 쫓는다.

S#26 술집 (저녁/내부)

온통 분홍색 빛인 술집. 아버지가 있는 방 문을 여는 선잠. 그 안에 선잠의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아빠 (술을 마시며) 선잠이냐?

아빠친구1 (술이 취해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어?! 선잠이 아니냐? 너 임마! 느그 아부지한테 술 먹고 놀라고 노후자금으로 돈 좀 줬다며? 지금 이거 느그 아부지가 사는 자리야 임마! 너 덕분에 느그 아부지 기 쫙 펴고 친구들 앞에 서 잖냐!

아빠친구2 그래! 이럴 때 아빠 친구들한테 한잔 받는 거지 선잠아 이리 와서 한잔 받아!

선잠은 두 주먹을 꽉 쥔채 목례만 하고 그 방에서 나온다. 술집 근처 벤치에 앉는 선잠. 선잠의 두 손은 떨리고 있다. 선잠은 방향제를 꺼내들어 냄새를 맡는다. 멀리서 선잠을 지켜보는 이든. 냄새를 맡던 선잠은 다시 술집으로 향한다.
아빠가 계신 방문을 여는 선잠.

선잠 (테이블에 있는 술병들을 손으로 내치며) 아버지는 이 술 먹을 자격이 없지.. 그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뻔히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

아빠 이선잠 너 이새끼 미쳤어?(선잠의 어깨를 잡는다.)

선잠 어차피 이건 다 꿈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꿈이라고! 이 손놔! 니가 그러고도 아빠야? 너 때문에 우리가족 이렇게 된 건 생각 안해?

선잠의 얼굴로 향하는 아버지의 손. 이내 선잠의 얼굴을 내리친다.

선잠　　꿈이라 그런지 아프지도 않네. 아무리 꿈이지만 너는 그래도 아빠라서 내가 안 때리는 거야. 알아들어?

방밖으로 나가는 선잠. 방 문 앞에는 이든이 서있다. 이든을 흘끗 보고 가는 선잠.

이든　　(선잠의 아빠에게 달려가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빠　　(초점을 잃은 채 방 문을 바라보며) 이든아.. 선잠이가 미친것같다.. 귀신이 홀린 거 같아..
이든　　아버지 제가 따라 갈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정리하고 다른 곳에 가서 드시고요. (아버지 손에 돈을 쥐어주며) 이건 제가 아버지 쓰라고 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다른 곳에서 기분 푸세요 아버지.

이든은 선잠을 따라 술집 밖으로 나온다. 이내 전화를 거는 이든.

이든　　지금 여기 방배동으로 구급차 한 대 보내줘. 자세한건 내가 연구실 가서 설명 할 테니까. 실험체 이선잠. 부작용으로 정신병원으로 가둬 알겠어? 지금 연구실로 갈게.

S#27 연구실 (저녁/내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든. 연구실에는 수 만개의 방향제가 놓여있다.

이든　　(수만개의 방향제를 보며) 이선잠 말고 확인된 부작용은.
연구원1　　아직 없습니다. 이선잠이 특이 케이스 인 것 같습니다.
이든　　이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니들도 알고 있지? 여기에 LSD가 들어간걸 알면 사람들이 이걸 사겠냐고! 알아들어?
연구원들　　(한목소리로) 예!
연구원2　　이선잠은 우리 연구실이랑 연결되어있는 정신병원에 잘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넣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페이드 아웃)

S#28 병실 (저녁/내부)

침대만 덜렁 놓인 병실 안의 선잠.

선잠　　이거 꿈이야.. 나는 아직 꿈에서 있는 거고.. 내일이면 나는 우리 집에서 다시 일어날 거야.. 이건 꿈이야.. 나는 괜찮아..

(페이드 아웃) -END-

‘나쁜 사마리아인들’

국어국문학과 20121103
권순영

S#1. 영화의 시작

깜깜한 방, 한 남자가 핸드폰을 얼굴에 바짝 붙인 채 누워있다.
핸드폰의 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춘다.
그는 핸드폰으로 전 여자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다.
‘ 내일 면접이야. 붙으면 꼭 다시 돌아 와줘야 해.... ’
카카오톡을 위로 올려본다.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변은 한 번도 없었다.
쭉쭉 올려보던 그. 늘 있었던 일인 듯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염탐한다.
프로필 사진을 열어보던 그는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걸 알아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고 핸드폰을 침대 바닥으로 내팽겨치며 손으로 눈을 가리며 말한다.

남자 : (울먹거리며) “ 아니 씨바아알.... 기다린다매.... ”

부시럭거리던 그는 옆으로 누워 쪼그린 채로 잠이든다.
이렇게 찌질 해 보이는 그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S#2 . 꿈. 조용한 카페 사람이 거의 없는 카페이다. (흑백효과)

여자는 알 수 없는 도도한 얼굴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선도는 커피를 시킬 겨를도 없이 앉자마자 그녀는 종이를 건넨다.

여자 : (싸늘하고 냉정한 웃음기 전혀 없는 얼굴로)“ 어제 저 업고 자취방에 자취방에서 가신 모습 담긴 씨씨티비 사진이고요 정확히 한 시간 뒤에 나오셨더라고요 대체 저 데리고 가서 뭐 하셨어요? ”

선도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단박에 이해하지 못한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조심히 말을 꺼낸다.

선도 : (한대 얻어맞은 듯 멍멍한 얼굴로) “네? 아니 어제 신문 돌리다가 뵀는데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깨시면 집에 모셔다드릴...려고.. 밖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여자 : (어의가 없다는 듯이) “ 하.. 참 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바닥에서 자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집에 대려가요? 대체 뭐하려고? ”

S#3 이선도 하루의 시작.

이선도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 때리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매우 피곤한 얼굴이다.
그의 원룸은 어질러져 있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잔 듯하다.
책상위에 책과 신문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
그의 책 앞에는 한글로 이선도, 모서리에 그의 이름의 이니셜 LSD가 보인다.
책상 앞에 있는 벽에는 영어단어와 성경말씀을 쓴 포스트잇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포스트잇에 두꺼운 글씨로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

선도 : "(하품을 하며)하~암. 씨팔 조~옷 같은 꿈도 꿨네"

선도.. 억지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샤워실로 들어간다.
그는 졸린 눈으로 칫솔을 들어 양치를 시작한다.
마치 입은 하기 싫어하는데 손이 억지로 입안에 칫솔을 넣듯 우겨넣어 빡빡 문지른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폐하고 힘들어 보인다.
눈 밑의 다크서클이 마치 때가 낀 것처럼 느껴진다.
냉수에 북북 얼굴을 문지르며 세수를 한다.

S#4 골목길.. 아주 어두운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품속에 신문을 가득 안은 채 신문을 돌리고 있다.
익숙한 듯 경쾌한 발걸음과 신문을 던지는 폼이 자연스럽다.
한참동안 신문을 돌리던 선도.
술에 취한 여자를 발견한다.

(흑백효과 화면으로 페이드 인)

선도가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간다.

고개를 돌려 여자에게 다가가 술 냄새를 맡는다.
역겨운 듯 고개를 돌린다.
다시 쳐다보니 그녀가 꽤 이쁜 듯 느껴진다.
자세히 살펴본다.
그녀의 자켓 여기저기 더듬더듬 그녀의 지갑과 핸드폰을 찾는다.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다.
신문을 옆에 든 체 난감한 선도.
그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넨다.

선도 : “ 저기요! 학생! ”

여자.. 꿈적도 하지 않고 정신을 잃은 듯 웅얼웅얼 중얼거리기만 한다.

선도 : “네? 뭐라고요?”

한참을 바라보던 선도.
그녀와 시계를 번갈아가며 쳐다본다.
뭔가를 결심한 듯 그녀를 등에 업쳐든다.
자신의 자취방에 도착한 선도.
침대에 내던지듯 그녀를 내팽개치고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S#5 선도의 자취방

다시 그녀의 자켓에 뭐가 있는지 구석구석 찾는다.
그러다가 투명한 비닐 속에 약들이 들어있는걸 발견한다.
뭐지 하고 꺼냈다가 살펴보고 은연중에 옆의 책상위에 올려놓는다.
한참 더 뒤지지만 아무것도 없다.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S#6 . 신문사 (흑백효과)

선도.. 여자를 살펴보다가 깜빡 잊고 신문을 다 돌리지 못했다.
연신 죄송하다는 소리를 하며 신문사 직원에게 고개를 조아린다.

신문사직원 : (신문을 둘둘 말아 선도의 가슴팍을 쿡쿡 찌르며) “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니가!/ 가지고!/ 갔던 건!/ 다!/ 돌리고 오던가!/ 해야지 무작정 와서 다 못 돌리겠다고 하면 다야? 그럼 나머지는 누가 돌려 지금도 늦었어 이 새끼야! 지금도 전화오고 난리 났는데.”

선도 :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 아니 그게 아니라요...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진짜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그래요.. 저 시험도 엄청 힘들게 해서 통과 한 거 아시잖아요... 한번만 봐 주세요 진짜로... ”

신문사직원 : (기가 찬다는 눈빛으로) “ 우리 신문이 고객님한테 잘 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새끼야↗!! 너 무슨 면접 본다했지? 기자? 이 새끼 너 이거 남은 거 다 안 돌리고 가면 그 신문사에 전화해서 너 같은 양아치새끼는 절대, 뽑지 말라고 할 거니까! 알아서해! 씨~~팔 진짜 별 양아치 같은 새끼를 다보네 언른 돌리고와!! ”

S#7 . 선도가 면접 볼 신문사... (흑백효과)

이선도.. 헐레벌떡 뛰어 들어간다. 직원에게 면접 보러 왔다고 이야기한다.

선도 : “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저 면접 보러 왔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

면접회사직원 : “ 아 네? 근데 면접 이미 아까 전에 끝났는데요.. 안타깝지만 다음에 다시 지원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선도 : “ 아... 안 되요.. 아..저 진짜 안 되는데.. ”

면접회사직원 : “ 죄송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

선도.. 한숨을 푹 쉬며 돌아선다.

S#8 . 선도가 알바로 신문을 돌리던 신문사 (칼라)

신문사직원 : (봉투를 건네며 등을 두드린다. 선도를 진심으로 격려하듯) “ 그래,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 허허허 오늘 면접 이라했나? 어떻게 준비는 잘했어? ”

선도 : (약간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아 네! 그럼요 하핳.. 제가 준비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붙겠죠 뭐...”

신문사직원 : “ 그래 그렇지... 그래서 말이야... 학생이 진짜 평소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더 넣었어!! 면접 잘 보라고~ 면접 잘 보면 친구랑 어디 가서 한잔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공부하느라 놀지도 못했을 텐데 가서 놀아야지~~ 이제 가서 면접 붙으면 우린 학생같이 성실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선도 : “ 아 진짜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신문사직원 : “ 그래그래 가서 꼭 파이팅해서 붙어!! ”

선도 : “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

S#9 . 집으로 돌아온 선도 (흑백효과)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선도.
여자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번호가 적혀져 있는 종이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친 얼굴로 책상에 앉는다.

양복을 채 벗지도 않고 스탠드를 켠다.
스탠드를 키자 그의 얼굴에 큰 그림자가 진다.
머리를 싸매고 선도는 힘들어한다.
고개를 들어 책상 앞의 수많은 포스트잇을 바라본다.
가운데 있는 ' 네 이웃을 사랑하라 '.
한숨을 푹 쉬며 다시 책을 펴는 선도.
그때 띠링 하고 문자가 온다.
엄마다. ' 면접은 잘 봤니……? '
답장을 보내려 답장하기를 누른 채 빈 화면에 뭐라 적을지 고민하고 있다.
한참 고민하던 선도에게 띠링 하고 문자가 하나 더 온다.
선도가 아침마다 알바 하는 신문사에서 온 문자이다.
'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구했습니다. '
실망한 선도 체념한 듯 한숨 쉬며 침대에 눕는다.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쓴다.

S#10 . 집으로 돌아온 선도 (칼라)

넥타이를 풀다가 뭔가 생각 난 듯, 핸드폰을 들어 부모님한테 전화를 건다.

선도 : (긍정적이며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 어, 엄마 나야!! 그러엄~~ 잘 봤지~ 면접~~ 이번엔 진짜 잘 본거 같다니까? 붙을 거 같아~~ 저녁에 연락 준다했어!! 응응 있다가 연락 오면 다시 전화할게 나 피곤해서 좀 자려고 ~~어제 면접 때문에 좀 걱정 되서 잠 잘 못 잤어... 아냐~~아냐 뭐가 미안해~ 용돈도 꼬박꼬박 줘서 내가 알바 한번 안하고 공부 열심히 했지~~ 하하하 아냐~~충~분 했어~~ 응, 응, 그래 있다가 연락 준다니까~~ 알았어~~ 끊어~~!!

선도.. 침대에 눕고 만족한 듯한 얼굴로 편안히 잠이 든다.

S#11 . 깜깜한 밤 선도의 방 .. 부시럭 소리가 나다가 어둠속에서 갑자기 불이 켜진다. (흑백효과)

배고픈 선도는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에 몇몇 반찬이 있지만 먹을 것 없다.
눈앞에 오렌지가 보여서 오렌지를 꺼낸다.
앞면은 멀쩡해보였는데 뒤에를 보니 완전 상했다.
오렌지를 휴지통에 던진 후에 먹을 것이 없는지 뒤적뒤적 더 뒤져본다.
배는 고프지만 먹을게 없어서 애꿎은 물만 벌컥벌컥 들이킨다.
한숨을 내쉬던 선도 지갑을 꺼내 돈이 있나 확인한다.
선도는 돈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

다시 책상에 스탠드를 키고 앉아 책을 피는데 문자가 온다.
‘ 어제 저 데리고 오셨던 남자죠 어디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

S#12 . 조용한 카페 사람이 거의 없는 카페이다. (흑백효과)

여자는 알 수 없는 도도한 얼굴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
선도는 커피를 시킬 겨를도 없이 앉자마자 그녀는 종이를 건넨다.

여자 : (싸늘하고 냉정한 웃음기 전혀 없는 얼굴로)“ 어제 저 업고 자취방에 자취방에서 가신 모습 담긴 씨씨티비 사진이고요 정확히 한 시간 뒤에 나오셨더라고요 대체 저 데리고 가서 뭐 하셨어요? ”

선도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단박에 이해하지 못한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조심히 말을 꺼낸다.

선도 : (한대 얻어맞은 듯 멍멍한 얼굴로) “네? 아니 어제 신문 돌리다가 뵀는데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깨시면 집에 모셔다드릴...려고.. 밖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여자 : (어의가 없다는 듯이) “ 하.. 참 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바닥에서 자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집에 대려가요? 대체 뭐하려고? ”

선도 : (정말 세상 억울한 표정)아니.. 어제 성폭행 당하려던 걸 제가 구해드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 “ 하 참나.. 그러면 이건 뭐에요 이건 뭔데요 이거 마약 아니에요? 이거 나 먹이고 강간했죠? ”

여자.. 방에서 주섬주섬 투명한 비닐을 꺼내 선도에게 건넨다. 안에는 하얀 약이 들어있다.

선도 : (당황하며) “ 에? 이거 당신 주머니에 있던 건데요.”

여자 : (기가 찬 듯) “ 하 참 존 나 어이없네.... 무슨 소리야 당신 책상위에 버젓이 올려 져 있던건데 그게 무슨 제 주머니에 있었다는 거에요 !! ”

선도 : “ 아니... 무슨 소리.. ”

여자 :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 저 진짜 고소할거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

S#13. 깜깜한 밤 선도의 방 .. 부시럭 소리가 나다가 어둠속에서 갑자기 불이 켜진다.(칼라)

선도.. 기지개를 하며 핸드폰을 찾아 두리번두리번 거린다.
핸드폰을 켜서 몇 시 인지 확인한다.
이미 면접 본 회사에서 문자가 와있다.
두근두근 대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어 천천히 문자를 확인하는 선도.
손으로 잽싸게 가린 채 천천히 내리며 문자를 살핀다.
‘ 금일 면접에서 귀하는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는 선도.
제일먼저 집에 전화한다.

선도 :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다. 기쁜 것이 얼굴에서 그대로 들어난다.)
“ 어 엄마 난데!! 나 붙었대!!!!! 그러엄~~ 누구 아들인대에~~ 이제 기자지 그럼~~ 기자~~ 이기자라고 불러줘 이기자~~히히힣 그래그래 알았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

선도.. 다시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한다.

선도 : (일부려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연스럽게 행복한 그의 얼굴이 보인다.) “ 어 야 난데 뭐 하냐 술 한잔해야지 내가 살게~ 그래 새끼야~ 응 그래 어~ ”

선도.. 아침에 받은 월급봉투를 꺼내들고 집을 나선다.

S#14. 방으로 돌아온 선도..(흑백효과)

선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입고 있던 자켓을 바닥에 내던진다.
문득 책상 앞에 있는 포스트잇 중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보인다.
한참을 분을 못이긴 듯 씩씩 거리다 침대에 눕는다.
분이 안 풀린 듯 이불을 걷어차고 돌아 눕는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지다.

선도 : (베개에 묻고 소리쳐서 잘 들리지 않는다.) “ 아 씨바아아알!! 진짜 좇 같네 진짜아!! 왜 나한테만 지랄들인데 씨팔!!!!!! ”

선도.. 그러고도 한참을 발버둥 친다.
잠깐의 정적.
꼬르륵. 배가 고프다.
뭔가가 생각 난 듯, 벌떡 일어난다.

바지 주머니를 한참 뒤지던 선도.
카페에서 여자가 준 약을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 한참을 바라본다.
망설이다가 결국 입에 약을 털어 넣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그리곤 침대에 앉아 멍을 때린다.
한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그의 얼굴이 보인다.
눈 한번 깜빡하지 않는다.
시계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린다.
천천히 천천히 그의 얼굴을 중심으로 화면에 색감이 더해진다.
흑백의 화면이 완전히 칼라로 변했을 쯤 선도가 입을 땐다.

선도 : “(하품을 하며)하~암. 씨팔 조~옷 같은 꿈도 꿨네”

The end

虛와 失
(가제)

국어국문학과 20141129
이기일

s#1. 대학교 캠퍼스 건물 안

화창한 캠퍼스 곳곳의 모습이 나온다.
강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도연.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복도를 걷는다.
도연이 걸어간 자리를 따라 제목이 나타난다.(페이드아웃)

s#2. 대학교 캠퍼스 안의 길

길을 걸어가는 도연.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오자 멈춰 선다.

기일) 야 김도연 뭐함?
도연) 지금 기숙사 가는 길
기일) 너 과제 했냐?
도연) 아니 아직
기일) 나 지금 노트북 망가져서 pc실 가서 하려고
같이 할래?
도연) ㅇㅋㅇㅋ
피시실로 가겠음

다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는 도연.
s#3. PC실

화면에 비춰지는 PC실 표지판,
시계는 4시를 막 넘기고 있다.
PC실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는 도연과 기일.
기일은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 도연은 핸드폰만 보기 바쁘다.

기일: 야, 과제 안하냐?
도연: 아직 시간 많아. 그거 목요일까지잖아.
기일: 나 할 때 해라~ 너 또 제출 못해서 점수 깎인다.

기일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는 도연.
갑자기 가방에서 교재와 필기구를 꺼내더니 사진을 찍는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도연.

[(사진) + 내용 : 과제 넘나 지겨운 것~~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

도연: 야야, 내 사진 좋아요 눌러줘
기일: (어이없어하며) 허… 야 너 과제 안하고 놀고만 있잖아.

도연: 설정이지 설정~

도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 기일.
.
시간이 지나고,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다.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는 도연.

기일: (기지개를 켜며) 으~ 다했다. 야, 아직도 그러고 있냐?
도연: 어! 6시네… 아 몰라~ 내일 해야지.
기일: 미루다가 또 안 한다니까 너?
도연: 아 몰라~
기일: (도연이 지겹다는 듯) 어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짐을 챙겨 나가는 두 사람.

s# 4. 교내 식당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
도연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다.

기일: 맞다. 얼마 전에 학교 앞에 새로운 카페 생겼는데 분위기 장난 아니래.
이따 밥 먹고 갈래?
도연: (핸드폰을 보며 대충 대답한다.) 어, 그래.
기일: 거기 롤케익도 맛있데. 하나 시켜서 같이 먹을까?
도연: (핸드폰을 보며) 그래, 그래…
기일: 야,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거야? 아까부터 그것만 보고 있잖아.
도연: (계속 핸드폰을 보며) 아니거든~
기일: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체 몇 시간째냐?
도연: 아씨… 니가 무슨 상관이야?
기일: 뭐? 야 그거 보고 있으려면 뭐 하러 같이 있냐?
도연: 야 너랑 맨날 보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기일: 뭐?
도연: 맨날 뻔한 얘기만 하잖아. 그리고 친구끼리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뭐 어때서?
기일: 그래서 너 그걸로 뭐 보고 있었는데? 줘봐.

핸드폰을 뺏어 드는 기일.
그냥 별거 아닌 내용들의 SNS.

기일: (비꼬면서) 이런 거 보고 있느라 그렇게 바쁘셨어요?
도연: 미쳤냐? 내놔!
기일: 야, 됐다. 그냥 그거 하면서 혼자 놀아.

기일이 식판을 들고 먼저 자리를 뜬다.

도연: (기일쪽을 어이없다는 듯 보며) 하..차…

다시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도연.

s# 5. 거리 (기숙사 가는 길)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는 도연.
앞을 안보고 가다가 나뭇가지를 피하지 못한다.

도연: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아! 아…짜증나.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다. (페이드아웃)

-The end-

‘ 중독 ’
(가제)

국어국문학과 20111135
이하늘

s#1. 음식점 앞 길거리

일요일 늦은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감하고 가게 앞에서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는 영심.
아르바이트 퇴근이 늦어졌기에 전철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뛰어간다.

s#2.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 앞 영심(손목시계와 신호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불안해한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육교를 발견하고 힘겹게 뛰어 올라 길을 건넌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영심.

s#3. 지하철역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고 뒤러 물러서라는 안내방송과 동시에 빨간색 열차접근 신호가 보인다.
황급히 지하철 도착 시간에 맞춰 도착한 영심
간신히 지하철에 오른다.

s#4. 지하철 열차 안

늦은 시간 지하철 열차 안
몇 명뿐인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어폰을 끼고 각자의 핸드폰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지하철 승객을 한번 씩 같은 리듬으로 촬영)
그 중 영심의 바로 앞자리 한 사람역시 이어폰을 낀 채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옆에는 꽃다발과 명품샵의 쇼핑백이 있다.
영심의 시선이 앞자리 사람과 명품 쇼핑백에 잠시 머문다.

영심 또한 고된 몸을 자리에 기대고 앉으며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꺼내 습관적으로 이어폰을 연결하고 귀에 꼽는다. (하지만 음악은 재생하지 않는 영심)
갑자기 자리에 앉은 주인공이 무엇인가 불편을 표정을 지으며, 뒷주머니를 확인한다.
뒷주머니에서 포크(식기)가 나온다.
주인공이 아르바이트 중 바쁜 와중에 치우던 포크를 무심코 뒷주머니에 넣은 채로 퇴근한 것이다.

s#5.플래시백 식당 안(흑백)

(가게 안 식탁을 치우던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주우려던 차에 영심을 부르는 손님)

손님: 여기요~주문 좀 받아주세요.

영심: 네~ (손님의 목소리에 순간 손에 쥔 포크를 뒷주머니에 넣고 뛰어간다.)

s#6. 다시 지하철 열차 안

영심은 손에 든 포크를 잠시 바라보곤 (손에 들린 포크 클로즈업) 이내 무심한 듯 포크를 옆의 가방에 넣고 다시 핸드폰을 본다.

밝혀진 핸드폰의 잠금 배경화면은 대학교 시간표(월,화,수,목,금 빡빡하게 짜여져있는 시간표, 클로즈업)
영심은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고 곧바로 sns를 실행한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무표정한 주인공 얼굴 클로즈업)

영심과 지하철 사람들의 핸드폰 화면 속 sns와 메신저에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다른 사람

들의 일상들이 줄줄이 업로드 되고 있다.

주말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린 사진부터 타인들의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보낸 데이트 사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값비싼 음식들, 선물 받은 혹은 새로 구매한 멋지고 아름다운 비싼 명품이 찍힌 사진들이 담긴 게시글들.

곧이어 영심의 친한 친구가 올린 명품(가방, 구두, 시계) 물건의 사진 게시글이 보인다. 사진을 보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유심히 살피는 영심.
(동시에 sns를 보면서 초조한 표정으로 천천히 한쪽 손톱을 물어 뜯는 영심 댓글내용 클로즈업)

-댓글내용

댓글 1: 대박...저거 어떻게 구한거야???나도 사려는데 금방품절됐던데ㅠㅠㅠ/
댓글 2: 선물 받은거???
댓글 3: 실화냐
~등등
-모두 놀라움과 부러움이 가득한 내용들이다.

뒤이어 카톡 메신저를 확인하는 영심.
이미 친구들과의 단체 메신저 방에는 수많은 사진과 내용들이 쌓여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미처 읽지 못한 글을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영심.
단체 메신저 속엔 sns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주말동안 즐겼던 일상들의 사진(맛있는 음식, 풍경, 여행, 물,)이 수없이 게시되어있고,
친구들은 서로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칭찬하기에 바쁘다. / 메신저를 보면서도 계속 천천히 손톱을 물어뜯는 주인공)

영심은 곧바로 인터넷 어플을 실행하고 적당히 맛있는 음식사진 검색한다. 그사진을 캡쳐하고 수정하여 단톡방에 사진을 게시한 후 메시지를 보내는 영심.

-메신저 내용

영심: 아 피곤해ㅠㅠㅠ나는 이번에 소개받은 사람이랑 하루동일 있느라 지금 핸드폰 봤다ㅠㅠ
지난번에 동네친구 소진이가 소개해줬던 사람이 자꾸 연락이 와서 오늘 만났는데, 나 데리고 갔던 식당이 진짜 대박임ㅋㅋㅋ

사진과 영심의 말에 연달아 올라오는 부러움과 놀라운 반응들, 그에 만족한 듯 웃음 짓는 영심.
(물어뜯던 손이 내려올 찰나)
이때 주인공의 엄마에게 문자가 온다.

-문자내용

엄마: 우리 이쁜 막내 딸~주말에 공부한다고 집도 잘 오지도 않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지난번에 말한 교재비랑 토익인터넷 수강비 오늘 입금했는데 확인해보렴~내일 월요일인데 수고하고 사랑한다. 우리 딸 화이팅!!

문자를 확인한 주인공 표정이 잠시 굳어지지만,
이내 돈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자 미묘하게 밝아지는 영심의 얼굴.

1번 입금 문자 확인 후 나머지 문자를 확인하는 영심.

-2번째 문자 내용

통신사: 지난 3월 한달 소액결제미납금 111000원이 있습니다. 장기 미납 시 추후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용 통장 혹은 창구를 통해 납부 부탁드립니다. - 통신사-

(손톱을 다시 천천히 물어뜯는 주인공)

-3번째 문자

소진: 야 너 나 카톡차단했냐??——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도대체 너 페북이랑 인스타도 나 차단해놨더라 이러지 말고 빨리 갚아
문자보면 바로 연락 줘

(주인공이 점점 손톱을 조금씩 빠르게 물어뜯음)

영심은 신경질적으로 메시지 창을 닫고,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린다.

핸드폰 어플로 음악을 재생한 후 단체톡을 다시 열어 친구들을 반응을 살피는 영심.
단체톡방은 온통 자신과 소개남과 갔던 식당, 소개남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의 이야기로 가득

하다.
이내 얼굴이 밝아지며 친구들의 부러움에 대답하는 주인공.

영심: 아냐ㅜㅜ 아 오늘 하루 종일 끌려 다녔더니 피곤하다ㅠ 먼저 잘게 얘들아~

곧바로 sns를 실행하는 영심.
아까 봤던 친구의 명품 게시글에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있는 알림이 울리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자신의 SNS페이지로 돌아와 아까의 단체메신저에 올린 사진을 sns에도 게시한다.
-게시글 코멘트 #오늘맛있게 잘먹었어요~#식당이름/#음식이름

금세 게시물에 달리는 부러움과 질투의 댓글들을 보고 한껏 밝아지는 영심의 얼굴.
(물어뜯던 손을 내려놓는다. 지하철 창가에 비친 밝아진 영심의 얼굴)
밝아진 표정의 주인공, 귀에는 여전히 이어폰을 끼운 채 은행 어플로 잔고를 확인한다. 핸드폰 인터넷 웹으로 실행하고 명품 온라인 쇼핑몰과 저렴 항공권 판매 페이지를 번갈아가며 열심히 본다.
이내 피곤한 듯 눈이 감기는 영심.
F.O

S#7.지하철 하차 후 문 닫음 방송안내와 함께 F.I

잠시 잠들었던 영심이 열차 방송소리에 깨어난다. 깨어난 영심은 음악이 들리지 않자 핸드폰을 확인한다. 배터리가 다되어 전원이 꺼진 핸드폰.
주위를 둘러보며 연결된 이어폰을 정리하는 영심.
원래 몇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거의 내리고 적막한 지하철 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핸드폰만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지하철 한 칸 안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영심에게 먼 자리에 위치한 1~2명뿐이다. 그 마저도 곧 내릴 채비중이다.

갑자기 지하철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영심.
이내 자신의 꺼진 핸드폰과 영심의 바로 정면의 앞자리, 전철 안 사람들을 번갈아가며 갈등하는 얼굴로 다시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영심의 시선)영심의 자리 정면 앞에 있던 사람은 없고
꽃과 명품샵 쇼핑백만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계속 주위 눈치를 살피는 영심.

그때 지하철 창밖 노란색 신호등불이 스쳐지나간다.

F.O

s#8.지하철 역

F.I
하차 방송과 함께 지하철 빨간 위험신호가 울림과 동시에
지하철 승하차구간에 멈추는 열차.

열린 열차의 문이 닫힐 때 쯤 뒤늦게 황급히 내리는 영심.
내린 주인공의 손에는 앞자리에 놓여있던 명품샵 쇼핑백이 들려있다.
문이 닫히는 열차.
주위를 살피고 황급히 쇼핑백안을 열어보는 영심
쇼핑백 안에는 찢어진 포장지와 빈 박스뿐이다.
허망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의 영심.

실망한 표정도 잠시 놀란 얼굴로 막 출발하는 열차쪽을 바라본다.
열차안 영심의 자리에 포크를 넣었던 가방과 그 앞자리 꽃이 보인다.
열차는 출발하고 영심은 허망하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명품샵 쇼핑백만 바라본다.
F.O

S#9. 집으로 가는 길 F.I

빈손으로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영심의 뒷모습과
길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대비되는 텅 빈 명품 쇼핑백의 모습이 교차.

홀로 걸어가는 영심의 뒷모습과 함께 녹색 신호등이 다시 교차하며 ENDING

-THE END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집행부 편집부장을 맡았던 이제훈입니다. 신입생으로 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이 되어 여러분들의 한국문학탐방 자료와 공모전 작품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학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오타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편집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국어국문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편집부장 이제훈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바심 회장을 맡은 이인혜입니다. 학기 말을 장식하는 글열음의 인사말을 쓰는 지금, 동아리를 처음 맡았을 때가 떠오릅니다. 동아리 장으로서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2년 동안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과 부원들과 하나, 하나 성취해가는 즐거움을 함께 맛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늘 믿고 따라준 부원들에게도, 많은 도움 주신 집행부와 부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2018년 저는 회장 자리에서 바심에 있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바심은 부원들이 행복한 동아이로, 즐거운 동아리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2017년이 행복했듯 여러분의 남은 2017년도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어국문학과 바심 회장 이인혜

영화비평 학술동아리 시놉시스 회장을 맡고 있는 권순영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영화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원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해서 좋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들 학술제가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시놉시스 회장 권순영

소설 창작반을 일 년간 하며 가장 느낀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회장인 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리이므로 많은 신입생들이 유입되지만 동시에 한 학기가 지나면 그 신입생들 중 반이 빠져나갔습니다. 학기동안 어떻게 하면 즐겁게 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작년에 이어 이번 년도에는 더 큰 고민을 했고, 적어도 그 부분은 이루어 진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 국어국문학과 소창 회장 김주성

메모장

메모장